

한영
대역

심청가 바디벌전집 5

정응민 바디

Jeong Eung-min Version Simcheongga
(Sung by Jo Sang-hyeon)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북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심청가 바디별 전집 5

2011년 11월 25일 인쇄

2011년 12월 1일 펴냄

지은이 || 채록·교주 : 최동현, 번역 : 박승배

감수 : 최동현, Philip Owen, 전산 : 오석형

발행 || 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 (02) 3704-9119

전라북도 : (560-76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 (063) 280-2114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 (561-807)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산1-1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장 1층

☎ (063) 232-8398

인쇄처 || 신아출판사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51-30

Tel. 063-275-4000

ISBN 978-89-5925-931-1 04810

978-89-5925-508-5 (전5권)

한영
대역

심청가
바다별전집 5

■ 책 머리에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관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관소리 영어 사설 자막 제작 사업’의 다섯 번째 결과물이다. 2007년에는 〈춘향가〉, 2008년에는 〈심청가〉, 2009년에는 〈홍보가〉, 2010년에는 〈수궁가〉를 번역하여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바 있다. 올해는 〈적벽가〉 다섯 바탕과 〈정웅민 바디 조상현 창 심청가〉, 그리고 단가를 자막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그 부산물로 한영대역 《적벽가 바디별 전집》(1-3), 《심청가 바디별 전집》(5), 《관소리 단가》의 다섯 권으로 책을 내게 되었다. 이것으로 이 사업은 끝을 맺는다.

올해 제작한 적벽가 다섯 바탕은 박동진 바디, 송만갑 바디, 정웅민 바디, 김연수 바디, 유성준 바디이다. 이 중에서 유성준 바디는 현재 거의 부르지 않고 있지만, 임방울이라는 대명창의 〈적벽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다. 올해 특별히 단가를 포함시킨 것은 관소리 속에는 당연히 단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정웅민 바디 조상현 창 심청가〉를 보충한 것은 정웅민 바디는 정권진, 성우향, 성창순, 조상현이 제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어서 어느 하나라도

뺨 경우 자막으로 사용하는 데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다섯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총 5년간의 작업이 마무리된다. 책으로 치면 스물한 권이다. 해마다 시간에 쫓기어 완벽한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물론 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탓도 크다. 그렇다고 머뭇거리기만 할 수 없어서 일을 시작했고, 이제 그 결말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결과물이 비록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과감하게 도전에 나선 용기만은 가상하다고 보아주신다면 고맙겠다.

판소리는 다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판소리는 흥행예술이다. 그런데도 판소리가 흥행예술로서는 이미 생존을 마친 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소리는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연대회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와중에 옛 명창들은 또 한 사람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그리하여 무형문화재 빈 자리가 많이 생겼는데도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러다보니 다양했던 판소리 바디들이 자꾸만 줄

어둔다. 이렇듯 상황은 분명히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기의 징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안타깝다.

흔히 하는 말로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항상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만 위기가 기회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판소리가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이 작은 노력이 그 희망의 작은 불씨나마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문화체육관광부와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김한 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예쁜 디자인을 맡아 주신 여태명문자조형연구소의 여태명 선생과 직원 여러분, 출판을 맡아 책으로 꾸며주신 신아출판사 서정일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 다시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늘 쓸쓸하지만, 올 가을만은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1년 깊은 가을날에
지은이 씀

차 례

■ 책머리에•4

* 정응민 바디 심청가(조상현 창)

1. 심봉사 내력	12
2. 곽씨부인 품팔이	12
3. 기자 치성	16
4. 심청 출생	20
5. 남녀 확인	20
6. 삼신 축원	22
7. 곽씨부인 유언	24
8. 곽씨부인 죽음	28
9. 상여소리	32
10. 평토제	36
11. 심봉사 통곡	38
12. 심봉사가 우는 딸을 달랠	38
13. 젖동냥	42
14. 심봉사 동냥	46
15. 심청 부친 봉양	46
16. 심청 걸식	48
17. 시비 따라	52
18. 심청 수양딸 거절	54

19. 심봉사 물에 빠짐	56
20. 심봉사 구출	58
21. 공양미 시주 약속	62
22. 심청 위로	64
23. 심청 치성	66
24. 남경선인	68
25. 행선 전야	70
26. 심봉사 만류	74
27. 장승상부인 작별	78
28. 선인 따라	82
29. 범피증류	84
30. 원혼 만남	88
31. 인당수 투신	94
32. 선인 탄식	98
33. 심청 용궁행	100
34. 모친 상봉	104
35. 심청 환생	106
36. 화초타령	110
37. 천자 심청 발견	114
38. 추월만정	114
39. 맹인 잔치 마련	118
40. 심봉사 딸 생각	118
41. 뽕덕이네 생김새와 행실	120
42. 뽕덕이네 가산 탕진	122
43. 뽕덕이네 도망	124

44. 심봉사 탄식	128
45. 심봉사 목욕	130
46. 무릉태수에게 의복 청함	134
47. 방아타령	136
48. 안 씨 맹인	138
49. 심황후 탄식	142
50. 부녀 상봉	144
51. 심봉사 개안	146
52. 모든 맹인이 같이 눈뜬	148
53. 심봉사 환호	150
54. 황봉사	152
55. 후일담	156

A Brief Introduction to Pansori

- *Pansori* is performed by one singer and one drummer. The drummer maintains the rhythm (*jangdan*) with the use of the drum while the singer performs a long narrative poem by singing, narrating, and acting.
- In *Pansori*, songs and narrations alternate constantly. When the singer sings or speaks, he or she may open or close the fan, or act out the actions of characters of the work. In this literature *Aniri* is the narration mode. *Jinyangjo*, *Jungmori*, *Jungjungmori*, *Jajinmori*, *Hwimori*, *Eonmori*, *Eotjungmori* are singing modes of different rhythms.

Jinyangjo : One measure consists of six slow beats, and 24 beats in 4 measures make up one rhythm cycle. It is expressed in 18/8 time.

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beats of moderate speed, and it is expressed in 12/4 or 12/8 time.

Jung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12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Jajin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slightly quick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12/8 time.

Hwi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4 very quick beat, and it is expressed in 4/4 time.

Eonmori : Alternating measures consist of 2 and 3 beats, and the complete cycle consists of 10 very quick beats. It is expressed in 10/8 time.

Eotjungmori : One measure consists of 6 beats, and it is expressed in 6/4 time.

조상현 창

Sung by Jo Sang-hyeon

1. (심봉사 내력) 심학규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로, 스무 살 이후에 봉사가 되었다.

[아니리] 송나라¹⁾ 원풍²⁾ 말년에 황주 도화동³⁾ 사는 봉사 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라.
누대명문거족⁴⁾으로 명성⁵⁾이 자자터니,
가운⁶⁾이 불행하야 이십 후⁷⁾ 안맹하니,⁸⁾
낙수청운에 발자취 끊어지고⁹⁾
일가친척 멀어져 뉘라서¹⁰⁾ 받드리오?
그러나 그 아내 곽씨부인이 있는데, 또한 현철¹¹⁾하사
주남,¹²⁾ 소남,¹³⁾ 관저시¹⁴⁾를 모르는 것 전혀 없고,
백집사가감¹⁵⁾이라. 샅을 받고 품¹⁶⁾을 팔 제,

2. (곽씨부인 품팔이) 곽씨부인이 품을 팔아 가장을 보살핀다.

[중중모레] 샅바느질, 관대,¹⁷⁾ 도복,¹⁸⁾ 행의,¹⁹⁾ 창의,²⁰⁾ 직령²¹⁾이며,
섭수,²²⁾ 쾌자,²³⁾ 중치막²⁴⁾과 남녀 의복의 잔누비질,²⁵⁾
상침질,²⁶⁾ 꺾음질²⁷⁾과 외올뜨기,²⁸⁾ 꿰담²⁹⁾이며,
고두누비,³⁰⁾ 솔오리기,³¹⁾ 망건³²⁾ 꾸며
갓끈 접기, 배자,³³⁾ 토수,³⁴⁾ 버선, 행전,³⁵⁾ 포대,³⁶⁾ 허리띠, 다님,³⁷⁾

1. (Mr. Sim's Personal History) Mr. Sim is a descendent of a fallen high class family. He became blind after the age of twenty.

[Aniri]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blind man in Peach Blossom Village.

His last name was Sim, and his first name was Hak-gyu.

His family once was eminent and powerful.

But all that changed and he became blind at twenty.

He can't serve in the government.

He became distant from his relatives. Who would look up to him?

But he had a wife, Mrs. Gwak. She was wise and intelligent.

She had a good understanding of classic books.

She could handle any work without a problem. She works as a day laborer.

2. (Mrs. Gwak Works as a Day Laborer) Mrs. Gwak takes care of her husband by working as a day laborer.

[Jajinmori] Mrs. Gwak does needlework on official's, Toist's, scholar's, causal, and military clothes.

She quilts military, male, and female clothes.

She sews the edge of clothing with a needle. She makes headbands and bags.

She does fine needlework up and down. She patches and embroiders headbands.

She works on the strings of cylindrical hats, female vests, wristlests, socks, leggings, ramie bands, belts, ankle bands,

줌치,³⁸⁾ 씹지,³⁹⁾ 약낭⁴⁰⁾ 필낭,⁴¹⁾
 휘항,⁴²⁾ 불치,⁴³⁾ 복건,⁴⁴⁾ 풍차⁴⁵⁾이며,
 천의,⁴⁶⁾ 주의,⁴⁷⁾ 갓인⁴⁸⁾ 금침,⁴⁹⁾
 베갯모⁵⁰⁾ 쌍원앙⁵¹⁾ 수도 놓고,
 오색 모사,⁵²⁾ 각대,⁵³⁾ 흥배⁵⁴⁾ 학 그리기,⁵⁵⁾
 궁초,⁵⁶⁾ 공단,⁵⁷⁾ 수주,⁵⁸⁾
 선주,⁵⁹⁾ 낙릉,⁶⁰⁾ 갑사,⁶¹⁾ 운문,⁶²⁾ 토주,⁶³⁾
 갑주,⁶⁴⁾ 분주,⁶⁵⁾ 표주,⁶⁶⁾ 명주,⁶⁷⁾
 생초,⁶⁸⁾ 통견,⁶⁹⁾ 조포,⁷⁰⁾ 복포,⁷¹⁾
 황저포,⁷²⁾ 춘포,⁷³⁾ 문포,⁷⁴⁾ 제추리⁷⁵⁾며,
 삼배, 백저,⁷⁶⁾ 극상세목⁷⁷⁾ 샅을 받고 말어 짜기,
 청 · 황 · 적 · 백⁷⁸⁾ · 침향,⁷⁹⁾ 회색 각색으로다⁸⁰⁾ 염색허기,
 초상난 집의 원삼,⁸¹⁾ 제복,⁸²⁾
 혼장대사⁸³⁾ 음식 숙정,⁸⁴⁾
 갓은⁸⁵⁾ 증편,⁸⁶⁾ 중계,⁸⁷⁾ 약과,⁸⁸⁾ 박산,⁸⁹⁾ 과자에 다식,⁹⁰⁾ 정과,⁹¹⁾ 냉면,
 화채⁹²⁾에 신선로,⁹³⁾ 각각 찬수,⁹⁴⁾ 약주 빚기,
 수과련,⁹⁵⁾ 봉오림⁹⁶⁾과 배상하기,⁹⁷⁾ 괴임질⁹⁸⁾을
 잠시도 놀지 않고, 수족⁹⁹⁾이 다 진토록¹⁰⁰⁾ 품 팔아 모일 적에,
 푼¹⁰¹⁾ 모아 돈¹⁰²⁾ 짓고, 돈 모아 양¹⁰³⁾ 만들어, 양을 지어 관돈¹⁰⁴⁾
 되니,
 일수,¹⁰⁵⁾ 체계,¹⁰⁶⁾ 장리변¹⁰⁷⁾을 이웃집 사람들에게 착실한 곳 빛을 주
 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춘추시향¹⁰⁸⁾의 봉제사,¹⁰⁹⁾
 앞 못 보는 가장 공경 시종이 여일허니,¹¹⁰⁾
 상하인리¹¹¹⁾의 사람들,

bags, tobacco pouches, money pouches, brush pouches,
long headgears, muffs, cloth headgears, fur headgears
small quilts, topcoats, quilts, pillows,
embroidering of two mandarin ducks on pillow ends,
colorful woolen yarns, and belts. She embroiders nobilities'
clothing with a figure of a crane.
She weaves a thin silk, a thick silk, a silk of high quality,
cloths, a silk for summer clothes, a silk having a cloud figure,
a silk cloth,
a fancy silk, a silk from a region, a colorful silk, a silk without
a figure,
a raw silk, a coarse silk, a narrow ramie cloth, a fine ramie cloth,
ramie cloths from different regions,
a white ramie cloth, and a fine cotton cloth to make money.
She dyes them with blue, yellow, red, white, yellowish brown,
and gray colors.
She makes clothes for a funeral and a uniform.
For a big event, such as marriage, she makes food:
a rice cake, an oily cake, a honey cake, a thin candy, a kind
of candy, fruit, a noodle,
a flower drink in a bowl, side dishes, and wine.
She prepares lotus flowers and flowery decorations. She places
food on a food table.
Without taking a rest, she works hard as a day laborer.
She earns money little by little and the amount of money
gradually goes up.
She lends the money to good neighbors and takes it back along
with interest.
She holds a ritual to her husband's ancestors.
She consistently takes good care of her blind husband.
People in neighboring villages praise her.

3. (기자 치성) 곽씨부인이 자식을 낳기 위하여 공을 드리다가, 어느날 선녀가 품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다.

[아니레] 곽씨부인 어진 마음 뉘 아니 칭찬허리?

하로난¹¹²) 심봉사 먼 눈을 번쩍이며,

“여보, 마누라. 전생에 무삼¹¹³) 죄로 이생¹¹⁴)에 나를 만나,
한 시, 반 시 놀지 않고 어린아이 받들 듯이 나를 이렇듯 공대¹¹⁵)허니,
나는 편타¹¹⁶) 할지라도, 마누라 고생살이¹¹⁷) 도리어 불안허오.

우리가 사는 대로 살아가되, 지원¹¹⁸)할 일이 있소.

우리 연장사십이나¹¹⁹) 슬하¹²⁰) 일점혈육¹²¹) 없어

선영¹²²) 향화¹²³) 끊게 되고,

우리 내외 사후¹²⁴)라도 초종장사¹²⁵) 소대기¹²⁶)며 연년이¹²⁷) 오난¹²⁸)
기일¹²⁹) 뉘라서 받드리까?

우리가 명산대찰¹³⁰) 신공¹³¹)이라도 드러 남녀간에¹³²) 하나만 낳아
보았으면,

평생 한을 풀겠구만.”

곽씨부인 이 말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창조] “가군¹³³)의 정대하신¹³⁴) 마음 몰라 발설¹³⁵)치 못했삽더니,
이제 말씀 그리 하시니 지극 신공 허오리다.”

[아니레] “옛글에 하였으되, 불효삼천에 무후위대¹³⁶)라 하였으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을 못 허오리까?”

“거 정성껏 빌어 보오.”

[중모레] 곽씨부인 그날부터 품 팔아 모은 재물, 원갓¹³⁷) 공을 다 드
릴 제,

3. (Praying for a Child) Mrs. Gwak prays to gods for a child. One day a goddess comes into her bosom in her dream.

[Aniri] Who wouldn't praise Mr. Gwak for being kindhearted? One day Mr. Sim blinks his blind eyes rapidly as he speaks. "Hello, honey. Your fate is bad to have met me in this life. You support me without taking a rest even for a moment as you would do a child.

My life is easy. But I am worried that your life is hard. We should live a natural life. But I have something that I badly want to say to you.

We are in our 40s now. Yet we don't have a child.

Nobody will hold a ritual for my ancestors.

Nobody will hold rituals in memory of us every year after we die.

So please pray to gods in good places that we have a child, a boy or a girl.

Then, my lifelong wish will be fulfilled."

Mrs. Gwak responds politely,

[Song Mode] "I didn't express my thought because I didn't know yours.

Since you say so now, I will start praying to gods."

[Aniri] "An old classic says, 'The worst thing a descendant does to his parents is not to have a child.

So I will make an effort to the degree that my bones wear down."

"Please pray hard to gods."

[Jungmori] Mrs. Gwak spends the money she earned as a day laborer to pray to the gods.

명산대찰, 영신당¹³⁸)과
 고묘,¹³⁹ 총사,¹⁴⁰ 석왕사¹⁴¹)며,
 석불,¹⁴² 미륵¹⁴³) 서 계신 데 허유허유¹⁴⁴) 다니시며,
 가사시주,¹⁴⁵ 인등시주,¹⁴⁶ 창호시주,¹⁴⁷)
 시왕불공,¹⁴⁸ 칠성불공,¹⁴⁹ 나한불공,¹⁵⁰) 가지가지 다 드리니,
 공 든 탑이 무너지며, 심든¹⁵¹) 남기¹⁵²) 꺾어질까?
 갑자 사월 초파일야¹⁵³) 한 꿈을 얻은지라.
 서기 반공¹⁵⁴)허고, 오채¹⁵⁵) 영룡터니,
 하늘의¹⁵⁶) 선녀 하나 옥경¹⁵⁷)으로 내려오는데,
 머리에 화관¹⁵⁸)이요, 몸에는 원삼¹⁵⁹)이라.
 계화가지¹⁶⁰) 손에 들고
 부인 전 배례¹⁶¹)하고, 곁에 와 앉는 거동
 뚜렷한 달 정신¹⁶²)이 산상에¹⁶³) 돌아난 듯,
 남해 관음¹⁶⁴)이 해중에¹⁶⁵) 다시 온 듯,
 심신이 황홀하여 진정키 어렵더니,
 선녀의 고운 태도, 호치¹⁶⁶)를 반개허고¹⁶⁷)
 채옥성¹⁶⁸)으로 말을 한다.
 “소녀는 서왕모¹⁶⁹) 딸일러니,
 반도¹⁷⁰) 진상¹⁷¹) 가는 길에,
 옥진비자¹⁷²) 잠깐 만나 수어¹⁷³) 수작¹⁷⁴)을 허옵다가,
 시각이 늦은 고로¹⁷⁵) 상제전¹⁷⁶) 득죄하여,¹⁷⁷)
 인간¹⁷⁸)에 내치시매¹⁷⁹) 갈 바를 모르고 방황타가
 태상노군,¹⁸⁰) 후도부인,¹⁸¹) 제불보살,¹⁸²) 석가님이 댁으로 지시하여
 이리 찾아왔사오니, 어여빠 여기소서.”
 품 안으로 달려들어, 놀래어 깨달으니 남가일몽¹⁸³)이라.

She prays in buddhist temples and shrines on famous mountains.

She prays in shrines and buddhist temples.

She travels to many places to pray to the statues of Buddha.

She donates clothes, lamp oil, and papers to buddhist monks.

She prays to the Ten Judges, the Ursa Major, and a Buddha's disciple.

Inevitably, her hard efforts pay off.

She has a dream at night on April 8th.

The air is filled with favorable energy. The colorful air is bright.

A goddess from the capital city of heaven comes down.

She wears a flowery hat and silky clothes.

She holds a cinnamon branch on her hand.

She gives a big bow to Mrs. Gwak and sits down next to her.

It looks as if a moon soared above a mountain,

and as if the Buddhist Goddess of Mercy rose up from the sea.

Mrs. Gwak is in awe and can't calm herself down.

The elegant goddess exposes the half of her white teeth.

She speaks with a beautiful voice.

"I am an adopted daughter of a goddess.

I was on my way to offer a divine peach.

I talked briefly with another goddess on my way back.

I was late, which amounted to a crime to the King of Heaven.

He expelled me to the world of humans. I was at a loss where to go.

Lao-tzu, a goddess, Buddha, and saints recommended that I go to you.

So I am here. Please accept me."

The goddess runs into Mrs. Gwak's bosom. Mrs. Gwak is petrified and wakes up from the dream.

4. (심청 출생) 곽씨부인이 태기가 있어 열 달 동안 조심하며 지내다가 딸을 낳는다.

[아니리] 양주¹⁸⁴ 몽사¹⁸⁵ 의논허니 꿈이 꼭 같은지라,
그 달부터 태기¹⁸⁶가 있는디,
[중중모리] 석부정부좌,¹⁸⁷ 할부정불식,¹⁸⁸ 이불청음성¹⁸⁹ 목불시악
색¹⁹⁰ 입불중문¹⁹¹ 좌불중석,¹⁹²
십삭일¹⁹³이 찬 연후¹⁹⁴에 하루는 해복¹⁹⁵ 기미가 있는디,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심봉사 거동 보소. 일변은¹⁹⁶ 반갑고, 일변은 겁을 내어,
밖으로 우루루 나가더니, 짚 한 줌 쪽쪽¹⁹⁷ 추려¹⁹⁸
정화수¹⁹⁹ 새 소반²⁰⁰에 받쳐놓고,
좌불안석²⁰¹ 급한 마음 순산²⁰²허기를 기다릴 제,
향취²⁰³가 진동허고, 채운²⁰⁴이 두르더니,
혼미중²⁰⁵에 탄생허니, 선인옥녀²⁰⁶ 딸이라.

5. (남녀 확인) 심봉사가 아이를 더듬어 보고 딸인 것을 확인하자, 곽씨부인이 섭섭해 한다.

[아니리] 곽씨부인 정신차려 아이를 가려 놓고 보니 딸을 낳았구나.
곽씨부인 서운하여,
[창조] “만득²⁰⁷으로 낳은 자식 딸이라니 원통허오.”
[아니리] 심봉사 이 말 듣고 곽씨부인을 위로허는디,
“여보, 마누라, 그런 말 마오.

4. (The Birth of Sim Cheong) Mrs. Gwak gets pregnant. She takes good care of herself for ten months and gives birth to a daughter.

[Aniri] The husband and wife realize that they had the same dream.

From the month on, Mrs. Gwak shows the sign of pregnancy.

[Jungjungmori] Mrs. Gwak avoids bad seats, bad-looking food, obscene language, bad colors, the threshold of the door, and the middle seat.

One day after ten months passed, she shows the signs of labor. "My belly hurts! My waist hurts!"

Behold Mr. Sim. He is delighted on the one hand and scared on the other.

He runs out of the house. He picks a handful of straws.

They put pure water on a small dining table.

Mr. Sim is not at ease, and hopes that she has an easy birth.

Fragrance lingers, and clouds of diverse colors drift around.

In this faint atmosphere, a girl is born as beautiful as a goddess.

5. (Identification of the Girl) Mr. Sim touches the baby and learns that she is a girl. Mrs. Gwak is disappointed.

[Aniri] After recovering, Mrs. Gwak realized that she had a baby girl.

Mrs. Gwak is disappointed.

[Song Mode "To my chagrin, the child is a girl."

[Aniri] After hearing her, Mr. Sim consoles Mrs. Gwak.

"Honey, don't say that.

아들도 잘못 두면 육급선영²⁰⁸허는 것이고,
 딸이라도 잘못 두면 못난 아들 주고 바꾸리까?
 우리 이 딸 고이 길러,
 예의범절²⁰⁹ 잘 가르치고, 침선²¹⁰ 방적²¹¹ 잘 시켜,
 요조숙녀²¹² 좋은 배필 군자호구²¹³ 가려
 부귀다남²¹⁴허고 보면, 외손봉사²¹⁵는 못 하오리까?
 그런 말 마오.” 심봉사 좋아라고,
 첫국밥²¹⁶ 얼른 지어 삼신상²¹⁷에 받쳐놓고 비는데,
 이런 사람²¹⁸ 같거든²¹⁹ 오직 조용히 앉아 빌련마는,
 심봉사가 맹인이라 팩성²²⁰이 있어,
 삼신²²¹ 제왕님네²²²가 깜짝 놀래 삼천리²²³나 도망가게 비는디,

6. (삼신 축원) 심봉사가 삼신님께 딸의 복을 빈다.

[자진모리] “삼십삼천²²⁴ 도솔천²²⁵ 신불제석²²⁶ 삼신 제왕님네,
 화위동심²²⁷하여 다 굽어보옵소서.

[중중모리] 사십 후에 낳은 자식 한 달 두 달 이슬 맺어,²²⁸
 석 달에 피 어리고,²²⁹ 녁 달에 인형²³⁰ 삼겨,²³¹
 다섯 달 오포²³² 낳고,²³³ 여섯 달에 육경²³⁴ 삼겨,
 일곱 달에 칠규²³⁵ 열려, 여덟 달에 사만팔천 털이 나고,
 아홉 달에 구규²³⁶ 열려, 열 달만에 찬 짐 받아,²³⁷
 금강문,²³⁸ 하달문²³⁹ 고이 열어서 순산하니,

A bad son can be a disgrace even to ancestors.
 A good daughter is better than a bad son.
 Let's raise this girl well.
 Let's teach her etiquette, needlework, and then weaving.
 Let's choose a successful man as her husband.
 If she lives happily, her sons may hold a ritual for us.
 So don't say that again." Mr. Sim is joyful.
 He cooks rice and soup for the gods and prays to them.
 A normal person would pray softly.
 But Mr. Sim, being blind, is petulant.
 He prays so loudly that the gods might be startled and run away
 from him.

6. (Pray to the God of Birth) Mr. Sim prays to the gods for the well-being of his daughter.

[Jajinmori] "All gods in all heavens!

Please form a union and listen to me!

[Jungjungmori] I had a child after forty. In the first and the second months, dewdrops got together.

In the third month, a lump of blood was created. In the fourth month, she acquired the shape of a human being.

In the fifth month, she obtained the five internal organs. In the sixth month, she came by all the six emotions.

In the seventh month, she got all the seven holes in her head.

In the eighth month, hair began to grow.

In the ninth month, all the nine holes opened. In the tenth month, she received a cold energy.

The firm door was open beautifully. It was an easy birth.

삼신님 넓으신 덕택 백골난망²⁴⁰ 잊으리까?
 다만 독녀²⁴¹ 딸이오나, 동방삭²⁴²의 명을 주고
 태임²⁴³의 덕행이며, 대순²⁴⁴ 증자²⁴⁵ 효행이며,
 기량의 처²⁴⁶ 절행이며, 반희²⁴⁷의 재질²⁴⁸이며,
 축부단²⁴⁹의 복을 주어 외 분듯²⁵⁰ 달 분듯²⁵¹ 잔병²⁵² 없이 잘 지라나
 일취월장²⁵³허게 허옵소서.”

7. (곽씨부인 유언) 산후별증이 나서 죽게 될 줄을 안 곽씨 부인이 유언을 한다.

[아니리] 빌기를 다한 후 더운 국밥²⁵⁴ 다시 떠다 산모를 먹인 후에
 이삼일이 지났던가 보더라.

“여보 마누라, 이 애 젖 좀 먹여 보요.”

[창조] 그때여²⁵⁵ 곽씨부인, 산후²⁵⁶ 손대²⁵⁷ 없어,
 찬물에 손을 대 빨래를 허였더니, 뜻밖에 산후별증²⁵⁸이 일어나는디,
 전신을 꿈쩍달짝 못허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사대삭신²⁵⁹ 육천 마디가 아니 아픈 데가 전혀 없네.”

[아니리] 곽씨부인 생각허니, 아무리 허여도 살 길이 전혀 없는지라.

[진양조] 가군²⁶⁰의 손길 잡고 유언허고 죽드니라.

“아이고, 여보, 가군님,²⁶¹

내 평생 먹은 마음, 앞 못 보는 가장님을 해로백년²⁶² 봉양타가,
 불행 망세²⁶³ 당하오면 초종장사²⁶⁴ 마친 후에 뒤를 쫓아 죽잖더
 니,²⁶⁵

I am eternally grateful to the God of Birth for her virtuous work.
She is an only child. Please help her to live long.
May she be a good wife! May she be a good child!
May she be virtuous! May she be intelligent!
May she be fortunate! May she grow up well without being sick!
May she progress everyday!"

7. (Mrs. Gwak's Last Words) Mrs. Gwak says her last words, knowing that she will die of a childbirth complication.

[Aniri] After praying, Mr. Sim gives the rice and the soup to Mrs. Gwak again.

Several days have passed.

"Honey, give milk to this baby."

[Song Mode] There is nobody to serve Mrs. Gwak after childbirth.

While washing clothes in cold water, she suddenly has a childbirth complication.

She cannot move his body at all.

"My head aches! My waist hurts! My legs hurt!

All of her muscles and joints ache."

[Aniri] Mrs. Gwak realizes that she won't live much longer.

[Jinyangjo] Mrs. Gwak holds her husband's hands and says her last words.

"Oh, my darling!

I was determined to take good care of my blind husband until he dies.

If you die, I wanted to follow you after I finish the funeral service.

천명²⁶⁶⁾이 이뿐인가, 인연이 끊쳤는지²⁶⁷⁾
 하릴없이²⁶⁸⁾ 죽게 되니, 눈을 어이 감고 가며,
 앞 어두운 우리 가장 험 옷 뉘랴²⁶⁹⁾ 지어주며,
 조석공대²⁷⁰⁾ 뉘랴 허리?
 사고무친²⁷¹⁾ 혈혈단신²⁷²⁾ 의탁²⁷³⁾할 곳 바이없어,²⁷⁴⁾
 지팽막대²⁷⁵⁾를 홀어 짚고²⁷⁶⁾ 더듬더듬 다니시다,
 굴형²⁷⁷⁾에도 떨어지고, 돌에 채여 넘어져서
 신세자탄²⁷⁸⁾ 우는 모양²⁷⁹⁾ 내 눈으로 본 듯하고,
 기한²⁸⁰⁾을 못 이기어 가가문전²⁸¹⁾ 다다르며,
 ‘밥 좀 주오.’ 슬픈 소리 귀에 쟁쟁 들리난 듯,
 나 죽은 혼백²⁸²⁾인들 차마 어찌 듣고 보리?
 명산대찰²⁸³⁾ 신공²⁸⁴⁾ 들어
 사십 이후 남은 자식, 젓 한 번도 못 먹이고,
 얼굴도 채 모르고, 이 지경이 웬 일이고?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멀고먼 황천길을 눈물 겨워 어이 가며, 앞이 막혀 어이 가리?
 여보시오, 가군님. 뒷마을 귀덕어미 절친하게 지냈으니,
 이 자식을 안고 가서 젓 좀 먹여 달라하면, 팔시²⁸⁵⁾ 아니 허오리다.
 저 자식이 죽지 않고 제 발로 건너들랑,²⁸⁶⁾ 앞세우고 길을 물어, 내
 무덤 앞을 찾아오겨,²⁸⁷⁾
 ‘악아, 이 무덤이 너의 모친 분묘²⁸⁸⁾로다.’
 가르쳐 모녀상면²⁸⁹⁾을 하게 허오.
 혈 말이 장차 무궁²⁹⁰⁾허나,
 숨이 가빠서²⁹¹⁾ 못 하겠소.”
[중모레] “아차 아차, 내 잊었소,
 저 아이 이름일랑 청이라고 불러주오.

But my life stops here. Our relationship ends here.
 I can't help from dying. How can I close my eyes on you?
 Who would make old clothes for my blind husband?
 Who would serve you with meals?
 You have no relative and nobody to turn to.
 You will travel around unsteadily with the help of cane.
 You will fall into a pit. You will fall over because of a stone.
 I can see you cry and lament over your fate.
 You will beg around to overcome hunger and the cold.
 'Please give me some food. I feel like I hear your plaintive voice.
 It will be hard for my soul to watch you.
 I prayed in buddhist temples on famous mountains.
 I had a child after forty. I didn't even give her the milk.
 I can't believe I am dying without even seeing her face.
 Many things occur in my mind.
 Tears prevent me from going to the distant world of the dead.
 My dear husband! I got along with Mrs. Gwideok in the
 neighboring village.
 She would not decline if you ask her to give some milk to this
 baby.
 If this child survives and walks on her own, please visit my tomb
 with her.
 'Dear, this is the tomb of your mom.
 Let the mother and the daughter see each other.
 I have many things to say.
 But I feel short of breath."
[Jungmori] "Oh, there is one thing I forgot.
 Please call this child Cheong.

저 주라²⁹²) 지은 굴레,²⁹³) 오색 비단 금자²⁹⁴) 박어,
 진옥판²⁹⁵) 홍사²⁹⁶) 수실²⁹⁷)
 진주 느림²⁹⁸) 부전²⁹⁹) 달아
 신행함³⁰⁰)에 넣었으니, 그것도 씌워주고,
 나라에서 하사하신³⁰¹) 크나큰 은돈 한 푼,
 수복강녕³⁰²) 태평안락³⁰³) 양편에³⁰⁴) 새겼기로,
 고운 홍전³⁰⁵) 괴불줄치³⁰⁶) 끈을 달아 두었으니, 그것도 채워주고,
 나 찌던³⁰⁷) 옥지환³⁰⁸)이 손에 적어 못 찌기로
 농 안에 두었으니, 그것도 끼워주오.”
 한숨 쉬고 돌아누워, 어린 아이를 끌어다 낫을 대고 문지르며,
 “아이고, 내 새끼야. 천지도 무심하고, 귀신도 야속하다.
 네가 진즉³⁰⁹) 삼기거나,³¹⁰) 내가 조금³¹¹) 더 살거나.
 너 낳자 나 죽으니,
 가이없는³¹²) 궁천지통³¹³)을 널로³¹⁴) 하여 품게 되니,
 죽난³¹⁵) 어미 산 자식이 생사간에³¹⁶) 무삼³¹⁷) 죄냐?
 내 젓 망종³¹⁸) 많이 먹어라. 쫓쫓쫓, 내 자식아.”
 손길을 스르르 놓고,
 한숨 겨워³¹⁹) 부는 바람 삼삼비풍³²⁰) 되어 불고,
 눈물 맺어 오는 비는 소소세우³²¹)가 되었어라.
 폭각질³²²) 두세 번에 숨이 덜컹³²³) 지는구나.

8. (곽씨부인 죽음) 심봉사가 곽씨부인이 죽은 것을 알고 통곡한다.

[아니레 그 때에 심봉사는 아무런 줄 모르고,
 “여보, 마누라!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으리까?

I made a hat for her with the colorful silk. A golden letter is embroidered on it.
A jade plate with a red silky thread is on it.
A pearl ornament hangs on it.
It is in a marriage box. Please put the hat on her.
I was once awarded a silver coin from the government.
On both sides are figures representing longevity, health, peace, and happiness.
I made a bag with red woolen cloth to carry the coin in. Please put the bag on her.
The jade ring I used to wear became small for me.
I kept it in the wardrobe. Please put the ring on her too.”
Mrs. Gwak sighs and turns over. She hugs her baby and rubs her face.
“Oh my baby. Heaven is cruel to us. Gods are heartless to us. You should have been born earlier. Or I should live longer. I die right after you are born.
So our limitless sorrow rises up to heaven because of you. The dying mother and the living child are pitiful.
Eat my last milk as much as you can. Alas! My baby!”
She slowly releases her baby.
A wind mourning her death becomes a plaintive wind.
A tearful rain becomes a drizzling rain.
After a few hiccups, she does not breathe anymore.

8. (The Death of Mrs. Gwak) Mr. Sim bewails, after realizing that his wife has died.

[Aniri] Meanwhile, Mr. Sim does not know anything.
“My sweetheart! Not all sick people die.

내 의가³²⁴⁾에 가 약 지어 올 테니 부디 안심하오.”
 심봉사 급한 마음 의가에 빨리 가 약을 지어 돌아와,
 수일승전반복³²⁵⁾에 얼른 달여 짜 들고 방으로 들어와,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 자시오.³²⁶⁾
 이 약 자시면 곧 즉효³²⁷⁾한다 험디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답할 리가 있겠느냐?
 ‘허허, 식음³²⁸⁾을 전폐터니³²⁹⁾
 기혀³³⁰⁾허여 이리는가?’
 양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 만져보니, 허리는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궁기³³¹⁾ 찬 짐³³²⁾ 나니,
 그제야 죽은 줄 알고 심봉사가 미치는데,
 설움이라 하는 것이 어지간해야 울음도 나오고 눈물도 나지,
 설움이 아람³³³⁾에 딱 차놓으면³³⁴⁾ 울도³³⁵⁾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
 었다.
[중중모레] 심봉사 기가막혀, 뗐다 절컹³³⁶⁾ 주저앉으며,
 들었던 약 그릇을 방바닥에다 매다치고,³³⁷⁾
 “아이고, 마누라! 이것이 웬 일이어? 허허!
 약 지으러 갔다오니, 그 새에³³⁸⁾ 죽었네.
 병불능살인³³⁹⁾이요, 약능활인³⁴⁰⁾이라더니,
 약이 도리어 원수로다.
 죽을 줄 알았으면, 약 지러도³⁴¹⁾ 가지 말고,
 마누라 곁에 있어, 서천서역³⁴²⁾ 연화세계³⁴³⁾ 환생차로³⁴⁴⁾ 진언³⁴⁵⁾
 외고, 염불이나 허여 줄 걸.
 절통허고 분허여라.” 가삼³⁴⁶⁾ 광광 두다려,³⁴⁷⁾
 목제비질³⁴⁸⁾을 덜컹, 내리궁굴³⁴⁹⁾ 치궁굴³⁵⁰⁾며,

I will go and get medicine from a doctor. You will be all right.”
Mr. Sim hurriedly goes to a pharmacy and comes back with medicine.

He boils the medicine quickly and comes into the room.

“Honey, sit up and take this medicine.

It will have an immediate effect.”

No matter how hard he calls, she doesn’t answer.

‘Dear, you did not eat or drink at all.

Are you silent because you are weak?’

He touches her to sit her up with his two arms. Her waist is stiff. Her limbs are loose.

There is no breath in her nostrils.

He now realizes that she is dead. He goes crazy.

A moderate sorrow would produce cries and tears.

Too much sorrow would make a person not cry but go wild and crazy.

[Jungjungmori] Mr. Sim, dumfounded, jumps up, and slumps down.

He throws the medicine dish on the floor.

“Alas! Darling!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You died while I was away for medicine.

They say that illness can’t kill a person, and medicine can save a person.

But medicine is my enemy.

If I had known you were dying, I should not have gone for the medicine.

I should have stayed with you and prayed that you are reborn in heaven.

I feel sad and angry.” He hits his chest hard with his fists.

His head falls down fast as if his neck were broken. He tumbles over up and down.

“아이고 마누라! 저걸 두고 죽단 말이오?
 동지 선달 설한풍³⁵¹)에 무얼 입혀 길러내며,
 뉘 젖 먹여 길러낼꺼나?
 꽃도 졌다 다시 피고, 해도 졌다 돌건마는,
 마누라 한번 가면, 어느 년 어느 때 어느 시절에 오려나?
 삼천벽도³⁵²) 요지연³⁵³)의 서왕모³⁵⁴)를 따라가?
 황룡묘³⁵⁵) 이비³⁵⁶)한테 회포말³⁵⁷)을 하러 가?
 천상의³⁵⁸) 죄를 짓고, 공을 닦으리³⁵⁹) 올라가?
 나는 뉘를 따라 갈꺼나?”
 밖으로 우루루 나가더니 마당에 엎드려져,³⁶⁰)
 “아이고, 동네 사람들! 차소위³⁶¹) 계집 추는³⁶²) 놈은 미친 놈이라 허
 었으나,
 현철³⁶³)허고 얹전한 우리 곽씨가 죽었소!”
 방으로 더듬 더듬 더듬더듬 들어와,
 마누라 목을 덜컹³⁶⁴) 안고, 낫을 대고 문지르며,
 “아이고, 마누라! 재담³⁶⁵)으로 이러나? 농담으로 이러나?
 내 신세를 어찌라고, 이 지경이 웬 일이여?”

9. (상여소리) 동네사람들이 곽씨부인의 상여소리를 하며 상여를 메고 나간다.

[아니래 곽씨부인 어진 마음
 동리 남녀노소 모아들어 초·종제례³⁶⁶)를 바치는데,
 곽씨 시체 소방상³⁶⁷) 대뜰³⁶⁸) 위에 덩그렇게³⁶⁹) 모셔놓고
 명정,³⁷⁰) 공포³⁷¹) 삼선³⁷²) 등물³⁷³) 좌우로 갈라 세우고
 운상³⁷⁴)을 하여 가는데,

“My dear! How can you die on the baby?
 What should I put on her in cold winter?
 Whose milk should I give to her?
 A flower falls down and comes back. The sun sets and rises
 back.
 But if my wife goes now, when can she come back?
 Did she go to the goddess having a peach party near a legendary
 pond?
 Did she go to the two ancient queens to tell her deep story?
 Did she go to heaven to repay her wrongdoing?
 Whom should I follow?”
 He goes out and falls over on the yard.
 “Hey, villagers! A man praising his wife is said to be crazy.
 But my wise and courteous wife has died!”
 He grope his way into the room.
 He hugs her neck swiftly and rubs her cheek with his.
 “Oh my dear! Is this a witty remark or a joke?
 What will become of my life? I can’t believe you died.”

9. (The Bier Song) Villagers sing the bier song as they carry Mrs. Gwak’s bier forward.

[Aniri] Mrs. Gwak was virtuous.
 So villagers come and prepare for a funeral.
 Mrs. Gwak’s body is in a small coffin in front of the room.
 A banner with her name, a hemp towel, and planks are on the
 left and right.
 They carry the bier forward.

운상을 하여 가며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망노이가³⁷⁵라 하였으니, 상부소리³⁷⁶를 하고 나가졌다.
[중모리] 요령³⁷⁷은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땡그랑. “어념차 너화
 념.”³⁷⁸
 “북망산천³⁷⁹이 멀다더니, 저 건너 안산³⁸⁰이 북망이로다.”
 “어념차 너화념.”
 “현철허신 꺾씨부인 행실도 얹전허고,
 재질³⁸¹이 특수터니마는³⁸² 허망하게도 죽었네그려.”
 “어념차 너화념.”
 “춘초³⁸³는 연년록³⁸⁴이나 왕손³⁸⁵도 귀불귀³⁸⁶로구나.”
 “어념차 너화념.”
 “물가 가재는 뒷걸음질 치고,
 다람쥐 앉아서 밤을 줍는다,
 원산³⁸⁷ 호랑이 술주정을 허네그려.”
 “어념차 너화념.”
 “인경³⁸⁸ 치고 파루³⁸⁹를 치니,
 각 댁 하님³⁹⁰이 개문³⁹¹을 허네그려.”
 “어념차 너화념.”
 “새벽 중달이³⁹² 쉼길³⁹³ 떠,
 서천³⁹⁴의 명월³⁹⁵이 다 밝아온다.”
 “어념차 너화념. 어이 가리, 념차 너화념.”
 그때여 심봉사는 어린 아해³⁹⁶를 강보³⁹⁷에 싸
 귀덕어미게³⁹⁸ 맡겨두고,
 꼭 죽어도 굴관³⁹⁹ 제복⁴⁰⁰ 얻어 입고,
 상부⁴⁰¹ 뒷채⁴⁰²를 검쳐 잡고,⁴⁰³
 “아이고,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디 가요?

Would they sing a song while carrying the bier?
To forget the hard labor, they sing the bier song, moving forward.

[Jungmori] A bell rings: jingle, jingle, jingle, jingle. “Yo-ho! Yo-ho!”

“They say the mountain of the dead is far from here. But it is that mountain in front of us.”

“Yo-ho! Yo-ho!”

“Mrs. Gwak was wise and courteous.
She was well-talented, but she died to our dismay.”

“Yo-ho! Yo-ho!”

“Grass becomes green every spring. But even royal descendants can’t revive from death.”

“Yo-ho! Yo-ho!”

“A crayfish walks back into the water.
A squirrel picks up chestnuts.
A tiger on a distant mountain is drunken.”

“Yo-ho! Yo-ho!”

“A large bell rings, announcing a curfew.
A maid opens a gate in each house.”

“Yo-ho! Yo-ho!”

“A skylark flies high in the morning sky.
A bright moon rises in the west sky.”

“Yo-ho! Yo-ho! How can we go? Yo-ho! Yo-ho!”

Meanwhile, Mr. Sim wraps the baby with a small blanket.
He leaves her in the care of Mrs. Gwideok.
He wears a funeral uniform he borrowed.
He grabs the end of the bier.

“Oh my dear! Where are you going, leaving me behind?”

나하고 가세, 나하고 가세.

산첩첩노망망⁴⁰⁴)에 다리 아파 어이 가며,

일침침운명명⁴⁰⁵)에 주점⁴⁰⁶)이 없어서 어이를 가리?

부창부수⁴⁰⁷) 우리 정분⁴⁰⁸) 날과⁴⁰⁹) 함께 가사이다.”⁴¹⁰)

상여는 그대로 나가며, “어념차 너화념.”

[중중모리] “어너, 어너, 어이 가리, 녀차 너화념.”

“여보소, 친구네들, 자네가 죽어도 이 길이요,

내가 죽어도 이 길이로다.” “어념차 너화념.”

“현철 허신 곱씨 부인, 불쌍히도 떠나셨네.”

“어념차 너화념. 어너 어너 어너 어어으너어

어이 가리, 녀차 너화념.”

10. (평토제) 심봉사가 평토제 제문을 지어 읽는다.

[아니리] 산천에 올라가 깊이 파고 안장⁴¹¹)헌 연후

평토제⁴¹²)를 지낼 적에,

그때여 심봉사는 삼십 전⁴¹³) 안맹⁴¹⁴)이라

배운 것 있어, 그 전 글⁴¹⁵)이 문장이었다.

축문⁴¹⁶)을 지어 신세자탄으로 독축⁴¹⁷)을 하여 읽는다,

[축문] “차호 부인,⁴¹⁸) 차호 부인, 요차요조숙녀혜여.⁴¹⁹)

행불구혜고인이라.⁴²⁰) 기백년이해로⁴²¹)터니,

홀연몰혜언귀오?⁴²²)

유치자이영서혜여,⁴²³) 저결⁴²⁴) 어이 길러내며,

누산산이첨금혜여,⁴²⁵) 지난⁴²⁶) 눈물 피가 되고,

Let me go with you.
 We have a long journey over mountains. How will we go when
 our legs hurt?
 The sun sets, and the clouds become dark. How can we go
 when there is no inn?
 A wife is to follow her husband. Let's go together."
 The bier moves forward. "Yo-ho! Yo-ho!"
[Jungjungmori] "Oh, how can we go? Yo-ho! Yo-ho!"
 "Hello, friends! If you die, you go this way.
 If I die, I go this way too." "Yo-ho! Yo-ho!"
 "Mrs. Gwak, who was wise, died tragically."
 "Yo-ho! Yo-ho! Yo-ho! Yo-ho!"
 How can we go? Yo-ho! Yo-ho!"

10. (Burial Ritual) Mr. Sim composes and reads a burial ode.

[Aniri] They move up on a mountain. They dig the ground
 deeply and bury her.
 The burial ritual is held.
 Mr. Sim became blind before thirty.
 He is learned, so he is a good poet.
 He composes an ode and recites it, lamenting over his lot.
[Poetic mode] "Woe to me, my wife! You were a good wife.
 Your virtue is equal to that of ancient people. We promised to
 grow old together.
 You suddenly died. How can you come back?
 You left for good, leaving a child behind. I don't know how
 I will raise her.
 Tears scatter down, soaking my clothes. My falling tears become
 blood.

심경경이소훈혜여,⁴²⁷⁾ 살 길이 전혀 없네.”

11. (심봉사 통곡) 심봉사가 무덤 앞에서 통곡한다.

[진양조] “주과포혜⁴²⁸⁾ 박전이나⁴²⁹⁾

만사⁴³⁰⁾를 모다⁴³¹⁾ 잊고, 많이 먹고 돌아가오.”

무덤을 검쳐⁴³²⁾ 잡고,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날 버리고 어디를 갔소?

마누라는 나를 잊고, 북망산천⁴³³⁾ 들어가

송죽⁴³⁴⁾으로 울⁴³⁵⁾을 삼고,

두견⁴³⁶⁾이 벗이 되어 나를 잊고 누웠으나,

내 신세를 어이 허리?

노이무처환부라니⁴³⁷⁾ 사궁⁴³⁸⁾ 중에는 첫머리요,

아들 없고, 앞 못 보니, 몇 가지 궁이 되단 말가?”⁴³⁹⁾

무덤을 검쳐 안고, 내리둥굴 치둥굴며

함께 죽기로만 작정을 한다.

12. (심봉사가 우는 딸을 달랠) 집으로 돌아온 심봉사가 밤 새 우는 딸을 달래며 슬퍼한다.

[아니리] 동네 사람들이 만류하여,

“여보시오, 봉사님, 죽은 사람 따라가면 저 어린 자식은 어찌시랴오?

어서 어서 가옵시다.”

심봉사 하릴없이⁴⁴⁰⁾ 동인들⁴⁴¹⁾께 붙들리어 집으로 돌아올 제,

[중모레] 집이라고 돌아오니

I became insane due to ceaseless worries, I don't know how to live on."

11. (The Wail of Mr. Sim) Mr. Sim wails in front of the grave.

[Jinyangjo] "The food is not good, but forget all the troubles and help yourself, before you go back to heaven."

He hugs the tomb. "My wife! Where did you go?

You left me and entered the world of the dead.

For you, pines and bamboos are a fence.

A cuckoo is your friend. You lied down, having forgotten me.

What will become of my life?

I am old and don't have a wife. I have the first of the four miseries.

Besides, I don't have a son, and I am blind. How many miseries do I have?"

He hugs the tomb. He tumbles over, up and down.

He is determined to die.

12. (Mr. Sim Soothes his Crying Daughter) Mr. Sim back home laments while soothing his crying daughter all night.

[Aniri] The villagers calm Mr. Sim down.

"Hello, Mr. Sim! What would become of the little child if you follow the dead wife?

Let's go back home."

Mr. Sim is helped by the villagers back home.

[Jungmori] Mr. Sim is back home.

부엌은 적막하고, 방 안은 뿡 비었는디,
 심봉사 실성발광⁴⁴² 미치난디.⁴⁴³
 얼싸덜싸⁴⁴⁴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고,
 지팽막대⁴⁴⁵ 홀어 짚고⁴⁴⁶ 이웃집에 찾아가서,
 “여보시오, 부인네들. 혹 우리 마누라 여기 안 왔소?”
 아무리 부르고 다녀를 봐도 종적⁴⁴⁷이 바이없네.⁴⁴⁸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을 굽어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
 방으로 들어와서 쑥내 향내 피워놓고 통곡으로 울음 울 제,
 어린 아이는 기진⁴⁴⁹하야 ‘응아, 응아’ 울음을 우니,
 심봉사 기가맥혀 우는 아이를 안고 앓어,
 “우지⁴⁵⁰ 마라. 우지를 마라. 너의 모친은 먼 데 갔다.
 낙양동촌⁴⁵¹ 이화정의 숙낭자⁴⁵²를 보러 갔다.
 죽상지루⁴⁵³ 오신 혼백 이비⁴⁵⁴ 부인 보러 갔다.
 가는 날은 안다마는, 오마는⁴⁵⁵ 날은 모르겠다.
 우지 마라. 우지를 마라.
 너도 너의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울음을 우느냐?
 강목수생⁴⁵⁶이로구나. 내가 젖을 두고도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심봉사 화가 나서 안았던 아해⁴⁵⁷를 방바닥에다 메다치며,⁴⁵⁸
 “죽어라! 썩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네가 초칠⁴⁵⁹ 안에 에미를 잡아먹어야,⁴⁶⁰
 에이?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도로 안고 앓어, “악아, 우지 마라.
 어서 어서 날이 새면 젖을 얻어 먹여 주마.
 우지 마라, 내 새끼야.”

The kitchen is quiet. The room is empty.
 He goes wild and crazy.
 He dances and laughs as if he were out of his mind.
 Mr. Sim goes to the neighboring house with the help of his cane.
 "Hello, lady! Is my wife here?"
 He calls out to his wife, but there is not a trace of her.
 He comes back home, and looks at the kitchen. "Honey! My wife!"
 He comes back into the room and turns on the mugwort incense. He bewails loudly.
 Exhausted, the baby cries.
 Mr. Sim is dumbstruck and holds the crying baby in his arms.
 "Don't cry! Don't cry! You mother went away.
 She went to see an ancient virtuous woman.
 She went to see the souls of two famous ancient queens.
 I know the day of going, but I have no idea about the day of coming back.
 Don't cry! Don't cry!
 Are you crying because you know your mother died?
 Are you crying because you are hungry?
 Water doesn't come out of a dry tree. Am I holding milk back from you?"
 The baby only responds with cries.
 Mr. Sim gets angry and pushes the baby on the floor.
 "Die! Die quickly!
 How good your fate is to kill your mom seven days after birth!
 If you die, I will die too. If I die, you can't live."
 He sits holding the baby again in his arms. "Honey, don't cry.
 If the day breaks, I will beg some milk for you.
 Don't cry, my little girl."

13. (젓동냥) 날이 밝자 심봉사가 우물가에 가서 젓을 얻어 먹인 후, 좋아한다.

[중중모리] 우물가 두레박⁴⁶¹ 소리 얼른 듣고 나설 적에,
한 편에 아이를 안고, 한 손에 지팡이 홀어 짚고,⁴⁶²
더듬더듬 더듬더듬 우물가 당도하여, “여보시오, 부인네들.
인사⁴⁶³는 아니오나,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초칠⁴⁶⁴ 안에 어미 잃고 기허⁴⁶⁵허여 죽게 되니,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우물가 오신 부인, 철석⁴⁶⁶인들 아니 주며, 도척⁴⁶⁷인들 아니 주랴?
젓을 많이 먹여 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도 아해⁴⁶⁸가 있고, 저 집에도 아해가 있으니,
어려워⁴⁶⁹ 생각 말고 자주자주 다니시면,
내 자식 못 먹인들 차마 그 애를 굶기리까?”
심봉사 좋아라고, “허허 고맙소. 수복강녕허옵소서.”⁴⁷⁰
이집 저집을 다닐 적에,
삼배 길쌈 허노라고 ‘히히 하하’ 웃음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
“여보시오, 부인네들, 인사는 아니오나,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오늘월 피약별⁴⁷¹에 김매고 쉬는 곳도 허유허유 찾아가,
“이 애 젓 좀 먹여주오.”
백석청탄⁴⁷² 시냇가에 빨래하는 부인들께 더듬더듬 찾아가,

13. (Begging Milk) After the day breaks, Mr. Sim is delighted, getting milk from women around a well.

[Jungjungmori] Mr. Sim goes out quickly after hearing bucket sounds from the well.

He holds the baby with one hand and a cane loosely with the other hand.

He manages to get to a well. "Hello ladies!

It's rude, but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This baby lost her mom seven days after she was born. She is hungry and weak.

Please give her some milk."

The women around the well would give milk, even if they were a stone or a burglar.

They give a lot of milk. "Hello, Mr. Sim." "Yes."

"This family has a baby. That family has a baby too.

Go and ask for milk often without hesitation.

Their babies might go hungry. But would they let your baby go hungry?"

Mr. Sim is delighted. "Thank you. May you be happy and live long!"

He visits this and that house.

He hears the laughs of women weaving ramie and goes quickly to them.

"Hello, ladies. I know it's rude, but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He manages to find the women resting after removing weeds in the scorching sunshine.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He finds his way to the women washing clothes in the beautiful stream.

“이 애 젓 좀 먹여 주오.”

젓 있는 부인들은 젓을 많이 먹여 주고,

젓 없는 부인들은 돈 돈씩⁴⁷³⁾ 채워주고,

돈 없난 부인들은 쌀 되씩⁴⁷⁴⁾ 떠주며,

“맘쌀⁴⁷⁵⁾이나 허여주오.”

심봉사 좋아라고, “허허, 고맙소. 수복강녕허옵소서.”

젓을 많이 얻어 먹여 안고 집으로 돌아올 제,

어덕⁴⁷⁶⁾ 밑에 쭈그려 앉어 아이를 어른다.⁴⁷⁷⁾

“악아, 내 딸이야. 악아 악아, 내 딸이야.

아이고, 내 새끼 배 불렀다. 배가 예상⁴⁷⁸⁾ 뽕뽕허다.

이 덕이 뉘 덕이나? 동네 부인의 덕이라.

어허 둥둥 내 딸이야. 어려서 고생을 하면 부귀다남⁴⁷⁹⁾을 현다더라.

너도 어서어서 자라나 너의 모친을 닮아 현철허고 암전허여,

아비 귀염⁴⁸⁰⁾을 보여라.

백미 닷섬에 뉘 하나,⁴⁸¹⁾ 열 소경 한 막대⁴⁸²⁾로다. 둥둥둥, 내 딸이야.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 준들 너를 사랴?

어덕 밑에 귀남이⁴⁸³⁾ 아니냐?

설설⁴⁸⁴⁾ 기어라, 어허 둥둥, 내 딸.”

[자진모레]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금자동⁴⁸⁵⁾이나, 옥자동?⁴⁸⁶⁾ 주유천하무쌍동.⁴⁸⁷⁾

은하수 직녀성이 내가 되어서 환생?

달 가운데 옥토끼,⁴⁸⁸⁾ 땡기 끝에 준주시,⁴⁸⁹⁾

웃고름에는 밀화불수.⁴⁹⁰⁾

쥐얹쥐얹,⁴⁹¹⁾ 잘깡잘깡⁴⁹²⁾ 엄마 아빠 도리도리⁴⁹³⁾

“Please give this baby some milk.”

Women having milk give a lot of milk.

Women having no milk would give money.

Women having no money would give some rice.

“Make rice soup for the baby.”

Mr. Sim is happy. “Thank you. May you be happy and live long!”

After feeding the baby a lot, he comes back home holding his baby.

He sits down in front of his poor house and dandles the baby.

“Baby, you are my daughter. You are my lovely daughter!

Good! My baby is full. Your belly is tight.

To whom do we owe this? We owe this to the ladies in this village.

Oh, my lovely daughter. Painful childhood bears future success.

Please grow up quickly. Like your mom, please be wise, intelligent, and graceful.

Your father will love you.

You are more precious than gold. Oh, my daughter.

Would I be able to buy you with gold or jade?

Aren't you my precious child?

Crawl, baby! Oh, my lovely daughter.”

[Jajinmori] “Oh, my lovely daughter. ”Oh, my lovely daughter. You are gold. You are a piece of jade. You are more precious than any other child in the world.

Was Vega in the Milky Way reborn into you?

You are the cute hare on the moon. You are a pearl at the end of a pigtail ribbon.

You are a jewel on the coat string.

Fold and unfold your fingers! Go to sleep! Say mom and daddy! Shake your head!

어허 둥둥 내 딸!

서울 가, 서울 가 밤 하나 얻어다

두레박⁴⁹⁴ 속에 넣었더니,

머리 까만 새앙쥐가 들랑달랑⁴⁹⁵

다 까먹고 다만 한 쪽이 남았기로,

한 쪽은 내가 먹고, 또 한 쪽 너를 주마.

어르르르⁴⁹⁶ 둥둥 허둥둥, 어허 둥둥, 내 딸이야.”

14. (심봉사 동냥) 심봉사가 동냥으로 심청을 기른다.

[아니레] 아해 안고 돌아와 포단⁴⁹⁷ 덮어 뉘어놓고, 동냥차로⁴⁹⁸ 나기는데,
[중중모레] 삼베 전대⁴⁹⁹ 외동지어⁵⁰⁰ 윈 어깨 드러메고⁵⁰¹ 동냥차로
나간다.

여름에는 보리 동냥, 가을이면 나락⁵⁰² 동냥,

어린 아이 맘죽차로⁵⁰³ 쌀 얻고 감을 사 허유허유⁵⁰⁴ 다닐 적에,
그 때여 심청이는 하늘이 도움이라 일취월장⁵⁰⁵ 자라날 제, 십여 세
가 되어가니,

모친의 기제사⁵⁰⁶를 아니 잊고 혈 줄 알고,

부친의 공양사⁵⁰⁷를 의법이⁵⁰⁸ 허여 가니, 무정세월⁵⁰⁹이 이 아니냐?

15. (심청 부친 봉양) 하루는 심청이 아버지께 자신이 밥을 빌어 공양을 하겠다고 말한다.

[아니레] 심청이 하루는 부친전 단정히 꿇어 앉어, “아버지.”

Oh, my lovely daughter!
I've got a handful of chestnuts from Seoul.
I kept them in a gourd bucket.
A mouse with a black head came in and went out.
It ate all of the chestnuts except one.
I will eat the first half. I will give you the second half.
Look at me, baby. Oh, my lovely daughter."

14. (Mr. Sim's Begging) Mr. Sim raises Sim Cheong by begging around.

[Aniri] Mr. Sim comes back with the baby in his arms. He lays the baby and covers her with a small blanket. He goes out to beg.
[Jungjungmori] Mr. Sim carries a ramie bag on his left shoulder. He goes out to beg.
In summer he begs for barley. In fall he begs for rice.
He visits many places, getting rice and buying persimmons to make rice soup for the baby.
Sim Cheong grows up fast with the help of heaven. She becomes above ten.
She holds rituals for her mother without forgetting it.
She serves her father with meals properly. Time goes fast.

15. (Sim Cheong Supports Her Father) One day Sim Cheong says to her father that she wants to support him by begging.

[Aniri] One day Sim Cheong kneels down in front of her father in a solemn manner. "Father"

[창조] “오날부터는 아무데도 가지지 마옵시고 집에 가만히 앉어 계시오면,

[아니레]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조석공양⁵¹⁰ 하겠내다.”⁵¹¹

심봉사 이 말 듣고, “애, 청아,

내 아무리 곤궁⁵¹²헌들, 무남독녀⁵¹³ 너 하나를 밥을 빈단 말이 될 말이나?

아서라,⁵¹⁴ 그런 말 하지 말어.”

[중모레] “아버지, 듣조시오.”⁵¹⁵

자로⁵¹⁶난 현인⁵¹⁷으로 백리를 부미허고,⁵¹⁸

순우의⁵¹⁹ 딸 제영⁵²⁰이는 낙양⁵²¹ 옥에 갇힌 아비⁵²² 몸을 팔아 속죄⁵²³허고,

말 못허는 가마귀도 공림⁵²⁴ 저문 날에 반포은⁵²⁵을 혈 줄 아니, 하물며 사람이야 미물⁵²⁶만 못허리까? 그런 말씀 마옵소서.”

[아니레] 심봉사 이 말 듣고, “애, 청아, 너 이제 허는 말 어디서 다 배워가지고 왔느냐?

너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배워가지고 나왔느냐, 에이?

그래, 네 성의⁵²⁷가 그럴진대 얼른 근처에 가 한 두어 집만 다녀오너라.”

16. (심청 결식) 심청이 밥을 빌어 아버지를 봉양한다.

[중모레] 심청이 그날부터 밥 빌러 나갈 적에, 심청이 거동 보아라.

헌 배 중우⁵²⁸ 대님⁵²⁹ 매고, 말⁵³⁰만 남은 헌 초마⁵³¹에

깃⁵³² 없는 헌 저고리, 목만⁵³³ 남은 길보신⁵³⁴에

[Song Mode] “From today on, stay at home without going anywhere,

[Aniri] I will go out, beg for food, and serve meals to you.”

Mr. Sim responds, “Look, Cheong,

No matter how poor I am, how would I let you, my only child, beg for food?

It’s out of the question. Please don’t ask me again.”

[Jungmori] “Please hear me out, father.

A virtuous student of Confucius carried a rice bag for a hundred mile to feed his father.

A daughter in ancient times became a slave for the government to amend for his father’s crime.

Even a speechless crow feeds its old parents.

How can a human being be worse than an animal? Don’t say that, father.”

[Aniri] Mr. Sim responds, “Look, Cheong! Where did you learn those scholarly words?”

Have you learned all of them in your mother’s womb?

I see. If you insist, travel only to a couple of houses near here.”

16. (Sim Cheong’s Begging) Sim Cheong supports her father by begging for food.

[Jungmori] Sim Cheong goes out to beg for food from that day. Behold her!

She wears old hemp trousers tied by ankle bands. Only the top of her old skirt remains.

The old jacket doesn’t have a collar. Only the top part of her socks remains.

청목⁵³⁵) 휘양⁵³⁶) 눌러 쓰고, 바가치⁵³⁷) 옆에 끼고,
 바람 맞은 병신처럼 옆걸음쳐 나갈 적에,
 원산⁵³⁸)에 해 비치고, 건넌 마을 연기 일 제,
 추적추적⁵³⁹) 건너가 부엌 문전 당도하여,
 애궁히⁵⁴⁰) 비는 말이,
 “우리 모친 나를 낳고 초칠⁵⁴¹) 안에 죽은 후에,
 앞 못 보신 늙은 아버지 나를 안고 다니시며 동냥젓 얻어 먹여
 요만큼이나 자랐기로 밥을 빌러 왔사오니,
 한 술씩 덜 잡수고 십시일반⁵⁴²) 주옵시면,
 치운⁵⁴³) 방 우리 부친 구환을 허겼내다.”⁵⁴⁴)
 듣고 보는 부인들이 뉘 아니 칭찬허리!
 그릇밥,⁵⁴⁵) 김치, 장⁵⁴⁶)을 아끼잖고 후히⁵⁴⁷) 주며, 혹은 먹고 가라
 하니,
 심청이 허는 말이, “치운 방 우리 부친 저 오기만 기다리니,⁵⁴⁸)
 저 혼자만 먹사리카?⁵⁴⁹) 부친전에⁵⁵⁰) 먹겼내다.”
 한두 집이 죽한지라.⁵⁵¹)
 밥 빌어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올 제, 심청이 허는 말이,
 “아까 내가 나올 제는⁵⁵²) 원산⁵⁵³)에 해가 아니 비쳤더니,
 벌써 해가 둥실 떠, 그 새 반일⁵⁵⁴)이 되었구나.”
[자진모래]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며,
 “아버지. 출근들 오죽허며, 시장킨들⁵⁵⁵) 안 허리카?
 더운 국밥 잡수시오. 이것은 흰 밥이요, 저것은 팔밥이요.
 미역튀각,⁵⁵⁶) 갈치, 자반,⁵⁵⁷)
 어머님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드리라 허기로 가지고 왔사오니,
 시장참게 잡수시오.”

She jams a blue cotton headgear on. She carries a bucket on her flank.

She goes out, walking on the side as if she were crippled. The sun shines on the distant mountain. Smoke rises up from a neighboring village.

Walking wretchedly, she arrives in front of a kitchen.

She begs in a pathetic voice.

“My mom died seven days after she gave birth to me. My blind old father held me in his arms and begged around for milk.

I grew up this much. I am here to beg for food.

Please eat a little less and give me some food.

Then, I can save my father in the cold room.”

After hearing her, ladies praise her.

They generously give her a bowl of rice, kimchi, and sauces.

Some ask her to eat with them.

Sim Cheong says, “My father looks forward to me in the cold room.

How can I eat here? I will eat with my father.”

She gets enough food from a couple of houses.

She speaks to herself, as she comes back home with food on her hands.

“When I left home, the sun was not on the distant mountain.

The sun is already in the sky. Half of the day is already gone.”

[Jajinmori] Sim Cheong comes in. She goes through the gate.

“Father, you must be cold and hungry here.

I’ve got a hot soup for you. This is white rice. That is rice mixed with red bean.

This is seaweed. This is a hairtail.

A friend of mom gave me this food to bring to you.

Please help yourself.”

심봉사 기가 막혀, 딸의 손을 끌어다 입에 넣고 후후 불며,
“아이고, 내 딸 찹다.⁵⁵⁸⁾ 불 쪼어라.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네가 이 지경이 웬 일이나?”

17. (시비 따라) 무릉촌 장승상택 부인이 심청을 부르자, 심청이 시비를 따라 건너간다.

[아니래 세월이 여류허여⁵⁵⁹⁾ 심청의 나이 벌써 십오 세가 되었구나.
효행⁵⁶⁰⁾이 출천⁵⁶¹⁾하고, 얼굴이 또한 일색⁵⁶²⁾이라.
이렇듯 소문이 원근에⁵⁶³⁾ 낭자⁵⁶⁴⁾하니,
하루는 무릉촌 장승상택 부인⁵⁶⁵⁾이 시비⁵⁶⁶⁾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늘,
심청이 부친전⁵⁶⁷⁾ 여짜오되,
“아버지. 무릉촌 승상부인이 저를 청하였사오니 어찌 하오리까?”
심봉사 이 말 듣고, “애, 청아. 그 부인과 너의 모친과는 절친⁵⁶⁸⁾하게
지내었다.

네가 진즉⁵⁶⁹⁾ 찾아가 뵈을 것을, 이제 청하도록 있었구나.
어서 건너가되, 아미⁵⁷⁰⁾를 단정히 숙이고,
묻는 말이나 대답하고, 쉬이⁵⁷¹⁾ 다녀오도록 하여라.”

[진양조] 시비 따라 건너간다.

무릉촌을 당도허여 승상택을 찾아가니,
좌편은 청송⁵⁷²⁾이요, 우편 녹죽⁵⁷³⁾이라.
정하⁵⁷⁴⁾에 섰는 반송⁵⁷⁵⁾ 광풍⁵⁷⁶⁾이 건듯⁵⁷⁷⁾ 불면 노룡⁵⁷⁸⁾이 굽나난 듯,⁵⁷⁹⁾
뜰 지키는 백두루미 사람 자취에 일어나서
나래⁵⁸⁰⁾를 땅으다⁵⁸¹⁾ 지르르르 끌며, 푸루루루 끌룩,
징검징검⁵⁸²⁾ 알연성⁵⁸³⁾이 기이허구나.⁵⁸⁴⁾

Mr. Sim is dumfounded. He pulls her hands to his mouth and blows on them.

“Daughter! Warm yourself up here.

My life is cruel to go on.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to you.”

17. (Following a Maid)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invites Sim Cheong. She follows a maid over to the village.

[Aniri] Time goes by fast. Sim Cheong is fifteen years old now. Her filial piety is great. She is a rare beauty.

Words about her spread here and there.

One day,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sends a maid to invite Sim Cheong to her house.

Sim Cheong asks her father.

“Father,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has invited me. What should I do?”

Mr. Sim responds, “Look, Cheong. The noble lady was a good friend of your mom.

You should have called on her. But you didn’t until she invited you now.

Go over and see her. Be courteous to her.

Answer her questions politely. And come back quickly.”

[Jinyangjo] Sim Cheong follows the maid.

They arrive in Paradise Village and in the noble lady’s house.

On the left are pine trees. On the right are green bamboos.

A low pine tree grows horizontally below a pavilion. As a wind rages, it looks like an old dragon rising up.

A white crane in the yard stands up after hearing human sounds.

It drags its wings on the ground and cries.

As it strides, it makes queer sounds.

18. (심청 수양딸 거절) 장승상댁 부인이 심청에게 수양딸이 되어 줄 것을 청하지만, 심청은 거절한다.

[중중모리] 계상⁵⁸⁵)에 올라서니 부인이 영접하여,⁵⁸⁶
심청 손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가 좌⁵⁸⁷)를 주어 앉힌 후에,
“네가 과연 심청이냐? 듣던 말과 같은지라.
무릉에⁵⁸⁸) 내가 있고, 도화동 네가 나니,
무릉에 봄이 들어 도화동 개화⁵⁸⁹)로다.
이 내 말을 들어봐라. 승상 일즉⁵⁹⁰) 기세허시고,⁵⁹¹
아들이 삼형제나 황성⁵⁹²) 가 미환하고,⁵⁹³
어린 자식 손자 없어,
적적한 빈 방안에 대하나니⁵⁹⁴) 촛불이요, 보는 건 고서⁵⁹⁵)로다.
네 신세를 생각하면, 양반의 후예로 저렇듯 곤궁하니,
나의 수양딸⁵⁹⁶)이 되어 여공⁵⁹⁷)도 숭상하고, 문필⁵⁹⁸)도 학습하여
말년⁵⁹⁹) 재미를 볼까 하니, 너의 뜻이 어떠하냐?”
[아니리] 심청이 여짜오되, “앞 못 보시는 아버지는 저를 아들 겹 믿사
옵고,
저는 부친을 모친 겹 모시오니 분명 대답 못 하겠내다.”⁶⁰⁰)
“기특타,⁶⁰¹) 내 딸이야. 나는 너를 딸로 아니,
너는 나를 어미로 알아라.”
일모⁶⁰²)가 되도록 놓지 아니하시고 이야기로 벗 삼으실 제,
심청이 여짜오되, “추운 방 저의 부친 날 오기만 기다리니 어서 건너
가겠내다.”⁶⁰³)
부인이 허락하시고 비단과 양식을 후히 주어 시비 함께 보낸지라.
[창조] 그 때여 심봉사는 적적한⁶⁰⁴) 빈 방 안에서 딸 오기만 기다릴
적,⁶⁰⁵)

18. (Sim Cheong's Decline.) Sim Cheong declines the noble lady's proposal to be adopted.

[Jungjungmori] Sim Cheong moves up on the stone steps. The noble lady welcomes her.

She grabs Sim Cheong's hands and leads her to a room. She offers a seat.

"Are you really Sim Cheong? You are the same as they say you are. I am in Paradise Village. You are in Peach Blossom Village. Spring has come in Paradise Village. Flowers bloom in Peach Blossom Village.

Listen to me, sweetheart. My husband died long time ago. I have three sons. They live in the capital city without coming back here.

I have neither a young child nor a grandchild.

All I have in this empty room is a candlelight and old books. Let me see how you are. You are a descendent of the high class but poor. If you are adopted to me, you can learn things a woman should know, and learn how to write.

You will bring joy to my old life. What do you say?"

[Aniri] Sim Cheong replies, "My blind father relies on me like a son. I serve him like my mother. So I can't give you a definite answer." "How praiseworthy you are! I will take you as my daughter. Please take me as your mother."

Until the sun sets, the lady talks with her, not letting her go back home.

Sim Cheong says, "My father is waiting for me in the cold room. I have to go now."

The lady says it is okay. She gives her a lot of silks and food, and has the maid follow her.

[Song Mode] Meanwhile, Mr. Sim waits for his daughter in the desolate room.

19. (심봉사 물에 빠짐) 딸의 귀가가 늦어지자, 심봉사가 딸을 찾으러 나가다가 개천에 빠진다.

[진양조]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방은 치위⁽⁶⁰⁶⁾ 한기⁽⁶⁰⁷⁾ 들 제,
먼 데 절 쇠북을 치니,
날 저문 줄 짐작하고, 딸 오기를 기다릴 제,
“어찌하여 못 오느냐? 부인이 잡고 만류허느냐?
길에 오다가 옥⁽⁶⁰⁸⁾을 보느냐?
백설은 펄펄 훔날린다 후후 불고 앉었느냐?”
새만 푸르르르 날아들어도, “내 딸 청이 네 오느냐?”
낙엽만 버섯 떨어져도 “내 딸 청이 네 오느냐?”
아무리 불리를 봐도 적막공산⁽⁶⁰⁹⁾의 인적⁽⁶¹⁰⁾이 끊어지니,⁽⁶¹¹⁾
“내가 분명 속았구나.
이놈의 노릇을 어찌를 할거나?” 신세자탄⁽⁶¹²⁾으로 울음을 운다.
[자진모래] ‘이래서는 못쓰겠다.’

닫은 방문 펄쩍 열고, 지팡이 홀어 짚고,⁽⁶¹³⁾
더듬더듬 더듬더듬 더듬더듬 더듬더듬 더듬더듬 나가면서,
심청을 부르는디, “청아! 오느냐? 어찌하여 못 오느냐?”
더듬더듬 더듬더듬 더듬더듬 더듬더듬 나갈 적에,
그 때여 심봉사는 딸의 덕에 몇 해를 가만히 앉아 먹어노니,
도랑 출입⁽⁶¹⁴⁾이 서툴구나.
지팡이 홀어 짚고 더듬더듬 나가다가,
길 넘는⁽⁶¹⁵⁾ 개천물에 한 발 잡혀⁽⁶¹⁶⁾ 미끄러져 거꾸로 물에 가 풍.
나오라면⁽⁶¹⁷⁾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19. (Mr. Sim Falls into a Stream) Because Sim Cheong
gets late, Mr. Sim goes out to meet her and falls
into a stream.**

[Jinyangjo] Mr. Sim is very hungry. The room is cold.
A bell rings from a remote buddhist temple.
He thinks that it is dark. He waits for his daughter.
“Why is she not coming? Is the noble lady holding her?
Did she get into trouble on a street?
A heavy snow comes down now. Is she blowing on her hands
to warm them up?”
A bird flies in, making a sound. “Are you my daughter Cheong?”
Leaves fall down. “Are you my daughter Cheong?”
However hard he calls her, there is nobody on the quiet
mountain.
“I was certainly deceived.
What should I do now?” He laments over his fate.
[Jajinmori] ‘I shouldn’t just wait.
Mr. Sim opens the closed door and grabs his cane.
He moves forward unsteadily with the help of his cane.
He calls out Cheong. “Cheong! Are you coming? Why aren’t
you coming back?”
He moves forward unsteadily.
Mr. Sim has stayed home for long time thanks to his daughter.
He is awkward in crossing a stream.
He moves forward unsteadily with the help of his cane.
He takes a false step and slides upside down into a deep stream.
He pushes himself up but slides back down.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그저 점점 들어가니,
“아이고, 도화동 사람들! 심학규 죽네!
정신도 말끔하고,⁽⁶¹⁸⁾ 숨도 잘 쉬고, 아픈 데 없이 잘 죽는다!”

20. (심봉사 구출) 지나가던 중이 심봉사를 구한다.

[아니래] 한참 이리 헐 제,
[엇모래] 중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다른 중은 내려오는데, 이 중은 올라간다.
이 중이 어디 중이고? 몽은사 화주승⁽⁶¹⁹⁾이라.
절을 중창⁽⁶²⁰⁾허라 허고 시주집⁽⁶²¹⁾ 내려왔다
날이 우연히 저물어져,
흔들 흔들 흐늘거리고⁽⁶²²⁾ 올라갈 제, 저 중의 생긴 모양
얼굴이 검고 푸른 중, 푸르고도 검은 중,
층암절벽상⁽⁶²³⁾에 떤그르르르 굴굴어도⁽⁶²⁴⁾ 한 점도 아니 깨어질 중이
흔들 흔들 흐늘거리고 올라갈 제,
백저포⁽⁶²⁵⁾ 장삼⁽⁶²⁶⁾에 분홍띠⁽⁶²⁷⁾ 띠고,
굴갓⁽⁶²⁸⁾ 쓰고, 장삼⁽⁶²⁹⁾ 입고,
실고락⁽⁶³⁰⁾ 죽감투⁽⁶³¹⁾ 호홉뻥⁽⁶³²⁾ 눌러 쓰고 백팔염주⁽⁶³³⁾를 목에 걸
고, 단주⁽⁶³⁴⁾ 팔에 걸어,
용두⁽⁶³⁵⁾ 새긴 육환장⁽⁶³⁶⁾
채고리⁽⁶³⁷⁾ 많이 달아 처절철⁽⁶³⁸⁾ 뚝딱⁽⁶³⁹⁾ 짚고,
흔들 흐늘거리고⁽⁶⁴⁰⁾ 올라갈 제,
중이라 허는 건 절에서도 염불,⁽⁶⁴¹⁾ 속가⁽⁶⁴²⁾에 와도 염불.

He attempts to get out but goes back down ceaselessly.
He tries to get up but falls back in. He gradually goes down.
“Peach Blossom Villagers! Help me! Sim Hak-gyu is drowning!
My mind is normal, I breathe well, I am not sick, But I am dying!”

20. (The Rescue of Mr. Sim) A buddhist monk passing by rescues Mr. Sim.

[Aniri] The situation is as stated above.
[Eonmori] A buddhist monk goes up a mountain.
Other buddhist monks go down, but he goes up.
Who is this monk? He is a monk from Mongeun Temple in charge of donation affairs.
He solicited donations in the village to reconstruct his old temple.
It's getting dark.
He moves his body left and right as he goes up. This is how he looks.
He face is black and blue at the same time.
He is likely to be uninjured even if he rolls down a multiple-layered cliff.
He moves his body left and right as he goes up.
He wears a red belt on the white ramie coat.
He wears a cylindrical hat and a hemp coat.
He has strings of 108 beads on his neck and 8 beads on his arm.
He carries a cane on which the head of a dragon is carved.
Six iron rings dangling from it make sounds.
He moves his body left and right as he goes up.
A monk is supposed to chant a prayer in and out of a temple.

염불을 많이 허면 극락세계⁽⁶⁴³⁾ 간다더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 어허 허 허 허 허 으흐으 으아아 하아아.
 상래소수불공해요, 회향삼천실원만.⁽⁶⁴⁴⁾
 원왕생⁽⁶⁴⁵⁾ 원왕생, 제불중천제갈녕⁽⁶⁴⁶⁾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염불허고 올라갈 제, 한 곳 당도하니,
 어떠한 울음소리가 귀에 언뜻⁽⁶⁴⁷⁾ 들리거늘,
 저 중이 깜짝 놀래, “이 울음이 웬 울음? 이 울음이 웬 울음?
 마외역⁽⁶⁴⁸⁾ 저문 날에 하소대⁽⁶⁴⁹⁾로 울고 가던 양태진⁽⁶⁵⁰⁾의 울음이냐?
 이 울음이 웬 울음?
 여우가 변화허여⁽⁶⁵¹⁾ 날 호리는⁽⁶⁵²⁾ 울음인거냐? 이 울음이 웬 울음?”
 우명한⁽⁶⁵³⁾ 건 중이라, 죽장⁽⁶⁵⁴⁾을 드리메고,
 이리 끼웃, 저리 끼웃, 끼웃거리고 올라올 제,
 한 곳 당도하니, 어떠한 사람인지 개천⁽⁶⁵⁵⁾ 물에 풍덩 빠져 거의 죽게
 가 되었거늘,
 저 중의 급한 마음, 저 중의 급한 마음,
 굴갓 장삼 훨훨 벗어 되는 대로 내던지고,
 버선, 행전, 다님⁽⁶⁵⁶⁾ 끄르고,
 고두누비⁽⁶⁵⁷⁾ 바지 가래⁽⁶⁵⁸⁾ 따달 딸딸 걸어 자개미⁽⁶⁵⁹⁾ 딱 붙이고,
 무논⁽⁶⁶⁰⁾의 백로 격으로⁽⁶⁶¹⁾ 징검⁽⁶⁶²⁾ 징검 징검거리고 들어가,
 심봉사 고드레상투⁽⁶⁶³⁾를 에뚜루미쳐⁽⁶⁶⁴⁾ 건져놓고 보니,
 전에 보던 심봉사라.

A lot of prayers results in being in paradise.
 “Save us, merciful Buddha and the Goddess of Mercy!
 Oh, oh, oh! Ah huh huh ha ah.
 May Buddha’s grace extend to everything in the world!
 I wish I will be reborn in heaven. I pray all the Buddhist gods
 in the sky are happy.
 Save us, merciful Buddha and the Goddess of Mercy.”
 The monk chants a prayer as he goes up. The monk nears the
 place where Mr. Sim is.
 He hears a faint crying sound.
 He is surprised. “What is this cry? What is this cry?
 Is this the cry of Yang Tai Zhen(楊太眞), a beautiful woman of
 ancient China, on the way to die at a pavilion? What is this cry?
 Is this the cry of fox which intends to bewitch me? What is this
 cry?”
 The monk is treacherous. He pulls his bamboo cane on his
 shoulder.
 He comes up, snooping around.
 He arrives at a place. A man has fallen into a stream and is
 about to die.
 The monk feels unsettled and disturbed.
 He takes off his hat and coat, and throws them aside.
 He takes off socks and unties his ankle bands.
 He pulls his cotton trousers up to the crook of his knee.
 He strides on a rice paddy filled with water like a white heron.
 He grabs his topknot and gets the man out of the water.
 He learns that the man is Mr. Sim whom he knows.

21. (공양미 시주 약속)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에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중의 말을 듣고 심봉사는 시주 약속
을 하지만, 중이 떠난 뒤 후회한다.

[아니레] 심봉사 정신 차려, “거 뉘가 날 살렸소?”

“예. 소승⁽⁶⁶⁵⁾은 몽은사 화주승⁽⁶⁶⁶⁾이온데,

시주집⁽⁶⁶⁷⁾ 내려왔다 올라가는 길에

다행히 심생원을 구하였습니다그려.”

“허허. 활인지불⁽⁶⁶⁸⁾이라더니 대사가 나를 살렸구만.”

대사 이르는 말이, “여보시오, 심생원.

가세가 웬만하시다면, 공양미 삼백 석만 저희 절로 시주허면, 삼년
내로 어둔 눈을 꼭 뜨실 것이오마는.”

심봉사 이 말 듣고, “여, 대사. 공양미 삼백 석을 권선⁽⁶⁶⁹⁾에 적소.”

저 중이 어이없어, “심생원 가세⁽⁶⁷⁰⁾를 둘러보면, 단 서 흡⁽⁶⁷¹⁾도 없는
분이

함부로 그런 말씀은 허신단 말이오?”

“뭇이 어찌? 야, 이놈아, 네가 내 살림 속을 어찌 알고 허는 말이여,
에이? 당장 안 적어?”

저 중이 권선에 적은 후에,

“여보시오, 심생원. 부처님을 속이면은 앓은뱅이가 된답니다. 명심하
십시오.”

“글쎄, 그건 염려 말고 불공⁽⁶⁷²⁾이나 착실히 허게.”

중은 올라가고, 심봉사는 집으로 돌아와

[창조] 적적한 빈 방안에 앉아 곰곰 생각을 하니,

21. (The Promise to Donate Rice to Mongeun Temple)

Mr. Sim hears from the monk that he will gain sight if he donates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He promises to donate the rice, but regrets after the monk left.

[Aniri] Mr. Sim comes to himself. “Who saved me?”

“I am a monk from Mongeun Temple.

I was soliciting donations and was on my way back to the temple.

Luckily, I saved you.”

“It is said that Buddha saves people. You saved me, Mr. Monk.”

The monks says, “Hello, Mr. Sim.

If you can afford to donate 300 bags of rice to my temple, you could gain sight within three years.”

Mr. Sim responds, “Monk, write down 300 bags of rice on your donation roster.”

The monk is dumfounded. “Mr. Sim, look at what you have. You don’t have a handful of rice.

How dare you say that?”

“What? You rascal! How do you know about my financial status?

Put my name down quickly!”

The monk writes Mr. Sim’s name down on his roster.

“Hello, Mr. Sim. Keep in mind that if you tell a lie to Buddha, you will be crippled.”

“Don’t worry. Just pray well to Buddha on my behalf.”

The monk leaves. Mr. Sim comes back home.

[Song Mode] He reflects on what he did in the quiet room.

[중모레] “허허, 내가 미쳤구나. 분명 내가 사⁶⁷³⁾들렸네.
 공양미 삼백 석을 내가 어찌 구하리오?
 살림을 팔자허니 단 돈 열 냥 뉘가⁶⁷⁴⁾ 주며,
 내 몸을 팔자헌들 앞 못 보는 봉사님을 단 돈 서 푼⁶⁷⁵⁾ 뉘가 주리?
 부처님을 속이면은 앓은뱅이가 된다는디,
 앞 못 보는 봉사님이 앓은뱅이가 되고보면,
 꿈쩍 달싹없이⁶⁷⁶⁾ 내가 죽겠구나.
 수중고혼⁶⁷⁷⁾이 될지라도 차라리 죽을 것을,
 공연한 중을 만나 도리어 내가 후회로구나.
 저기 가는 대사! 권선에 쌀 삼백 석 에우고⁶⁷⁸⁾ 가소!”
 실성발광⁶⁷⁹⁾ 기가 막혀 혼자 앓어 통곡한다.

22. (심청 위로) 심청이 돌아 와서 사정을 듣고 아버지를 위로한다.

[자진모레]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며,
 저의 부친 모양 보고 깜짝 놀래 발 구르며,
 “아이고, 아버지, 살 없는 두 귀 밑에 눈물 흔적 웬 일이며,
 솜 없는 헌 의복에 물 흔적이 웬 일이오?
 나를 찾아 나오시다 개천에 넘어져서 이 지경을 당하셨소?
 승상댁 노부인이 굳이 잡고 만류하여 어언간⁶⁸⁰⁾ 더디었소.
 말을 허오. 말을 허오. 답답하여 못 살겠소.”
 [아니레] 심봉사 그제야 말을 허되, “애, 청아.
 너를 기다리다 못하여 더듬더듬 나가다가
 이 앞 개천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는데,

[Jungmori] “I was out of my mind. A bad spirit was in me.
How can I get 300 bags of rice?
My properties are worth less than ten dollars.
Even if I sell my body, it is worth less than a few dollars because
I am blind.
If you deceive Buddha, you will be crippled.
I will be crippled when I am already blind.
I will surely die.
I should have died in the stream.
I met the monk by chance, and now regret what I did.
Hey, monk there! Erase my name on the donation roster!”
He goes wild and stunned, and wails alone.

**22. (Sim Cheong Consoles Her Father) Sim Cheong
comes back, listens to the story, and consoles her
father.**

[Jajinmori] Sim Cheong comes in. She goes through the door.
She is surprised to look at her father and stamps on the ground.
“Alas, father! What happened? Why are there traces of tears
below your thin earlobes?
Why are there traces of water on your old clothes?
Did you go out to meet me and fall into the stream?
I am late because the noble lady held me.
Please talk to me. I am anxious to know.”
[Aniri] Mr. Sim now speaks, “Look, Cheong!
I couldn’t wait for you, so I moved forward unsteadily.
I fell into the stream and was about to die.

뜻밖에 몽은사 화주승이 나를 건져주고 하는 말이,
공양미 삼백 석만 불전에⁽⁶⁸¹⁾ 시주하면, 삼년 내로 어둔 눈을 꼭 뜬다
하더구나.

[창조] 그리하여 눈 뜬단 말에 후시는 생각지 않고 대번에 일을 저질
러 놓았으니

이를 장차 어쩔거나! 아무리 생각하여도 백계무책⁽⁶⁸²⁾이로구나.”

[아니레] 심청이 이 말 듣고, “아버지 너무 염려 마옵소서.

지성이면 감천⁽⁶⁸³⁾이라, 제가 정성껏 구하여 보겠습니다.”⁽⁶⁸⁴⁾

이렇듯 부친의 맺힌 근심을 위로해 놓고,

그날부터 목욕재계⁽⁶⁸⁵⁾ 정히⁽⁶⁸⁶⁾ 하고 지극 정성을 드리는데,

23. (심청 치성) 심청이 자신을 살 사람이 나타나기를 빈다.

[진양조] 후원에 단을 못고⁽⁶⁸⁷⁾ 복두칠성 자아반에⁽⁶⁸⁸⁾ 촛불을 돋오 키
고,⁽⁶⁸⁹⁾

정화수⁽⁶⁹⁰⁾를 받쳐놓고 지성축수⁽⁶⁹¹⁾로 비는구나.

“비나니다, 비나니다. 하느님전에 비나니오.

무자생⁽⁶⁹²⁾ 소경⁽⁶⁹³⁾ 아비 삼십 전 안맹허여⁽⁶⁹⁴⁾ 오십이 장근토록⁽⁶⁹⁵⁾
시물⁽⁶⁹⁶⁾을 못하오니,

아비의 허물일랑 심청 몸으로 대신하고,

아비의 어둔 눈을 밝게 점지⁽⁶⁹⁷⁾허옵소서.

인간의 충효절행⁽⁶⁹⁸⁾ 천신⁽⁶⁹⁹⁾은 어이 모르리까?

공양미 삼백 석만 불전에 시주⁽⁷⁰⁰⁾하면 부친 눈을 뜬다하니,

All of sudden, a monk from Mongeun temple found and saved me.

He told me that if I donate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my eyes will be opened within three years.

[Song Mode] I was so excited about opening my eyes that I made a commitment without thinking about the consequence of it. What should I do now? I can't come up with a solution to my problem."

[Aniri] Sim Cheong hears him and says, "Father, don't worry too much.

Wholeheartedness moves heaven. I will do my best to get the rice."

She consoles her father as said above.

From that day on, she cleans her body and prays conscientiously.

23. (Sim Cheong Prays.) Sim Cheong prays so that somebody shows up to buy her.

[Jinyangjo] Sim Cheong builds up an altar in the backyard. It is deep night with the Great Bear. She lights a candle.

She places a bowl of pure water on a small dining table and prays to a god with all her heart.

"I pray. I pray. I pray to God.

My father became blind before thirty and can't see things when he approaches fifty.

I will replace his fault with my body.

Please make my father's blind eyes open.

God should know about virtuous people.

If 300 bags of rice are donated to Mongeun Temple, my father's eyes will be opened.

명천⁷⁰¹)이 감동허사 공양미 삼백 석을 지급하여 주옵소서.”

24. (남경선인) 심청은 남경선인들에게 몸을 판 후, 부친에게 수양딸로 가게 되었다고 속이고 행선날을 기다린다.

[아니리] 이렇듯 빌어갈 제,

[중중모리] 하루는 문전에 웨는⁷⁰²) 소리,

“우리는 남경 장사 선인⁷⁰³)으로,

인당수⁷⁰⁴)라 허는 데는 인제수⁷⁰⁵)를 받는고로,⁷⁰⁶

십오 세나 십육 세나 먹은 처녀를 사라허니,⁷⁰⁷

몸 팔 이 뉘 있습나?”⁷⁰⁸)

[아니리] 심청이 이 말 듣고 천우신조⁷⁰⁹)로 생각하고,

이웃 사람 알지 않게 몸을 은신⁷¹⁰)하야 선인 한 사람을 불러 여짜오 되,

“소녀 나이 당년⁷¹¹) 십오세온데, 부친을 위하여 몸을 팔려 하오니, 나를 사가심이 어떠허오?”

선인이 듣고, “허허, 출천지대호⁷¹²)로고.

그래 값은 얼마나 주오리까?”

“덜 주시오면 낭패오니, 더도 덜도 말고 공양미 삼백 석만 내월⁷¹³)

십오일 내로 몽은사로 올려 주오.”

“글랑은 염려 마오. 그러나 우리도 내월 십오일 날이 행선날⁷¹⁴)이오니, 어찌 하오리까?”

“중값 받고 팔린 몸이 제 뜻대로 하오리까? 염려마옵소서.”

피차⁷¹⁵) 약속허고 집으로 돌아와

All-knowing heaven, please be moved. Please grant me 300 bags of rice.”

24.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Sim Cheong sells herself to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And she waits for the departure date.

[Aniri] Sim Cheong prays to the gods.

[Jungjungmori] One day, there are shouts in front of her house.
“We are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Indang Water accepts a human sacrifice.

So we need to buy a fifteen or sixteen year old virgin.

Is there anybody to sell herself?”

[Aniri] Hearing the shouts, Sim Cheong thinks that heaven is helping her.

She speaks to a sailor secretly so that she is not noticed by her neighbors.

“I am fifteen years old this year. I intend to sell myself for the sake of my father.

Why don’t you buy me?”

The sailor hears her and says, “Heavens! You are a good daughter.

Well, how much do you want?”

“Too little money will cause trouble. Just send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by 15th of next month.”

“Don’t worry about that. Actually, the 15th of next month is our departure date. What do you say?”

“How would I refuse when I am sold at such a high price? Don’t worry.”

They make a promise to each other. And Sim Cheong comes back home.

부친을 속이는데, 속이는 것 또한 효성이라.

“아버지! 오늘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바치게 되었네다.”

심봉사 깜짝 놀래, “악아, 청아! 거 어떻게 된 일이나?”

“아버지, 전일⁷¹⁶에 승상부인께서 저를 수양딸⁷¹⁷로 말씀하시기에 분명 대답 못했지요.

제가 오늘 건너가 아버님 사정을 여쭙오니,
부인께서 공양미 삼백 석을 몽은사로 올리시고,
저를 수양딸로 다려간다⁷¹⁸ 허옵니다.”

심봉사 이 말 듣고, “허허, 그것 참 잘 되었다. 잘 되야.

아니, 그런디 나는 어찌고?”

“아버지도 모서가기로 하였네다.”

“그렇지. 눈먼 놈 나 혼자만 둘 것이냐? 잘 되었다. 잘 되었다.”

이렇듯 부친의 맺힌 근심을 위로해 놓고 행선일⁷¹⁹을 생각하니,
하룻밤이 격한지라.⁷²⁰

25. (행선 전야) 심청이 부친과 이별할 일을 생각하며 탄식한다.

[진양조] 눈 어두운 백발 부친 생존시에⁷²¹ 죽을 일과
사람이 세상에 삼겨났다⁷²² 십오세에 죽을 일을 생각을 하니,
정신이 삭막허고,⁷²³ 흥중⁷²⁴이 답답허여
하염없는⁷²⁵ 설움이 간장⁷²⁶에서 솟아난다.
부친의 사시⁷²⁷ 의복 빨래허여 농⁷²⁸ 안에 담어두고,
갓 망건⁷²⁹ 다시 꾸며 쓰기 쉽게 걸어놓고,
행선일을 생각하니 하룻밤이 격한지라.⁷³⁰
모친 분묘⁷³¹ 찾아가서 주과포혜⁷³² 차려놓고,

But Sim Cheong told a lie to her father also out of filial piety.
“Father! I got 300 bags of rice that would be sent to Mongeun Temple.

Mr. Sim is surprised. “Honey, what did you say?”

“Father, I did not give a definite answer to the noble lady’s proposal that I be adopted to her.

Today I went over and told her about your situation.

She said she would send 300 bags of rice to Mongeun Temple, and take me as an adopted daughter.”

Mr. Sim responds, “Oh, that’s great. That’s great.

Then, what will become of me?”

“They will take you there too.”

“Good. She won’t leave a blind man alone. That’s great. That’s good.”

Sim Cheong eases her father’s worry and waits for the departure date.

One night remains before the departure date.

25. (Eve of Departure Date) Sim Cheong sighs, thinking about parting with her father.

[Jinyangjo] Sim Cheong thinks about dying when her blind old father is alive,

and about dying fifteen years after she was born.

She feels gloomy and choked in her chest.

Ceaseless sorrow wells up in her mind.

She cleans her father’s clothes and puts them in a wardrobe.

She mends his hat and headband and hangs them in a handy place.

She realizes that one night left before the departure date.

She visits her mother’s tomb and lays out various food.

“아이고, 어머니! 불효여식⁷³³) 청이는,
 부친 눈을 띄우라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제수⁷³⁴)로 가게 되니,
 연년이⁷³⁵) 오난 기일⁷³⁶) 뉘라서 받드리까?
 제 손으로 부은 술을 망중⁷³⁷) 흠향⁷³⁸) 허옵소서.”
 사배⁷³⁹)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와 부친 진지 올린 후에,
 밤 적적⁷⁴⁰) 삼경⁷⁴¹)이 되니
 부친은 잠이 들어 아무런 줄을 모르는구나.
 잠이 깰까 염려 되어 크게 울든 못하고 속으로 느끼는디,⁷⁴²)
 “아이고, 아버지! 날 볼 날이 몇 날이며, 날 볼 밤이 몇 밤이나 되오?
 제가 철⁷⁴³)을 안 연후에 밥 빌기를 놓았더니마는,
 내일부터는 동리 걸인이 또 될 것이니, 아버지를 어찌고 갈꼬?
 오늘 밤 삼경시⁷⁴⁴)를 함지에⁷⁴⁵) 머무르고,
 내일 아침 돈는 해를 부상⁷⁴⁶)에다 땀 양이면,⁷⁴⁷)
 불쌍허신 우리 부친 일시라도 더 뵈시련만,⁷⁴⁸) 인력으로 어이 혈꼬!”
 천지가 사정이 없어, 벌써 닭이 ‘꼬끼오!’
 “닭아, 우지 마라. 반야⁷⁴⁹) 진관⁷⁵⁰)의 맹상군⁷⁵¹)이 아니로구나.
 네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은 나 죽는다.
 나 죽기는 싫잖으나, 의지 없는 우리 부친을 어이 잇고 가잔 말이냐!”
[중모레] “하량낙일수운기⁷⁵²)는 소통국⁷⁵³)의 모자 이별,⁷⁵⁴)
 정객관산노기중⁷⁵⁵)에 오희월녀⁷⁵⁶) 부부 이별,
 서출양관무고인⁷⁵⁷)은 위성조우⁷⁵⁸) 봉우 이별,⁷⁵⁹)
 이런 이별 있건마는 우리 부녀 당헌 이별 어느 때나 다시 뵈리?”

“Mother! I am a bad daughter.
 I am sold at 300 bags of rice to open my father’s eyes. I will
 be used as a sacrifice during a ritual.
 Who will hold the annual ritual for you?
 Please help yourself to this last wine I can give to you.”
 She gives big bows and comes back home. She serves her father
 with a meal.
 It is quiet and deep into the night.
 Her father sleeps without knowing anything.
 Afraid he might wake up, she can’t cry loudly. She only weeps
 in her mind.
 “Alas, father! How many nights and days do we have to be
 together?
 After I became mentally mature, I begged food for you.
 You will become the beggar of the village again from tomorrow
 on. How will I leave him?
 If the sun stays in Grand Pond tonight,
 and if the rising sun is tied on the East Sea tomorrow,
 then, I can serve my father more. But how could I do that?”
 Time is ruthless. A rooster already crows.
 “Rooster, don’t crow. I am not the ancient man your crow once
 saved at night.
 If you crow, the day breaks. If the day breaks, I die.
 I don’t mind my dying. But my father has nobody to turn to.
 How can I forget and leave him?”
[Jungmori] “A son parted with his mother on a bridge in the
 evening.
 Wives were separated from their husbands in the battlefield.
 A man couldn’t see his parted friend in a castle.
 There were such farewells. But when will I meet my father
 again?”

26. (심봉사 만류) 심청이 사실을 고하자 심봉사는 죽기로 작정하며 만류한다.

[아니리] 벌써 동방⁷⁶⁰)이 밝어지거늘,
심청이 부친 진지나 망중⁷⁶¹) 지으리라 하고
부엌으로 나오니, 문 밖에 선인들이 서 있거늘, 심청이 빨리 나가,
“여보시오, 선인님네. 부친 진지나 잡수시게 하고 떠납시다.” 선인들
이 허락하니,
아침밥 얼른 지어 소반⁷⁶²) 위에 받쳐 들고 방으로 들어와
“아버지, 일어나 진지⁷⁶³) 잡수시오.”
“야야, 오늘 아침밥은 별라⁷⁶⁴) 일쿠나.⁷⁶⁵)
그런데 청아, 간밤에 내가 묘한 꿈을 꾸었다.”
“아버지,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내가 수레를 타고 끝없는 바다로 한없이 가보이더구나.
거 수레라 하는 것은 귀인⁷⁶⁶)이 타는 것인데,
내 손수 해몽⁷⁶⁷)하였지야.
오늘 아마 장승상부인이 너 다려갈려고⁷⁶⁸) 가마 보내실 꿈이여.”
심청이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아버지, 어서 진지 잡수시오.” “그래 먹자.”
진짓상 물리고⁷⁶⁹) 담배 붙여 올린 후에,
심청이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제는 부친을 더 속일 수 없는지라,
[자진모래] 심청이 거동⁷⁷⁰) 봐라. 부친 앞으로 우루루루루루.
“아이고, 아버지!” 한 번 부르더니 말 못하고 기절한다.
심봉사 깜짝 놀래, “아니, 애가 무얼 먹고 체했나?
어떤 놈이 봉사의 딸이라고 정개⁷⁷¹)하더냐?”
“아이고 아버지! 불효 여식 청이는 아버지를 속였내다.”⁷⁷²)

26. (Mr. Sim's Deterrence.) Sim Cheong tells the truth to Mr. Sim. He frantically deters her from going.

[Aniri] As the sun begins to rise in the east,
Sim Cheong tries to make the last meal for her father.
She goes into the kitchen. The sailors stand outside the gate.
Sim Cheong goes out quickly.

"Hello, sailors. Let me leave after serving the last breakfast to my father." The sailors allow her to do so.

She quickly makes breakfast. She comes in the room with the food on the small table.

"Father, please wake up, and have this breakfast."

"Honey, we have a very early breakfast today.

Cheong, by the way, I had a strange dream last night."

"Father, what dream did you have?"

"You were going to the endless sea far away on a coach.

Only a noble person can get on a coach.

I interpreted the dream by myself.

The noble lady must be sending a carriage to take you today."

Sim Cheong thinks that his dream is about her death.

"Father, help yourself to the meal." "Yes, let's have it."

She clears away the meal table and lights his tobacco.

Sim Cheong now thinks that she can't deceive her father anymore.

[Jajinmori] Behold Sim Cheong. She runs to her father.

"Oh, father!" She calls her father and passes out without saying anything.

Mr. Sim is petrified. "Do you have an attack of indigestion?

Did anybody despise you because you are a daughter of a blind man?"

"Oh, father! I am a bad daughter. I told a lie to you."

“야, 이놈아, 속였으면 무슨 큰일을 속였간디,⁷⁷³⁾ 이렇게 아버를 놀라
게 헌단 말이여, 에이?

말하여라. 말하여. 답답허다, 말하여라.”

“아이고 아버지! 공양미 삼백 석을 누가 저를 주오리카?

남경 장사 선인들께 제 몸을 팔아,

오늘이 인당수 제수로 가는 날이니, 저를 망중⁷⁷⁴⁾ 보옵소서!”

심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중중모리] “허허, 이게 웬 말이냐? 이것이 웬 말이여?

허허, 여봐라, 청아. 애비보고 묻도⁷⁷⁵⁾ 앓고 네가 이것 웬 일?

눈을 팔아 너를 살데,⁷⁷⁶⁾

너 팔아 눈을 뜨면 뉘를⁷⁷⁷⁾ 보자 눈을 뜰꼬?

철 모르는 이 자식아, 애비 설움 네 들어라.

너의 모친 너 낳고 칠일 안에 죽은 후에,

앞 못 보는 늙은 애비가 품안에다 너를 안고 이집 저집 다니며,

동냥젓 얻어 맥여 요만큼이나 장성,⁷⁷⁸⁾

묵은 근심, 햇근심⁷⁷⁹⁾을 널로 하여⁷⁸⁰⁾ 잊었더니,

이것이 웬 말이냐? 아이고, 나 눈 안 뜰란다.”

그때에 선인들이 문전에 늘어서서, “심낭자 물때⁷⁸¹⁾ 늦어가오!”

심봉사 이 말을 듣고 밖으로 우루루루루.

엎더지며⁷⁸²⁾ 자빠지며 밖으로 우루루 쫓아 나가,

“에이,⁷⁸³⁾ 무지한⁷⁸⁴⁾ 놈들아! 장사도 좋거니와

사람 사다 제 지낸 데 어디서 보았느냐?

옛 말을 못 들었나?

칠년대한⁷⁸⁵⁾ 가물 적에 사람 잡아 빌라허니,

탕임금⁷⁸⁶⁾ 어진 마음, ‘사람 잡아 빌 양이면⁷⁸⁷⁾ 내 몸으로 대신 가
리라.’

“Oh, did you deceive me about a big thing to frighten your father like this?

Tell me, I am anxious to know.”

“Oh, father! Who would give me 300 bags of rice?

I was sold to sailors doing business with the Chinese.

I am departing today to be used as a sacrifice to Indang Water.

So this is the last moment with you.”

After hearing her, Mr. Sim goes frantic.

[Jungjungmori] “God, what did you say? What did you say?

Alas! Look, Cheong! How can you do that without asking your father?

I would rather sell my eyes to buy you.

Who would I see if you sell yourself to open my eyes?

You thoughtless girl! Listen to my sorrow.

Your mother died seven days after you were born.

Being blind and old, I knocked houses with you in my arms.

By begging for milk, I managed to raise you until now.

I wasn't anxious any longer thanks to you.

I can't believe what you just said. I don't want to open my eyes.”

The sailors are outside of the gate. “Miss Sim, the tide goes down!”

Mr. Sim hears them.

He runs unsteadily to them.

“You savage sailors! Doing business is okay.

But where did you learn sacrificing a human to hold a ritual?

Don't you know the old story?

People tried to sacrifice a human during the seven year drought.

A virtuous ancient king, Tang(湯), said that he would rather serve as the sacrifice.

몸으로 희생되어, 전조단발 신영백모⁷⁸⁸)하여 상림뜰⁷⁸⁹) 밟았더니
 대우방수천리⁷⁹⁰)나 풍년이 들었단다.
 나도 오늘 내 몸으로 대신 가리라.
 아이고, 동네 사람들. 저런 놈들을 그저⁷⁹¹) 뒤?
 내 딸 어린 청이를 꼬엿꼬엿⁷⁹²) 꼬여다가 인당수에 제수하면, 너 이
 놈들 잘 될쏘냐?”
 돈도 싫고, 쌀도 싫고, 눈 뜨기도 내사⁷⁹³) 싫다.”
 가슴 쿵쿵 뛰다려,⁷⁹⁴) 목제비질⁷⁹⁵)을 덜컹.⁷⁹⁶)
 내리둥굴⁷⁹⁷) 치둥굴며⁷⁹⁸) 죽기로만 작정을 허는구나.

27. (장승상부인 작별) 장승상부인이 심청을 불러 만류하나 듣지 않자, 화공을 불러 심청의 초상을 그리게 한 후, 눈물로 이별한다.

[창조] 그 때여 무릉촌 장승상부인이 이 소식을 듣고
 시비⁷⁹⁹)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거늘,
 심청이 부친전 여짜오되, “아버지, 장승상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저를 청하였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잠깐 다녀오겠나이다.”
 “위따,⁸⁰⁰) 그 댁에는 열 번이라도 가고, 백 번이라도 다녀오너라.”
 [아니레] 선인들께도 허락을 받고 무릉촌을 건너가는데,
 [진양조] 시비 따라 건너갈 제, 울며불며⁸⁰¹) 건너간다.
 “아이고, 내 일이야!
 어떤 사람 팔자 좋아 양친⁸⁰²)이 구존⁸⁰³)하여 복록을 누리며 부귀영화
 로 잘 사는데,
 내 신세는 어이허여⁸⁰⁴) 이 지경이 웬 일인고?”

He cut nails and hair, tied himself with white grass, and prayed.
They had a big rain and a good harvest in the wide area.
I will go instead of my daughter today!
Villagers, don't leave those villains alone.
If you entice and sacrifice my young daughter to Indang Water,
will you be happy?"
I don't want money, rice, or eyes."
He hits his chest hard. His head falls down as if his neck were
broken.
He rolls over, up and down. He is determined to die

**27. (Farewell to the Noble Lady.) The noble lady tries
to stop Sim Cheong in vain, has an artist draw a
picture of Sim Cheong, and says goodbye in tears.**

[Song Mode] Meanwhile,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hears
about the situation.

She sends a maid to bring Sim Cheong to her.

Sim Cheong says to his father, "Dad, the noble lady of Paradise
Village sent a maid to bring me. What should I do?

I will come back soon."

"Okay. You can go there as long as you want."

[Aniri] She also got the permission from the sailors. And she
goes over to Paradise Village.

[Jinyangjo] Sim Cheong follows the maid. She goes over in tears.

"Alas! How bad my fate is!

Some people are fortunate to have parents and live in wealth
and fame.

Why is my fate so bad like this?"

울며불며 무릉춘을 당도하니,
 부인이 급히 나와 심청 손을 부여잡고,
 “에기,⁸⁰⁵⁾ 천하⁸⁰⁶⁾ 무정한 사람아.
 나는 너를 딸로 여겼난디, 너는 나를 속였느냐?
 너의 효성은 장커니와,⁸⁰⁷⁾ 앞 못 보신 너의 부친을 뉘게⁸⁰⁸⁾ 의탁⁸⁰⁹⁾
 을 허자느냐?
 공양미 삼백 석을 지금 내어줄 터이니, 선인들과 해약⁸¹⁰⁾하라.”
 심청이 여짜오되, “장사하는 선인들께 수삭⁸¹¹⁾만에 해약하면, 선인들
 도 낭패⁸¹²⁾웁고,
 무고한⁸¹³⁾ 많은 재물 제가 어이 받으리까?
 이제 후회할 일 없소.”
 부인이 심청의 기색⁸¹⁴⁾을 보시고 다시 권치 못 허시고,
 “네 진정 그럴진대 너의 화상⁸¹⁵⁾이나 그러 널 본 듯이 보겠노라.”
 화공⁸¹⁶⁾을 급히 불러,
 “심낭자 생긴 모양, 수심계위⁸¹⁷⁾ 얹은 모양⁸¹⁸⁾ 낱낱이 잘 그리면 중
 상⁸¹⁹⁾을 줄 것이니, 착실히 잘 그려라.”
 화공이 영⁸²⁰⁾을 듣고, 오색단청⁸²¹⁾ 풀어놓고,
 심청을 이만허고 보더니,
 화용월태⁸²²⁾ 고운 얼굴
 모란화 한 송이가 세우중⁸²³⁾에 젖은 듯이,
 난초같이 푸른⁸²⁴⁾ 머리 두 귀 밑에 땅인⁸²⁵⁾ 것과,
 녹의홍상⁸²⁶⁾ 예쁜 태도
 역력히⁸²⁷⁾ 그려내어, 족자⁸²⁸⁾ 떼어 걸어 놓으니 심청이가 둘이로
 구나.
 부인이 보고 기가막혀 화제⁸²⁹⁾를 쓰시난디,
 ‘생지사지 일몽간허니 연장하필누삼삼고?

Sim Cheong arrives in Paradise Village with tears.
 The noble lady hurriedly comes out of her house and holds Sim Cheong's hands.
 "My goodness! How heartless you are!
 I took you as my daughter. But you betrayed me!
 Your filial piety is great. But who will your blind father turn to?
 I will give you 300 bags of rice. Break the promise with the sailors."
 Sim Cheong responds, "If I break the promise after a few months, they will be in trouble.
 How can I take your many properties without reason?
 There is no reason to regret now."
 The noble lady takes a close look at Sim Cheong. She can't push her anymore.
 "If you insist, I'll draw a picture of you and see it as if it were you."
 She calls an artist right away.
 "Mr. Sim looks sad. If you draw a picture of her in detail as she looks, I will give you a big award. Draw the picture well."
 The artist carries out the order. He spreads out colors.
 The artist takes a close look at Sim Cheong.
 She is as beautiful and elegant as a flower and the moon.
 She looks like a peony blossom wet with a fine rain.
 She has two braids as fresh as an orchid below her ears.
 She wears a yellowish green jacket and a red skirt.
 The picture is drawn vividly. The artist hangs the scroll up.
 There are two Sim Cheongs.
 The noble lady, dumfounded, writes a poem on the picture.
 'Birth and death are a dream. Why does an old person shed tears?

세간최루단장처는 초록강남인미환이라.’⁸³⁰⁾

부인이 심청을 부여안고,

“이제 가면 언제나 올 거나? 오만⁸³¹⁾ 날이나 일러다오.”

28. (선인 따라) 심청이 선인들을 따라서 슬피 울며 떠나간다.

[아니리] 하직하고 집으로 돌아오니,

부친은 뛰고 궁굴고, 선인들은 재촉을 하거늘,

심청이 하릴없이⁸³²⁾ 동네 어른들께 부친을 의탁하고 길을 떠나는
구나.

[중모리] 따라간다. 따라간다. 선인들을 따라간다.

끌리는 초마⁸³³⁾ 자락을 거듬거듬⁸³⁴⁾ 걷어 안고,

비같이 흐르는 눈물 옷깃이 모두 사무친다.⁸³⁵⁾

엎더지고⁸³⁶⁾ 넘어지며 천방지축⁸³⁷⁾ 따라갈 제,

건넌 마을 바라보며, “이진사댁 작은악아!

작년 오월 단오일에 앵두 따고 노든⁸³⁸⁾ 일을 네가 행여 생각느냐?⁸³⁹⁾

금년 칠월칠석야에⁸⁴⁰⁾ 함께 걸교⁸⁴¹⁾허잖더니⁸⁴²⁾ 이제는 하릴없다.

상침질⁸⁴³⁾ 수놓기를 놀과⁸⁴⁴⁾ 함께 허자느냐?

너희는 양친이 구존⁸⁴⁵⁾허니, 모시고 잘 있거라.

나는 오늘 우리 부친 슬하를 떠나 죽으러 가는 길iero다.”

동리⁸⁴⁶⁾ 남녀노소 없이 눈이 붉게 모다⁸⁴⁷⁾ 울고,

하나님도 아옵신지, 백일⁸⁴⁸⁾은 어디 가고 음운⁸⁴⁹⁾이 자욱하여

A sad thing triggers tears. This person will go to a place of no return.

The lady hugs Sim Cheong.

"If you go now, when are you coming back? Tell me when you will come back."

**28. (Leaving with the Sailors.) Sim Cheong cries sadly
as she leaves with the sailors.**

[Aniri] After saying goodbye, she comes back home.

Mr. Sim frantically runs and tumbles. The sailors press her to leave.

Sim Cheong asks senior villagers to take care of her father and leaves.

[Jungmori] Sim Cheong follows the sailors. She follows the sailors.

She holds up her trailing skirt again and again.

Her tears fall down like rain and soak her clothes.

She trips and falls over. She hurriedly follows the sailors.

She looks over at the neighboring village. "The second daughter in Mr. Lee's family!

Do you remember we had good time on May 5th last year, picking up cherries?

You asked me to pray for a god at night of July 7th this year. It is futile now.

Whom will you sew and embroider with from now on?

You have parents. Be happy with them.

Today I parted with my father, and I am going to die."

All villagers weep till their eyes swell.

God must know this situation too. The bright sun is blocked with dark clouds.

청산도 쩡그난 듯,⁸⁵⁰⁾ 초목도 눈물진 듯.⁸⁵¹⁾
 휘늘어져 곱든 꽃이 이울고저⁸⁵²⁾ 빛을 잃고,
 날아가는 저 제비도 나직이⁸⁵³⁾ 떠 지지⁸⁵⁴⁾ 울고 가고,
 춘조⁸⁵⁵⁾는 다정히여 백반제송⁸⁵⁶⁾허는 중으,
 “묻노라 저 찌꼬리, 뉘를 이별하였는지 환우성⁸⁵⁷⁾ 지어 울고,
 뜻밖으 두견이는 ‘귀촉도,⁸⁵⁸⁾ 귀촉도, 불여귀’⁸⁵⁹⁾라
 가지 우으⁸⁶⁰⁾ 앓어 울건마는,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내가 어찌 돌아오리?”
 한 곳을 당도허니, 광풍⁸⁶¹⁾이 일어나며
 해당화 한 송이가 떨어져 심청 얼굴에 부딪치니, 꽃을 들고 허는
 말이,
 “약도춘풍불해의면 하인취송낙화래랴?⁸⁶²⁾
 한무제 수양공주 매화장은 있건마는,⁸⁶³⁾
 죽으로 가는 몸이 언제 다시 돌아오리?
 죽고 싶어 죽으라마는 수원수구⁸⁶⁴⁾를 어이 허리?”
 질⁸⁶⁵⁾ 걷는 줄을 모르고 울며불며 길을 걸어, 강변⁸⁶⁶⁾을 당도허니,
 선두⁸⁶⁷⁾에다 도판⁸⁶⁸⁾을 놓고서 심청을 인도허는구나.

29. (범피중류) 심청이 인당수를 향해 배를 타고 가며, 주변 의 경관을 보고 슬퍼한다.

[아니레] 심청을 배 안에 싣고 행선⁸⁶⁹⁾을 하여 가는데,
 [진양조] 범피중류⁸⁷⁰⁾ 등덩실⁸⁷¹⁾ 떠나간다.
 망망헌⁸⁷²⁾ 창해⁸⁷³⁾이며, 탕탕헌⁸⁷⁴⁾ 물결이라.

The mountains appear to frown. The grasses look like weeping.
 Beautiful drooping flowers lose their color.
 A passing swallow flies low and chirps.
 All spring birds are warmhearted to sing sad songs.
 "I ask you, nightingale. Did you bid farewell to somebody? Why
 are you singing so sadly?
 Unexpectedly, a cuckoo says, 'No return. No return.
 It cries hard, sitting on a branch.
 But how will I come back when I was sold at a price?"
 They arrive at a certain place. A strong wind blows.
 A petal of a sweetbrier flies on to Sim Cheong's face. She grabs
 it and says,
 "If the spring wind doesn't know how I feel, why would it send
 the falling petal to me?
 An ancient princess once decorated herself with ume blossoms.
 But I am leaving to die. When will I come back?
 I am dying not because I want to. But whom can I resent?"
 She walks in tears without knowing she is walking. They arrive
 by a river.
 They put a plank between the land and the bow, and lead Sim
 Cheong.

**29. (Drifting Along in the Sea.) On the boat to Indang
 Water Sim Cheong feels sad as she looks around
 the beautiful scenery.**

[Aniri] The sailors lead Sim Cheong to a seat inside the boat
 and depart.

[Jinyangjo] The boat drifts along in the middle of the sea.
 The sea is wide and vast. The waves are strong.

백빈주⁸⁷⁵) 갈매기는 홍요안⁸⁷⁶)에 날아들고,
 삼강⁸⁷⁷)의 기러기는 한수⁸⁷⁸)로 돌아든다.
 요량현⁸⁷⁹) 남은 소리 어적⁸⁸⁰)이 여기련만,⁸⁸¹)
 곡종인불견에 수봉만 푸르렀다.⁸⁸²)
 애내성중만고수⁸⁸³)는 날로⁸⁸⁴) 두고 이름인가?
 장사⁸⁸⁵)를 지내가니 가태부⁸⁸⁶) 간 곳 없고,
 먹라수⁸⁸⁷)를 바라보니 굴삼려⁸⁸⁸) 어복충훈⁸⁸⁹) 무량⁸⁹⁰)도 하시든가?
 황학루⁸⁹¹)를 당도허니 일모향관하치시오?
 연파강상사인수⁸⁹²)는 최호⁸⁹³)의 유적⁸⁹⁴)이요,
 봉황대⁸⁹⁵)를 돌아드니 삼산반락청천외요,
 이수중분백로주⁸⁹⁶)는 태백의⁸⁹⁷) 노든⁸⁹⁸) 데요,
 심양강⁸⁹⁹) 당도허니 백낙천⁹⁰⁰) 일거 후에⁹⁰¹)
 비파성⁹⁰²)이 끊어졌다.
 적벽강⁹⁰³)을 당도허니 소동파⁹⁰⁴) 놀든⁹⁰⁵) 풍월⁹⁰⁶)
 의구허여⁹⁰⁷) 있다마는,
 조맹덕⁹⁰⁸) 일세지웅⁹⁰⁹) 이금에 안재재오?⁹¹⁰)
 월락오제⁹¹¹) 깊은 밤에 고소성외⁹¹²) 배를 매니,
 한산사⁹¹³) 쇠북소리⁹¹⁴) 객선에⁹¹⁵) 텅텅 들리난 듯.⁹¹⁶)

Seagulls fly from an island of white flowers to a hill of water pepper.

Geese from three big rivers come back to another big river.
A clear sound is heard from a distance. It must be the sound of a pipe by a fisherman.

When the sound stops, there are only green mountain peaks.
The oars make sad sounds as if they were about Sim Cheong.
The boat passes by a certain place where a famous ancient official has gone.

A big river is seen. A famous ancient Chinese poet became food for fish there. How is he doing now?

The boat arrives at a famous pavilion. The sun has set. Is my hometown far?

A wet fog rising up from a river intensifies anxiety. That is the trace of the ancient Chinese poet, Cui Hao(崔灏).

The boat reaches a famous tower. Three Mountain peaks rise up through the clouds.

Two rivers flow around the island. Another famous ancient Chinese poet, Li Bai(李白), enjoyed himself here.

The boat comes up to another famous river where another famous ancient poet, Bai Le Tian(白樂天), has gone.

So has the sound of the lute.

The boat arrives at another famous river where another famous ancient poet, Su Dong Po(蘇東坡), enjoyed himself.

The beautiful scenery has not changed.

Where is the famous one-time hero, Cao Cao(曹操), who was here?

It is deep night when the moon has set and a crow cries. The boat stops near a famous fortress.

The sound of a bell from a buddhist temple reaches the traveler's ears.

진회수⁹¹⁷⁾를 당도하니,
 격강의⁹¹⁸⁾ 상녀⁹¹⁹⁾들은 망국한⁹²⁰⁾을 모르고서,
 연룡한수월룡사에⁹²¹⁾ 후정화⁹²²⁾만 부르는구나.⁹²³⁾
 악양루⁹²⁴⁾ 높은 집이 호상의⁹²⁵⁾ 솟았는 듯,
 무산⁹²⁶⁾의 돋는 달은 동정호⁹²⁷⁾로 비쳐오니,
 상하천광⁹²⁸⁾이 거울⁹²⁹⁾ 속에 푸르렀다.
 창오산⁹³⁰⁾이 아득하니, 황릉묘⁹³¹⁾ 잠겼어라.
 삼협⁹³²⁾의 잔나비⁹³³⁾는 자식을 찾는 슬픈 소리,
 천객⁹³⁴⁾소인⁹³⁵⁾이 눈물을 몇몇이나 빗었는가?
 팔경을 다 본 후로

30. (원혼 만남) 심청이 배를 타고 가며 열녀와 충신들의 원혼을 만난다.

[중모래] 또 한 곳을 당도하니,
 향풍⁹³⁶⁾이 일어나며 죽림⁹³⁷⁾ 사이로 옥패⁹³⁸⁾소리 들리더니,
 어떠한 두 부인이 선관⁹³⁹⁾을 높이 쓰고 신음거려⁹⁴⁰⁾ 나오더니,
 “저기 가는 심소저⁹⁴¹⁾야! 나의 말을 듣고 가라.
 창오산봉상수절이라야 죽상지루내가멸이라.⁹⁴²⁾
 천추⁹⁴³⁾의 깊은 한을 호소할 곳 없었더니,
 오늘날 출천대효⁹⁴⁴⁾ 너를 보니 오죽이나 음전허냐?⁹⁴⁵⁾
 요순 후 기천 년⁹⁴⁶⁾ 지금은 천자 어느 뉘며,⁹⁴⁷⁾
 오현금⁹⁴⁸⁾ 남풍시⁹⁴⁹⁾를 지금까지 전허더냐?
 수로⁹⁵⁰⁾ 천 리 먼먼 길을 조심하여 잘 가거라.”

The boat gets to a famous canal,
 Bar girls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did not mourn the fall
 of their country.
 When the thick fog was over the cold river and the bright moon
 was above the white sand, they only sang songs.
 A tower is high as if it soared from a lake.
 The moon rising over a mountain is reflected on a lake.
 The blue sky is reflected on the lake like a mirror.
 Smoke on a mountain covers the shrine of the two queens: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The apes of San Xia(三峡) valley sadly call their children,
 squeezing out tears from the relegated official and poet.
 Sim Cheong finishes watching Eight Scenes.

30. (Meeting Vindictive Spirits) Sim Cheong meets the souls of faithful women and loyal subjects on the boat.

[Jungmori] The boat reaches a certain place.
 A fragrant wind blows. Clear sounds of jewels are heard.
 Two ladies wearing divine hats groan as they come out.
 “Hello there, Miss Sim. Please listen to our story.
 After the mountain collapses and the river dries up, our tears
 on the bamboo will disappear.
 We had nobody to talk with about our old griefs.
 Today, we saw you, a good daughter. You look graceful.
 Thousands of years have passed since our kings, Yao(堯) and
 Shun(舜), died. Who is the king now?
 Were his pentachord and poem passed onto us today?
 Take care on your long journey on the sea.”

이난 년고허니⁹⁵¹⁾ 요녀순처 만고열녀 이비로구나.⁹⁵²⁾
 오강⁹⁵³⁾을 바빠 건너 또 한 곳을 당도허니,
 광풍⁹⁵⁴⁾이 대작하고⁹⁵⁵⁾ 찬 기운이 소삽터니⁹⁵⁶⁾
 어떠한 신이 나오는다, 키는 구 척이나 되고, 면여거륜⁹⁵⁷⁾하야
 미간이 광활허고,⁹⁵⁸⁾ 두 눈을 감고, 가죽을 무릅쓰고⁹⁵⁹⁾
 우루루루루루루루 나오더니, “저기 가는 심소저야! 슬픈 말을 듣고
 가라.
 슬프다, 우리 오왕, 자란⁹⁶⁰⁾의 참소 듣고
 속루검⁹⁶¹⁾을 나를 주어 목 찢러 죽인 후에,
 가죽으로 몸을 싸 이 물에 던졌더니,
 장부의 원통함이 월병이 멸오함을 보려고,⁹⁶²⁾
 내 일찍 눈을 빼어 동문상에다 달고 왔네.⁹⁶³⁾
 세상에 나가거든 내 눈 찾아 전해주소.
 천추의 원통헌 것, 눈 없는 것이 한이로세.”
 홀연 간 곳 없고 물결만 와르르르르 출렁출렁.
 맥라수⁹⁶⁴⁾를 당도허니 어떠한 두 신⁹⁶⁵⁾이 나오는다,
 슬피 통곡 우는 말이,
 “진나라 속임 입어 삼년 무관의 고국을 바라보며⁹⁶⁶⁾ 미귀혼⁹⁶⁷⁾이 되
 었더니,
 박랑퇴성⁹⁶⁸⁾ 반겨 듣고
 속절없는 동정 달에⁹⁶⁹⁾ 헛 춤만 추었노라.”⁹⁷⁰⁾
 뒤로 오는 한 사람은 왕자⁹⁷¹⁾의 기상이나
 얼굴이 초췌⁹⁷²⁾허고 형용⁹⁷³⁾이 고고⁹⁷⁴⁾허니, 이는 초나라 굴원⁹⁷⁵⁾
 이라.
 ‘죽은 지 수천 년에 정백⁹⁷⁶⁾이 남아 있어 사람의 눈에 와서 보이니,

They are the two faithful queens of ancient times, E Huang(娥皇)
and Nu Ying(女英).

The boat quickly passes by the Wu(烏) River and arrives at a
certain place.

A strong wind makes large waves. A cold energy is felt.

A god shows up. He is nine feet tall. His face is as large as
a wheel.

The space between his eyebrows is wide. His eyes are closed.
His body is wrapped with leather.

He runs out quickly. "Hello there, Miss Sim! Please listen to my
sad story.

I resent my king. He listened to a false charge by a premier.
The king gave me a sword to slit my own throat.

My body was wrapped up with leather and thrown into this
river.

I was so resentful that in order to watch the downfall of my
country,

I gouged out my eyes and hung them on the east gate.

If you go out to the world, find my eyes for me.

I am resentful forever because I don't have eyes."

He suddenly disappears. Only waves are heard.

The boat now arrives at a big river. Two men show up.

One of them says in a sad voice,

"Deceived by my rival country, I died while missing my country
for three years.

I was glad to hear the sound of an iron hammer.

I danced in vain when the moon was reflected on the lake."

The other man behind him appears to be a king.

His face is haggard. He looks thin and lean. He is an ancient
scholar, Qu Yuan(屈原).

'Souls of people who died thousands of years ago are seen to
human eyes.

이도 또한 귀신이라. 내가 죽을 징조로구나.’
 [진양조] 배의 밤이 몇 밤이며,
 물의 날이 몇 날이나 되든고?
 무정한 사오삭⁹⁷⁷⁾을 물과 같이 흘러가니,
 금풍삽이석기허고 옥우괵이쟁영이라.⁹⁷⁸⁾
 낙하는 여고목제비허고 추수공장천일색이라.⁹⁷⁹⁾
 강안에 굴농 황금이 천편,⁹⁸⁰⁾ 노화에 풍기허니 백설이 만점이라.⁹⁸¹⁾
 심포세류⁹⁸²⁾ 지는 앞은 만강추풍⁹⁸³⁾ 흐날리고,⁹⁸⁴⁾ 옥로청풍⁹⁸⁵⁾이 불
 었난디,
 외로울사 어선들은 등불을 돋오 키고⁹⁸⁶⁾ 어가⁹⁸⁷⁾로 화답허니, 돋우나
 니 수심이요,
 일발청산⁹⁸⁸⁾은 봉봉이 칼날 되어 녹는 것이 간장이라.⁹⁸⁹⁾
 일락장사추색원허니, 부지하처조상군고?⁹⁹⁰⁾
 송옥⁹⁹¹⁾의 비추부⁹⁹²⁾가 이에서⁹⁹³⁾ 슬프리오?
 동녀⁹⁹⁴⁾를 실었으니 진시황의 채약 뵈가?⁹⁹⁵⁾
 방사⁹⁹⁶⁾는 없었으나 한무제⁹⁹⁷⁾의 구선⁹⁹⁸⁾인가?
 “지례⁹⁹⁹⁾ 내가 죽자허니 선인들이 수직¹⁰⁰⁰⁾을 허고,
 살아 실려 가자고 허니 고국이 창망¹⁰⁰¹⁾이로구나.”

So he must be a spirit too. This is a sign that I will die.
[Jungmori] How many nights did I spend on the boat?
 How many days did I spend on the sea?
 Several cruel months have already passed like an arrow.
 The cool fall wind blows in the evening. The wide sky is bright.
 A lonely bird flies along with the evening glow. The clear water
 and the high sky of fall are of the same color.
 Tangerines on the bank of a river are like numerous pieces of
 gold. White flowers are scattered by a wind like snow.
 Fall winds disperse the leaves of the willows around a river. The
 leaves contain a clear dew and a cool wind.
 Lonely fish boats hang lamps high and respond with a fishing
 song. What rises up is anxiety.
 The green peaks look sharp like swords. They make Sim
 Cheong anxious.
 The sun sets in the late fall. Where should I pay a tribute to
 the two queens of ancient China: E Huang(娥皇) and Nu Ying(女
 英).
 Would the poem by an ancient poet be sadder than this?
 Girls are on the boat. So is it an ancient emperor's boat in search
 of herb?
 The students of Taoism are not on the boat. Is it another ancient
 emperor's boat in search of god?
 "I want to kill myself, but the sailors are watching me.
 I want to go back alive, but my country is far from here."

31. (인당수 투신) 인당수에 당도하여 심청은 아버지 눈뜨 기를 빌면서 물로 뛰어든다.

[옛모래] 한 곳 당도허니 이는 곧 인당수라.
광풍이 일어나며 어룡¹⁰⁰²이 싸우난 듯,
대천바다¹⁰⁰³ 한가운데 닻¹⁰⁰⁴ 잃고, 노¹⁰⁰⁵ 잃고, 용총줄¹⁰⁰⁶ 끊
어져,
안개 뒤섞여 저저진¹⁰⁰⁷ 날,
갈 길은 천 리 만 리나 남고, 사면이 검어 어둑 점글어져¹⁰⁰⁸ 천지
적막헌디,
까치늪¹⁰⁰⁹ 떠들어와 뱃전머리¹⁰¹⁰ 탕탕,
물결이 와르르르르르 출렁출렁.
도사공¹⁰¹¹ 영좌¹⁰¹² 이하 황황급급¹⁰¹³하야 고사기계¹⁰¹⁴를 차린다.
섬쌀¹⁰¹⁵로 밥 짓고, 온 소¹⁰¹⁶ 잡고,
동이술,¹⁰¹⁷ 오색 탕수,¹⁰¹⁸ 삼색 실과¹⁰¹⁹를 방위 찾아서 갈라놓고,
산 돌¹⁰²⁰ 잡아 큰 칼 꽃아 기는 듯이 받쳐놓고, 도사공 거동 보소.
의관¹⁰²¹을 정히¹⁰²² 쓰고, 복채를 양 손으 쥐고.
[자진모래] 복을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등 등 등 두리
둥 두리둥.
“헌원씨¹⁰²³ 배를 무어¹⁰²⁴ 이제불통¹⁰²⁵ 현 연후에,¹⁰²⁶
후생¹⁰²⁷이 본을 받아 다 각기 위업¹⁰²⁸을 허니
막대한 공 이 아닌가?
하후씨¹⁰²⁹ 구년 치수¹⁰³⁰ 배를 타고 다사릴¹⁰³¹ 제,
오복의 정한 공수¹⁰³² 구주¹⁰³³로 돌아들고,
오자서¹⁰³⁴ 분오할 제¹⁰³⁵ 노가로 건네주고,¹⁰³⁶

31. (Jumping into Indang Water.) Sim Cheong reaches
Indang Water. After the ritual, she jumps into the
water, wishing that her father opens his eyes.

[Eonmori] They arrive at a certain place. This is Indang Water.
A strong wind blows. It seems as if a fish and a dragon fought
with each other.

In the middle of the vast sea, they lost the anchor and oars.
The string holding the sail is cut off.

A heavy fog moves around.

They have a long way to go. It is dark in all four directions.
The sky and the sea are desolate.

Strong currents hit hard on the bow of the boat.

Waves run wildly around the boat.

The leader of the sailors and the rest quickly prepare for a rite.
They cook a bag of rice. A sound cow is killed.

A jar of wine, soups of various colors, and diverse fruit are put
in appropriate places.

A live pig is slaughtered. It is hung on a big knife. Behold the
leader of the sailors.

He puts on formal clothes and holds two drumsticks.

[Jajinmori] The drum creates sounds: tom-tom, boom-boom.

“A king of ancient China made a boat, connecting two separated
places.

Some people followed him and became sailors.

Isn't this a great accomplishment?

Yu(禹), the king of ancient China, dealt with flood for nine years
on a boat.

He levied taxes on five areas and shipped them to nine areas.

When a warrior of ancient China fled, he crossed the river with
a boat song.

해성의 패한 장수¹⁰³⁷ 오강¹⁰³⁸으로 돌아들어 우선대기¹⁰³⁹ 건네
 주고,
 공명¹⁰⁴⁰의 탈조화¹⁰⁴¹는 동남풍 빌어내어
 조조의 백만 대병 주유¹⁰⁴²로 화공¹⁰⁴³을 허니,
 배 아니면은 어이허리?”
 그저 북을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두리둥
 등 등.
 “주요요이경양¹⁰⁴⁴하니 도연명¹⁰⁴⁵의 귀거래,¹⁰⁴⁶
 해활하니 고범지¹⁰⁴⁷난 장한의 강동거¹⁰⁴⁸요,
 임술지추칠월¹⁰⁴⁹에 소동파¹⁰⁵⁰ 놀아 있고,
 지국충충¹⁰⁵¹ 어사와¹⁰⁵²허니
 고예승류무정거¹⁰⁵³난 어부의 즐겁,¹⁰⁵⁴
 계도란예화정표난 오희월녀채련주요,¹⁰⁵⁵
 타고 발선¹⁰⁵⁶허고 보니 상고선¹⁰⁵⁷이 이 아니냐?
 우리 선인 스물네 명 상고¹⁰⁵⁸를 위업¹⁰⁵⁹하야
 경세우경년¹⁰⁶⁰의 표박서남¹⁰⁶¹을 다니다가,
 오늘날 인당수 인제수¹⁰⁶²를 드리오니,
 동해신 아명¹⁰⁶³이며, 서해신 거승¹⁰⁶⁴이며,
 남해신 청룡이며, 북해신 흑룡이며,
 강한지장¹⁰⁶⁵과 천택지군¹⁰⁶⁶이 하감¹⁰⁶⁷하여 보옵소서.
 비림¹⁰⁶⁸으로 바람 주고, 화락¹⁰⁶⁹으로 인도하야
 환난¹⁰⁷⁰ 없이 도우시고, 백천만금¹⁰⁷¹ 퇴¹⁰⁷²를 내어
 돛대 위에 봉기¹⁰⁷³ 꿇고, 봉기 위에 연화¹⁰⁷⁴ 받게 점지허여 주옵
 소서.”
 고사를 다 모신 후에, “심낭자 물에 들어라!” 성화같이 재촉허니,

A defeated warrior of ancient China, Xiang Yu(項羽), came to
 a river and crossed it for a future counterattack.
 An ancient military strategist created a southeast wind.
 He had a warrior attack a million troops with fire on a river.
 All these things were possible thanks to boats.”
 The leader hits the drum: tom-tom, boom-boom.
 “An ancient poet said a boat shakes and moves forward.
 Another ancient poet said a lonely sailing boat leaves slowly on
 the vast sea.
 Another ancient poet wrote a great poem on a boat in autumn.
 Let’s pull up the anchor and row the boat.
 It is a fisherman’s fun to stop rowing and follow the current
 forever.
 In ancient times, some women picked up lotus from a boat on
 a river.
 We sailed on this business boat.
 We, 24 sailors, took to doing business as our profession.
 We traveled many places for several years.
 Today, we offer a human sacrifice at Indang Water.
 The god of the east sea, the god of the west sea,
 the blue dragon of the south sea, the black dragon of the north
 sea,
 the generals of rivers, and the kings of streams and ponds,
 please take good care of us.
 Give us a wind from the god of the wind, lead us to peace and
 happiness,
 protect us from only disasters, help us make a lot of profits,
 and help us hang the banner of success and a lotus flower on
 our mast!”
 The rite is over. “Miss Sim, get into the water!” He presses her
 hard.

심청이 기가 맥혀, “ 여보시오, 선인님네, 도화동이 어디쯤이나 있소?”
 도사공이 나서더니 손을 들어서 가리키난다,¹⁰⁷⁵⁾
 “도화동이 저기 운애¹⁰⁷⁶⁾만 자옥헌 데가, 저기가 도화동이오.”
 심청이 기가 막혀 두 손을 합장하고 뱃장¹⁰⁷⁷⁾ 안에 엎드지며,¹⁰⁷⁸⁾
 “아이고, 아버지! 불효여식 청이는 요만꿈도¹⁰⁷⁹⁾ 생각을 마옵시고,
 어서어서 눈을 떠서 대명천지¹⁰⁸⁰⁾ 다시 보고,
 좋은 곳 장가들어 아들 낳고, 딸을 낳아, 후사¹⁰⁸¹⁾를 전케 하옵소서.”
 “어서 급히 물에 들라!”
 [회모래] 심청이 거동 보라.
 바람 맞은 팽이처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정신없이 나가더니,
 초마¹⁰⁸²⁾ 자락 무릅쓰고, 새별¹⁰⁸³⁾같은 눈을 감고, 보금니¹⁰⁸⁴⁾를 아
 드드득.
 만경창과¹⁰⁸⁵⁾ 갈매기격으로¹⁰⁸⁶⁾ 뗏다 물에 가 ‘퐁!’

32. (선인 탄식) 심청이 물에 빠진 후 이를 지켜보던 선인들이 울며 떠나간다.

[진양조] 빠져놓으니. 향화¹⁰⁸⁷⁾는 광풍에 호날리고,¹⁰⁸⁸⁾ 명월은 해
 문¹⁰⁸⁹⁾에 잠겼도다.
 영좌¹⁰⁹⁰⁾도 울고, 사공도 울음을 울고, 격군¹⁰⁹¹⁾ 화장¹⁰⁹²⁾이 모도 운다.
 “장사도 좋거니와 우리가 연년이¹⁰⁹³⁾ 사람을 사다가 이 물에 넣고
 가니,
 우리 후사가 어찌 잘 될 리가 있겠느냐?
 닷 감어라. 어기야 어야 어기여 어기야 어야.
 우후청강¹⁰⁹⁴⁾ 맑은 물의, 문노라, 저 백구¹⁰⁹⁵⁾야.

She is struck dumb. "Sailors! Where is Peach Blossom Village?"

The leader steps forward and holds up his fingers.

"Peach Blossom Village is below the thick clouds and fog over there."

Troubled Sim Cheong puts her hands together, and gets down on her knees inside the boat.

"Alas, father! Please don't miss your bad daughter at all.

Please open your eyes and see the bright world.

Please remarry a good woman and have sons and daughters.

So let them succeed the family line."

"Jump into the water now!"

[Hwimori] Behold Sim Cheong!

She is confused and staggers like a top hit by a wind as she proceeds.

She covers her face with her skirt, closes her beautiful eyes, and clenches her teeth.

She jumps heavily into the vast sea like a sea gull.

32. (The Sailors Sigh) Sailors watch Sim Cheong jump into the water, and leave weeping.

[Jinyangjo] Sim Cheong falls into the water. A strong wind scatters the smoke of incense. The full moon is immersed in the horizon.

All sailors — the leader, rowers, assistants, and the cooks — weep.

"Doing business is okay. But every year, we have been sacrificing human beings here.

Would our children be successful?

Pull up the anchor. Yo-heave-ho! Yo-heave-ho! Yo-heave-ho!

The view is great after the rain on the river. I ask you, seagull.

홍요월색¹⁰⁹⁶)이 어는 곳고?¹⁰⁹⁷)

일강세우노평생¹⁰⁹⁸)에 너는 어찌 한가허느냐?”

범피창과¹⁰⁹⁹) 높이 떠서 도용도용¹¹⁰⁰) 떠나간다.

33. (심청 용궁행)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용왕이 물에 빠진 심청을 극진히 모셔 수정궁으로 데려간다.

[아니레 그 때여 옥황상제¹¹⁰¹)께옵서 사해 용왕을 불러 하교¹¹⁰²)히
시되,

“오늘 묘시¹¹⁰³)에 유리국¹¹⁰⁴) 심소저¹¹⁰⁵)가 인당수에 들 터이니,
착실히 모셨다가 인간¹¹⁰⁶)으로 환송하라.”

용왕이 수명¹¹⁰⁷)하고 내려와, 팔선녀를 불러 분부하시되,

“너 이제 백옥교¹¹⁰⁸)를 가지고 인당수를 빨리 나가 묘시를 기다리면,
인간의 심소저가 물에 들 터이니, 착실히 모셔오너라.”

팔선녀들이 백옥교를 가지고 인당수를 당도하니, 때마침 묘시
초¹¹⁰⁹)라,

그때에 심소저는 물에 들 듯, 말 듯.

천지 명랑¹¹¹⁰)하고 일월이 조림¹¹¹¹)커늘,

뜻밖에 팔선녀들이 백옥교를 앞에 놓고 예하며¹¹¹²) 여짜오되,¹¹¹³)

“저희들은 남해 용궁 시녀로서, 부왕의 분부 받아 심소저를 띄시고
저¹¹¹⁴) 왔사오니,

Where does the moonlight shine on the red stems of water peppers in autumn?

How can you spend your whole life leisurely on a rainy river?"

The boat leaves, floating on the blue sea.

33. (Sim Cheong's Heading to the Dragon Palace.)

Under the order of the King of Heaven, the dragon king respectfully takes Sim Cheong to the dragon palace.

[Aniri] In the meantime, the King of Heaven calls and issues an order to the dragon king of the four seas.

"Miss Sim of Yuri Country will jump into Indang Water this morning.

Take her carefully to your dragon palace and resend her to the human world."

The dragon king takes the order and comes down. He calls eight goddesses gives an order.

"Go out quickly to Indang Water with the carriage made of white jade, and stand by there till morning. Sim Cheong will jump into the water. Bring her here carefully."

It is morning when eight goddesses arrive at Indang Water with the carriage.

Meanwhile, Miss Sim vacillates between jumping and not jumping into the water.

The sky is clear and bright with no clouds.

Unexpectedly, eight goddesses speak respectfully with a carriage in front,

"We are maids of the dragon palace of the South Sea. We are here to meet you under the dragon king's order.

이 옥교를 타시옵소서.”

심청이 여짜오되, “인간의 미천¹¹¹⁵)한 몸으로 어찌 옥교를 타오리까?”
“만일 아니 타시오면, 저희들은 수궁 대죄¹¹¹⁶)를 면치 못할 것이오니
사양치 마옵소서.”

심청이 마지못하여 옥교에 앉아놓으니, 뜻밖에 수궁 풍류가 낭자
할 제,

[엇모래 위의¹¹¹⁷)도 장할시구.¹¹¹⁸) 위의도 장할시구.

천상 선녀 선관¹¹¹⁹)들이 심소저를 보라하고,

태을진¹¹²⁰) 학을 타고, 안기생¹¹²¹) 난¹¹²²) 타고,

적송자¹¹²³)는 구름 타. 청의동자,¹¹²⁴) 홍의동자¹¹²⁵) 쌍쌍이 모였
는디,

월궁향아,¹¹²⁶) 마고선녀,¹¹²⁷) 남악부인,¹¹²⁸) 팔선녀들¹¹²⁹)이 좌우로
별엿난디,

풍악을 갖추 제, 왕자 진¹¹³⁰)의 봉피리¹¹³¹) 니나노 나노 불고,

곽처사¹¹³²) 죽장구¹¹³³) 찌지령 쿵 정 쿵, 장자방¹¹³⁴)의 옥통소 뗏띠
루 띠루 리루.

성연자¹¹³⁵) 거문고 등덩기 등 덩.

해강¹¹³⁶)의 해금이며, 곁들여서 노래할 적,

낭자¹¹³⁷)한 풍악소리 수궁이 진동헌다.

패용골이위량하니 영광이 조일이요,

집어린이작와하니 서기 반공이라.¹¹³⁸)

주궁패궐은 응천상지삼광이요,

곤의수상은 비인간지오복이라.¹¹³⁹)

산호 주렴,¹¹⁴⁰) 백옥 안상¹¹⁴¹) 광채도 찬란허다.

Please get on this white jade carriage.”

Sim Cheong responds, “I am a humble human being. How can I get on the carriage?”

“If you don’t get on it, we will be severely punished in the dragon palace. Please don’t decline.”

Sim Cheong has no choice but to get on the carriage. Unexpectedly, the music of the dragon palace spreads.

[Eonmori] How magnificent! How majestic!

Gods and goddesses from heaven want to get a glimpse of Miss Sim.

The highest god is on a crane. Another is on a divine bird. Another is on a cloud. Children in blue and red clothes stand in pairs.

The goddess from the moon, a legendary goddess, a goddess from a mountain, and the eight goddesses are on the left and right.

Music is played. They play a phoenix-shaped pipe,

a brassware-shaped drum, a jade flute,

a six-stringed zither,

and an ancient Korean fiddle. They sing a song with the instrumental accompaniment.

The music trembles the sea palace.

The crossbeam made of dragon bones reflects divine light on the sun.

The roof made of fish scales radiates favorable energy into the sky.

It ornamented with all sorts of jewels. The sun, the moon, and stars shine together.

The king’s embroidered clothes represent the five blessings.

A splendid door blind is made of corals. A lustrous chair is made of white jewels.

주찬¹¹⁴²)을 들일 적에 세상 음식이 아니라.
 유리잔¹¹⁴³) 호박병¹¹⁴⁴)에 천일주¹¹⁴⁵) 가득 담고,
 한가운데 삼천벽도¹¹⁴⁶)를 덩그렇게¹¹⁴⁷) 괴었으니,¹¹⁴⁸)
 세상의 못 본 바라.
 삼일에 소연¹¹⁴⁹)허고, 오일에 대연허며¹¹⁵⁰) 극진히 봉공¹¹⁵¹)한다.

34. (모친 상봉) 심청이 용궁에서 옥진부인이 된 모친과 만난다.

[아니레] 그 때여 천상에서 옥진부인¹¹⁵²)이 내려오시난디, 이는 님
 고¹¹⁵³) 허니,
 심봉사 아내 곽씨부인이 죽어 천상의 광한전¹¹⁵⁴) 옥진부인이 되야,
 심청이 수궁에 왔단 말을 듣고,
 모녀 상봉차¹¹⁵⁵)로 내려오시든가 보더라.
[진양조] 오색채단¹¹⁵⁶)을 기린에다가 가득 실코,
 벽도화¹¹⁵⁷) 단계화¹¹⁵⁸)를 사면에 벌여 꽂고,
 청학, 백학은 전배¹¹⁵⁹) 서고 수궁에 내려오니,
 용왕도 황겁¹¹⁶⁰)하야 문전에서 배례¹¹⁶¹)할 제,
 옥진부인이 들어와 심청 손을 부여잡고,
 “네가 나를 모르리라. 나는 세상에서 너 낳은 곽씨로다.
 너의 부친 많이 늙었으리라.
 나는 죽어 귀히¹¹⁶²) 되어, 광한전 옥진부인이 되었난디,
 너는 부친 눈 띄우라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이 곳에 들어왔다 허기
 로, 너를 보러 내 왔노라.

Divine food and wine are brought in,
Glasses and amber bottles are filled with old wine.
Divine peaches are piled up at the center of the table.
These things can't be seen in the human world.
Sim Cheong is served with small and big feasts every several days.

**34. (Sim Cheong Meets Her Mother.) Sim Cheong
meets her mother in the dragon palace who
became a goddess.**

[Aniri] One day, the goddess of the moon comes down to the sea palace. Who is this goddess?

Mr. Sim's wife, Mrs. Gwak, died and became a goddess of the moon.

She heard that Sim Cheong is in the sea palace.

She is coming down to meet Sim Cheong.

[Jinyangjo] The goddess comes down with a giraffe carrying silks of various colors.

She is decorated with divine blue peach flowers and cinnamon flowers.

She is escorted by a blue crane and a white crane.

The dragon king bows to her at the gate.

The goddess comes in and grabs Sim Cheong's hands.

"You must not know me. I was your mother in the human world.

Your father must be old now.

I became noble after I died. I am now the goddess of the moon.

I heard you are here because you were sold at 300 bags of rice to open your father's eyes. I am here to see you.

귀와 목이 의젓한 게 너의 부친 도습¹¹⁶³허구나.
 세상에서 못 먹든 젓 이제 많이 먹어 보아라.”
 심청 얼굴을 끌어다 가삼¹¹⁶⁴ 대고 문지르며,
 “아이고, 내 새끼야! 꿈이면 깰까 염려로다.”
 그제야 심청이 모친인 줄 짐작하고, 부인의 목을 부여안고,
 “아이고, 어머니! 어머니 이것이 꿈이요, 생시오?
 불효여식 청이는 앞 어두운 백발 부친 홀로 두고 나왔는데,
 외로우신 아버지는 뉘를 의지허오리까?”
 부인이 심청을 만류난디,¹¹⁶⁵
 “내 딸 청아, 우지를 마라.
 너는 일후에¹¹⁶⁶ 너의 부친 다시 만나 즐길 날이 있으리라.
 광한전 맡은 일이 직분¹¹⁶⁷이 허다¹¹⁶⁸키로 오래 지체 못하느니라.
 나는 올라간다마는 내 딸 너도 잘 가거라.”
 옥패¹¹⁶⁹ 소리가 쟁쟁¹¹⁷⁰ 나더니 오색채운¹¹⁷¹으로 올라가니,
 심청이 따라갈 수도 없고, 가는 모친을 우두머니¹¹⁷² 바라보며,
 모녀 작별이 또 되는구나.

35. (심청 환생) 심청이 꽃 속에 환생하여 인당수로 나오니, 지나가던 도사공이 발견한다.

[아니레] 하루는 옥황상제께서 사해 용왕을 불러 또 다시 하교하시되,
 “심소저 방년이 늙어가니

Your ears and neck look stately like your father's.
 Help yourself with my milk you couldn't eat in the human world."
 She pulls Sim Cheong's face to her bosom and rubs her.
 "Oh my sweetheart! I am afraid I might wake up as if this were a dream."
 Sim Cheong now thinks that the goddess is her mother. She hugs the goddess's neck.
 "Oh my mother! Is this a dream or real?
 I, a bad daughter, left my old blind father behind.
 Whom will my lonely father rely on?"
 The goddess consoles Sim Cheong.
 "My daughter, Cheong! Don't cry.
 You will meet your father again in several days, and you will be happy with him.
 I have many things to do on the moon. So I can't stay here for long.
 I am going up. Honey, take care of yourself."
 Clear sounds by jewels are made. The goddess flies up on clouds of various colors.
 Sim Cheong can't follow her. She vacantly watches her going up.
 The mother and the daughter are separated again.

35. (The Reincarnation of Sim Cheong) Sim Cheong is reincarnated in a flower and sent back to Indang Water. The sailors spot the flower.

[Aniri] One day the King of Heaven again calls the dragon king and gives him another order.
 "Miss Sim is old enough to get married.

어서 인당수로 환송하여 인간의 귀한 배필을 정해 주라.”
 용왕이 수명¹¹⁷³⁾하고 심청을 환송¹¹⁷⁴⁾할 제,
 꽃 한 봉¹¹⁷⁵⁾을 조화 있게 만들어
 그 가운데 심청을 모시고, 양대 선녀¹¹⁷⁶⁾로 시위하고,
 조석지공¹¹⁷⁷⁾과 찬수범절¹¹⁷⁸⁾ 금은 보배¹¹⁷⁹⁾를 많이 넣고
 용왕과 각궁 선녀 작별하고 돌아서니, 이는 곧 인당수라.
 용왕의 조화인지라 바람이 분들 흔들리며, 비가 온들 젖을쏘냐?
 주야로 둥덩실 떠 있을 제,
 그 때여 남경 장사 선인들이 억십만금 퇴¹¹⁸⁰⁾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
 올 제,
 인당수를 당도하니 심소저 효행이 홀연¹¹⁸¹⁾ 감동되는지라,
 제물을 정히¹¹⁸²⁾ 차려놓고
 심소저¹¹⁸³⁾ 냇을 한 번 위로하고 가는데, 반 소리요,¹¹⁸⁴⁾ 반 신앙호것
 다.¹¹⁸⁵⁾

[중모레] 북을 두리둥 둥 울리면서, 슬픈 말로 제 지낸다.

“냇이야, 냇이로구나. 이 냇이 뉘 냇인고?
 오장원¹¹⁸⁶⁾에 낙상¹¹⁸⁷⁾하던 공명의 냇도 아니요,
 삼년 무관의 초 회왕¹¹⁸⁸⁾의 냇도 아니요,
 부친 눈을 띄우라고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 되신 심낭자의
 냇이로구나.
 냇이라도 오셨거든 많이 흠향¹¹⁸⁹⁾허옵소서.”
 제물¹¹⁹⁰⁾을 물에 풀고, 눈물 씻고 바라보니,

Send her back to Indang Water quickly and find a good man for her.”

The dragon king hears the order and sends her back to the human world.

He makes a mysterious flower.

She is served by two maids inside the flower.

She is served with good meal day and night. They carry many jewels in the flower.

She says goodbye to the dragon king and his maids. She is at Indang Water now.

It is the work of the dragon king. So wind cannot shake it. Rain cannot soak it.

It is afloat on the water day and night.

Meanwhile, the sailors are on their way back home after making a lot of money.

They reach Indang Water. All of a sudden, they are reminded of Sim Cheong.

They prepare food for a ritual.

They conjure up Sim Cheong's soul to console it.

[Jungmori] The sailors say sad words and hit the drum while holding a rite.

“We are calling up a soul. Whose soul is this?”

It is not the soul of an ancient strategist Kong Ming(孔明) who got hurt from a fall.

It is not the soul of an ancient king who was held in hostage for three years.

It is the soul of Miss Sim who was sold at 300 bags of rice and became a sacrifice at Indang Water to open her father's eyes. If your soul is with us, please help itself with this food.”

The sailors spread the offering over the sea. They wipe their tears.

난데없는 꽃 한 송이 해상¹¹⁹¹)에 등실 떠 있거늘,
 도사공이 보고 허는 말이, “허허, 저것이 금이냐?”
 “금이란 말씀이 당치¹¹⁹²) 않소.
 옛날 진평¹¹⁹³)이가 범아부¹¹⁹⁴)를 잡을랴고, 황금 사만 근을 초군중
 에¹¹⁹⁵) 흘렸으니
 무슨 금이 되오리까?”
 “그러면 저것이 옥이냐?” “옥이란 말씀 당치 않소.
 옥출곤강¹¹⁹⁶) 아니어든 옥 한 쪽이 있으리까?”
 “그러면 저게 해당화냐?” “해당화란 말씀이 당치 않소.
 명사십리¹¹⁹⁷) 아니어든 해당화 어이 되오리까?”
 “그러면 무엇인고? 가까이 가서 보자. 저어라, 저어!”
 “어기야 되여.”¹¹⁹⁸) 저어 가니,
 향취¹¹⁹⁹) 진동허고, 오색채운이 어렸구나.

36. (화초타령) 천자가 꽃을 좋아하여 여기저기 심어놓고 즐기는데, 이를 안 도선주는 바다에서 건져온 꽃을 바 친다.

[아니리] 배에 건져 신고 보니, 크기가 수레 같고, 향취가 진동커늘,
 본국으로 돌아와 재물을 분배허는디,
 허다히¹²⁰⁰) 남은 재물 각기 갖¹²⁰¹)을 나눌 적에,
 도선주는 재물¹²⁰²)을 마다허고
 꽃봉이만 차지하여 후원에 두었구나.
 그때여 송천자¹²⁰³) 황후 홀연 봉¹²⁰⁴)하시사 천자께서는 납비¹²⁰⁵)하
 기 뜻이 없고

Unexpectedly, they spot a flower floating on the sea.
 The leader spots it and asks, "Heavens! Is that gold?"
 "That can't be gold.
 An ancient politician gave tons of gold to soldiers in order to
 arrest an assassin.
 So how can that be gold?"
 "Is that jade, then?" "That can't be jade.
 This place is not the origin of jade. Would there be jade now?"
 "Is that a wild rose, then?" "That can't be a wild rose.
 A sand beach is too far from here. How can that be a wild rose?"
 "Then, what is it? Let's get close to it. Row the boat!"
 "Yo-ho! Yo-heave-ho!" They row to it.
 The fragrant aroma comes from the flower. And colorful clouds
 surround it.

**36. (Flower Song) The emperor loves flowers, and
 enjoys watching them. Knowing this, the owner
 of the boat donates the flower from the sea to
 him.**

[Aniri] They pull it up onto the boat. It is as large as a wheel
 and gives off fragrance.
 They come back to their country and divide their profits.
 They divide their huge profits to themselves.
 The owner of the boat is not interested in the profits.
 He only takes the flower and keeps it in the backyard.
 Meanwhile, the emperor remains unmarried after the queen died
 unexpectedly.

각지¹²⁰⁶) 기화요초¹²⁰⁷)를 걷어 들어
 황극전¹²⁰⁸) 넓은 뜰에 여기저기 심어놓고,
 주야로 구경을 허시는데, 이것이 바로 화초타령이던 것이었다.
[중중모리] 화초도 많고 많다.
 팔월부용군자용¹²⁰⁹) 만당추수의 흥련화,¹²¹⁰
 암향부동월황혼¹²¹¹) 소식 전틴 한매화,¹²¹² 진시유랑거후재¹²¹³)라
 붙어 있다고 복송꽃,¹²¹⁴
 구월구일용산음 소축신 국화꽃,¹²¹⁵
 삼천제자¹²¹⁶)를 강론¹²¹⁷)허니 행단춘풍의¹²¹⁸) 은행꽃,
 이화만지불개문허니 장신궁중 배꽃이요,¹²¹⁹
 천태산¹²²⁰) 들어가니 양변개작약¹²²¹)이요,
 원정부지이별허니 옥창오견의 앵도화,¹²²²
 축국한¹²²³)을 못 이기어 제혈¹²²⁴)허던 두견화,¹²²⁵
 이화,¹²²⁶ 도화,¹²²⁷ 계관화,¹²²⁸ 황국,¹²²⁹ 백국,¹²³⁰ 사계화,¹²³¹
 동원도리편시춘,¹²³² 목동요지가 행화춘,¹²³³
 월중단계무삼경¹²³⁴) 달 가운데 계수나무,
 백일홍, 영산홍, 왜철쭉, 진달화,¹²³⁵ 난초, 파초,¹²³⁶
 오미자, 치자,¹²³⁷ 감과,¹²³⁸ 유자, 석류, 비파,¹²³⁹ 능금, 포도, 머루,
 어름,¹²⁴⁰ 대초,¹²⁴¹
 각색 화초, 갖은 향과¹²⁴²) 좌우로 심었는데,
 향풍¹²⁴³)이 건듯¹²⁴⁴) 불면, 벌, 나부,¹²⁴⁵ 새, 짐생들이 지지울어
 서¹²⁴⁶) 춤을 춘다.

He collected the beautiful flowers and grasses from all around the country.

He planted them in the wide garden of the palace.

He enjoys watching them day and night. This is the Flower Song.

[Jungjungmori] There are many flowers and flowering plants. A lotus flower blooming in August looks like a wise man. A fall pond is full of red lotus flowers.

The fragrance of Japanese apricot wanders in the dim moonlight.

A peach tree was planted by a poet who was expelled from his post.

A chrysanthemum once derided a relegated subject in fall.

Ginkgo blossoms bloomed in spring when Confucius gave a lecture to three thousand students.

A court lady didn't open the gate when pear blossoms were piled up in a palace.

There were peony blossoms that lined both sides of the road of a mountain.

A woman watched cherry blossoms near a window for five years while missing her husband in the battle field.

An azalea threw up blood, overtaken by the grief that its country fell.

There are plum flower, peach blossom, cockscomb, yellow chrysanthemum, white chrysanthemum, and Chinese rose.

A peach blossom and a plum flower bloom briefly in spring.

A shepherd points to a village of apricot blossoms.

A cinnamon tree is on the bright moon.

There are garden zinnia, wild azalea, azalea, irise, plantain, Maximowiczia chinensis, torreyia nut, citron, pomegranate, loquat, apple, grape, wild grape, aclematis berry, and jujube. Diverse flowering plants and fragrant fruit trees are on the left and right.

Bees, butterflies, and birds sing and dance when a gentle breeze blows.

37. (천자 심청 발견) 천자가 꽃을 보며 즐기다가, 꽃 속에서 있는 선녀들을 발견한다.

[아니레] 그 때에 도선주는 인당수에 뗏던 꽃을 어전¹²⁴⁷)에 진상¹²⁴⁸) 하니,

[중모레] 천자 보시고 대희하여,¹²⁴⁹)

“저 꽃이 웬 꽃이냐? 저 꽃 이름이 무엇이고?

요지 벽도화¹²⁵⁰)를 동방삭¹²⁵¹)이 따온 지가 삼천 년이 다 못 되니 벽도화도 아니요,

극락세계 연화꽃이 떨어져서 해상에 둥둥 떠왔는지?”

그 꽃 이름 강선화¹²⁵²)라 지으시고 주야로 구경허실 적에,

일야¹²⁵³)는 천자 심신이 산란하여 화계상을 거닌단디,

뜻밖에 강선화 벌어지며 선녀 둘이 서 있거늘,

천자 괴이히¹²⁵⁴) 여기시어,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시녀 예하며¹²⁵⁵) 여짜오되, “남해 용궁 시녀로서

심소저를 모시고 세상을 나왔다가,

불의에¹²⁵⁶) 천안¹²⁵⁷)을 범하였사오니 황궁무지¹²⁵⁸)로소이다.”

이 말이 지듯마듯¹²⁵⁹) 인홀불견¹²⁶⁰) 간 곳 없고, 한 선녀 서 있거늘,

38. (추월만정) 심청이 황후가 되어, 부친 생각에 눈물짓는다.

[아니레] “네가 인간의 심소저냐?” “예, 지당하오이다.”

궁녀로 시위하고 별궁¹²⁶¹)에 모신지라.

37. (The Emperor Comes across Sim Cheong) While watching his flowers, the emperor comes across goddesses in the flower.

[Aniri] Meanwhile, the owner of the boat donates the flower from Indang Water to the emperor.

[Jungmori] The emperor is joyous to see the flower.

“What flower is that? What is the name of that flower?”

Three thousand years have not passed since an ancient man picked up a divine peach blossom from a pond. So it can’t be a divine peach blossom.

Did the lotus flower come from the paradise via the sea?”

The emperor names it God Descending Flower. He watches it day and night.

One night, he feels uneasy and takes a walk in the garden.

Unexpectedly, God Descending Flower opens up. Two goddesses stand there.

He is surprised. “Are you ghosts or human beings?”

The maids respond, “We are maids from the dragon palace.

We have taken Miss Sim to the world of human beings.

Unexpectedly, we are spotted by you. So I feel nervous.”

The moment they finish, they disappear. Only one goddess is now in the flower.

38. (The Garden with the Bright Full Moon) Sim Cheong becomes an empress and misses her father in tears.

[Aniri] “Are you Sim Cheong of the human world?” “Yes, sure.”

The emperor orders his maids to take her to the residence for empress.

이튿날 조회¹²⁶² 끝에 간밤 꽃 본 사연을 말씀하시니,
 만조대신들이¹²⁶³ 여짜오되, “국모¹²⁶⁴ 없으심을 하느님이 아옵시고
 배필을 나리셨사오니
 즉시 택일하여 국모로 정하시옵소서.”
 그 말이 옳다하고 국모로 정하였구나.
 심황후 입궁¹²⁶⁵ 후에 연년이 풍년이요, 가가호호¹²⁶⁶ 태평이라.
 요순천지¹²⁶⁷ 다시 보고, 선강직거¹²⁶⁸ 되었더라.
[창조] 그 때여 심황후 부귀는 무쌍이나¹²⁶⁹ 부친 생각이 나날이 깊어
 가는디,
 하루는 옥난간¹²⁷⁰에 높이 앉어,
[진양조] 추월은 만정허여¹²⁷¹ 산호 주렴¹²⁷²에 비치어 들 제,
 청천¹²⁷³의 외기러기는 월하에¹²⁷⁴ 높이 떠서
 ‘뚜루루루루 길룩’ 울음을 울고 가니,
 심황후 기가매혀 기러기 불러 말을 한다.
 “오느냐? 저 기럭아. 소중랑 북해상의 편지 전된 기러기냐?¹²⁷⁵
 도화동을 가거들랑 불쌍하신 우리 부친전에 편지 일 장 전하여라.”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쓰랴할 제,
 한 자 쓰고 눈물 짓고, 두 자 쓰고 한 숨 쉬니,
 눈물이 먼저 떨어져서 글자마다 수목¹²⁷⁶이 되니, 언어가 오착¹²⁷⁷이
 로고나.
 편지 접어 손에 들고 문을 열고 나서보니, 기러기는 간 곳 없고,
 창망¹²⁷⁸헌 구름 밖에 별과 달만 두렷이¹²⁷⁹ 밝았구나.

After the formal meeting in the following morning, he tells his subjects that he saw the flower last night.

The subjects say, "God knows we don't have an empress, so he sent one to us.

Please select the wedding date and take her as the empress."

Thinking that is right, the emperor appoints her as the empress.

After Empress Sim entered the palace, they have good harvest every year and every family is happy.

It looks as if good old days came back, and the country became a good place for a god to live in.

[Song Mode] Meanwhile, Empress Sim lives a noble life, but she misses her father more and more day by day.

One day, she sits on the jade terrace.

[Jinyangjo] The garden is bright with the fall moon. The moonlight comes in through the coral blinds.

A lonely wild goose flies high in the clear sky.

It cries sadly as it flies away.

Empress Sim is dumfounded and speaks to the wild goose.

"Wild goose, over there! Are you the wild goose who sent an ancient diplomat's letter to his country?

If you go to Peach Blossom Village, send a letter to my poor father."

Empress Sim goes in her room to write a letter.

She writes one character and sheds tears. She writes another character and sighs.

Tears drop on the letter, making the characters blotted. So characters are mixed up.

She folds the letter, opens the door, and walks out. She finds out that the wild goose is gone.

Only stars and the moon twinkled brightly beyond the clouds far away.

39. (맹인 잔치 마련) 천자는 백일 동안 맹인 잔치를 열 것을 명하고, 심청은 부친이 오기를 기다린다.

[아니리] 이때에 천자 내궁¹²⁸⁰)으로 들어가
황후를 살피시니, 황후 수색¹²⁸¹)이 만면¹²⁸²)하야
괴이히 여겨 물으시니,
심황후 여짜오되, “천하막비왕토¹²⁸³)요
솔토지민이 막비왕민¹²⁸⁴)이나,
이 세상 불쌍한 것은 맹인이라.
원컨대 폐하께서는 천하 맹인을 불러들여, 한 때 위로함이 어떠할까
하옵니다.”
천자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맹인잔치를 여시는데,
각 도 각 읍으로 행관¹²⁸⁵)하되,
“대소 인민간에¹²⁸⁶) 맹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골 수령은 봉고파직¹²⁸⁷)허리라.”
각처로 전령¹²⁸⁸)하였구나.

40. (심봉사 딸 생각) 한편, 심봉사는 딸을 잃고 눈물로 세 월을 보낸다.

[진양조] 그 때여 심봉사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근근도생¹²⁸⁹)
지내갈 제,
무릉촌 승상 부인이 심소저를 보내시고, 강두¹²⁹⁰)에다 망사대¹²⁹¹)를
지어놓고 연년이¹²⁹²) 제향혈 제¹²⁹³),
도화동 사람들도 심소저 효행에 감동되어

39. (Throwing a Banquet for the Blind) The emperor orders to throw a banquet for the blind. Sim Cheong waits for her father to show up.

[Aniri] The emperor visits the empress's residence.
He perceives the anxiety in the empress's face.
Thinking it to be unusual, he asks a question.
The empress replies, "Every piece of the land belongs to you.
All people in this country are your people.
The blind are the most miserable people in the world.
Why don't Your Majesty invite the blind to the palace and console them?"
The emperor praises the empress, and orders to throw a party for the blind.
He sends out an official letter to every provincial office.
"Make sure that all the blind people, young or old, join the banquet for the blind.
If a blind person fails to attend the banquet, the governor of the relevant district will be fired."
The order is delivered to officials all over the country.

40. (Mr. Sim Misses his Daughter.) Meanwhile, Mr. Sim spends time shedding tears after losing his daughter.

[Jinyangjo] Meanwhile, Mr. Sim, a die-hard person, manages to live on.
After Sim Cheong left,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built a tower near the ferry and holds a ritual every year.
The villagers were also touched by Sim Cheong's filial piety.

망사대 곁에다 타루비¹²⁹⁴)를 세워놓고 춘추로 제향할 제,
 비문에 하였으되, ‘지우노친평생한허여 살신성효행선거라.
 연파만리상심벽허니 방초년년환불귀라.’¹²⁹⁵
 이렇듯 비문을 하여 세워 놓으니,
 오고가는 행인들도 뉘 아니 슬퍼허랴?
 일일도 심봉사 마음이 산란허여
 지팽막대¹²⁹⁶)를 홀어 짚고,¹²⁹⁷) 더듬더듬 타루비를 찾아가서,
 “후유! 아이고, 내 자식아! 내가 또 왔다.
 너는 내 눈을 띄우라고 수중고혼¹²⁹⁸)이 되고,
 나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이 지경이 웬 일이란 말이나?
 날 다려가거라!¹²⁹⁹) 나를 잡아가거라!
 삼신¹³⁰⁰) 부라퀴¹³⁰¹)야, 나를 잡아가려무나.
 살기도 나는 귀찮히고, 눈 뜨기도 내사 싫다.”
 비문 앞에 가 엎드려져서, 내리둥굴¹³⁰²) 치둥굴¹³⁰³)며,
 남지서지¹³⁰⁴)를 가리키는구나.

41. (뽕덕이네 생김새와 행실) 이웃에 사는 뽕덕이네는 심 봉사에게 자원출가하였는데, 얼굴이 박색이고 행실이 심술궂다.

[아니레] 이렇듯이 낮이면 강두에 가 울고, 밤이면 집으로 돌아와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심봉사 의식은 겨우 건디나,
 사고무친¹³⁰⁵) 수족¹³⁰⁶) 없어 사람 하나를 구하려 하느디,
 마침 본춘¹³⁰⁷) 사는 한 여인이 있느디, 호¹³⁰⁸)가 뽕과였다.

They built a memorial stone near the tower, and hold a ritual every fall and spring.

The memorial stone reads, 'She was so sympathetic to her father's wish that she left on board to achieve filial piety by killing herself.

The water is always blue and deep with fog. Flowers and grasses become green every year, but she does not come back.

The epitaph is inscribed on the memorial stone as above.

Would there be a passerby who does not feel sad?

One day, Mr. Sim feels uneasy.

He manages to walk to the tower with the help of his cane.

"Oh God! Oh, my daughter! I am here again.

You became a lonely soul in water to open my eyes.

My life is cruelly persistent. I can't believe what happens to me.

Please take me there. Please take me there.

Ghosts, take me there quickly.

I don't want to live. I don't want to open my eyes."

He gets down in front of the monument. He rolls over, up and down.

His finger points to this and that direction randomly.

**41. (Bbaengdeok's Appearance and Behavior) Bbaengdeok,
a female neighbor, voluntarily marries Mr. Sim.
She is ugly and does bad things.**

[Aniri] Mr. Sim cries near the ferry during the day. He cries again when he is back home at night.

He spends his days and nights crying. Mr. Sim's gets by.

But he has no one to turn to, so he wants to get a woman.

At that time, there lives a woman in the village. Her nickname is Bbaengdeok.

이 여자는 심봉사가 전곡¹³⁰⁹)깨나¹³¹⁰) 있단 말을 듣고
 누가 중매할 것도 없이 그냥 자원출가¹³¹¹)를 했는가 보더라.
 그러나 이 여자의 입정¹³¹²)과 행실이 꼭 이렇게 되어먹었었다.
[자진모리]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먹고, 쌀 퍼 주고 고기 사먹고,
 통인¹³¹³) 잡고 쾌악하고,¹³¹⁴)
 정자 밑에 낮잠 자고, 한밤중 울음 울고,
 오고기는 행인들께 담배 달라 실랑이허기.
 뻘쭙¹³¹⁵)허면 뻘쭙¹³¹⁶)허고, 뻘쭙허면 뻘쭙허고, 힐끗¹³¹⁷)허면 힐
 곳¹³¹⁸)허고, 핏끗허면 핏끗허고,
 남의 혼인허랴 허고 단단히 믿었는디 휘담¹³¹⁹)을 잘 허기와
 신부 신랑 잡자는디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문 앞에 들어서서 손뼉치고,
 ‘불이여!’
 이리 허여도 심봉사는 아무 물색을 모르고,
 어떻게 탁정¹³²⁰)이 되었든가, 나무칼로 귀를 썰어가도 모르게 되었든
 가 보더라.

42. (뽕덕이네 가산 탕진) 뽕덕어미에게 속아 가산을 탕진 한 심봉사는 맹인잔치 소식을 듣고 길을 떠난다.

[아니리] 하로난 관가¹³²¹)에서 심봉사를 불러들여,
 황성서 맹인잔치가 있다고 노수¹³²²)까지 후히 주니,
 심봉사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와,

She hears that Mr. Sim has some food and money.
She voluntarily marries him without a matchmaker.
But her ways of eating and behaving are so bad as follows:
[Jajinmori] Bbangdeok eats and drinks a lot. She often eats meat
and rice cakes.
She sells food to buy and drink liquors. She sells rice to buy
and eat meat.
She harasses passersby.
She takes a nap in a pavilion. She cries at midnight.
She pesters a passersby to give her tobacco.
She teases others with her peculiar facial expressions.
She speaks ill of people who are determined to marry each
other.
When a bride and bridegroom sleep, she approaches their room
secretly, claps her hands, and shouts, "Fire!"
Bbaengdeok's behavior is bad as stated above. But Mr. Sim does
not know anything about that.
He is emotionally attached so hard to her that even if his ears
were cut off with a wooden knife, he wouldn't know that.

**42. (Bbaengdeok Wastes the Properties.) Deceived by
Bbaengdeok, Mr. Sim runs through his properties.
He hears about the banquet for the blind and
leaves for it.**

[Aniri] One day, the local government calls Mr. Sim.
The local government gives him a lot of travel money, saying
that a banquet for the blind is held in the capital city.
He takes the money and comes back home.

“여보, 뽕파! 오늘 나를 관가에서 불러들여, 황성서 맹인잔치가 있다고 노수까지 후히 주니, 나 혼자 어찌 갈게?”

“아이고, 영감! 여필중부¹³²³)라니, 천 리라도 따라가고, 만 리라도 같이 가지요.”

“그렇게. 다 보아도 나는 우리 뽕덕이네 같은 사람은 없드라, 원. 그런데 이 돈냥¹³²⁴)이나 있는 것 이거 뉘게다 말기고 갈꼬, 잉?”

“아이고, 저러기에 외정은 살림 속을 몰라.

아, 낱도 못허는 아이 선다고,

살구값, 술값, 떡값, 팔죽값 이리저리 다 제하고 나면 무슨 돈이 있겠소?”

심봉사 기가맥혀, “속담에 계집이 먹는 것 쥐 먹는 것¹³²⁵)이라고, 그건 그만두고 어서 황성길이나 떠나세.”

뽕덕이네 앞세우고 황성길을 떠나가는데,

고향을 떠나자매¹³²⁶) 좀 서운했든가 보더라.

43. (뽕덕이네 도망) 황성 가는 길에 뽕덕이네는 황봉사와 도망해 버린다.

[중모래] “도화동아, 잘 있거라. 무릉춘도 잘 있거라.

내가 인자¹³²⁷) 떠나가면 어느 년 어느 때 돌아오리?

어이 가리너?¹³²⁸) 어이를 갈꼬? 황성 천 리를 어이를 갈꼬?

오늘은 가다가 어디 가 자고 가며,

내일은 가다가 어디 가 잘거나?

조자룡¹³²⁹) 월강¹³³⁰)허든 청총마¹³³¹)나 있거드면 이 날 이 시로¹³³²) 가련미는,

"Honey, the local government called me today, said that a banquet is held for the blind in the capital city, and gave me a lot of travel money. How can I go there alone?"

"A woman is to follow her man, I will follow you even to the end of the earth.

"That sounds good. I have never seen a better woman than you. By the way, in the care of whom should I leave this money?"

"Oh, honey! That's why people say a man doesn't have an eye for finance.

I couldn't have a baby, but I made efforts.

I paid for apricots, liquors, rice cakes, red bean soup. How can I have money left now?"

Mr. Sim is struck dumb. "There is a saying that a woman's food costs a lot. Let's move on and take off to the capital city."

Bbaengdeok is in front of Mr. Sim, when they leave for the capital city.

They feel sorry when they are about to leave their home.

43. (Bbaengdeok Runs Away.) On the way to the capital city, Bbaengdeok elopes with Mr. Hwang, another blind man.

[Jungmori] "Take care, Peach Blossom Village. Take care, Paradise Village.

If I go now, when will I come back?

How should I go? How should I get to the capital city thousands of miles away?

Where should I sleep tonight?

Where should I sleep tomorrow night?

If I have the ancient warrior's bluish horse, I can arrive there today.

앞 못 보는 이 내 다리로 몇 날을 걸어 황성을 갈꼬?
 여보소. 뽕덕이네.” “예.”
 “길소리¹³³³)리나 좀 메겨주소.¹³³⁴⁾ 다리 아파 못 가겠네.”
 뽕덕이네가 길소리를 메기난디,
 어디서 전라도 발매기소리¹³³⁵⁾하고, 저 경상도 메나리¹³³⁶⁾ 소리를 들
 었든가,
 쉬어서 한 번 메겨보는디,
 “어이 가리너? 어이를 갈꼬? 황성 천 리를 어이 갈꼬?
 날개 돌힌 학이나 되면, 수루루 펄펄 날아 이 날 이 시로 가련마는,
 앞 못 보는 봉사 가장 데리고 몇 날을 걸어 황성을 갈꼬?”
 “일색이다, 일색이여. 우리 뽕덕이네가 일색이여.”
 이렇듯이 올라갈 제, 일모¹³³⁷⁾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잘 적에,
 그 때여 뽕덕이네는 황봉사와 눈이 맞아¹³³⁸⁾
 심봉사를 잠들여 놓고 밤중에 도망을 허였난디,
 심봉사는 아무 물색¹³³⁹⁾을 모르고
 첫 새벽에 일어나서 뽕덕이네를 찾는구나.
[아니리] “여보, 뽕과. 아, 어서 일어나.
 여름 길은 말이여, 새벽에 시원해서 한 이삼십 리는 쳐야¹³⁴⁰⁾ 되는
 것이여. 아, 어서 일어나!”
 아무리 부르고 찾아본들, 도망간 뽕덕이네가 있을 리가 만무¹³⁴¹⁾
 허제.
 심봉사 겁이 덜컥 나서, “여보, 주인! 혹 우리 마누라 거기 갔소?”
 “아, 거 마누란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밤중에 어느 봉사와 밤길친다
 고¹³⁴²⁾ 벌써 떠났소.”

Given that I am blind, how many days should I walk to the capital city?

Bbaengdeok!" "Yes."

"Sing the travel song with me. My legs hurt."

Bbaengdeok responds to him in the travel song.

She must have heard the folk song of Jeolla Province and the melody from Gyeongsang province.

Mixing the two melodies, she leads the travel song.

"How should I go? How should I go? How should I get to the capital city thousands of miles away?

If I were a crane, I would fly to the capital city right away.

How many days should I walk with my blind husband to the capital city?"

"Bravo! Bravo! You are the best, Bbaengdeok."

As they travel, the sun sets. They drop by an inn and go to sleep.

Meanwhile, Bbaengdeok falls in love with Mr. Hwang, a blind man.

While Mr. Sim sleeps, they run away at night.

Mr. Sim doesn't know anything about it.

He gets up early in the morning and looks for Bbaengdeok.

[Aniri] "Hey, Bbaengdeok! Wake up!

When we travel in summer, we should begin to walk early in the morning when it is cool. Get up now!

No matter how hard he calls and looks for her, it is not possible to find her who has already run away.

Mr. Sim get into a funk all of a sudden. Landlady! Is my wife there by any chance?"

"I didn't know whether she was your wife or not, but she left last night with a young blind man, saying they would travel when it is cool."

“뭣이 어찌? 그러면 진작 말을 해야지, 인자사¹³⁴³) 그런 말을 혀?”

“아, 내가 같이 가는 젊은 봉사하고 내외간¹³⁴⁴)인 줄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외간인 줄 알았소?”

[창조] 심봉사 기가맥혀,

44. (심봉사 탄식) 뽕덕어미가 도망해 버린 것을 안 심봉사가 탄식한다.

[진양조] 섰던 자리에 퍼썩¹³⁴⁵) 주저앉더니, “허허, 뽕덕이네가 갔네
그러!

야, 이 천하¹³⁴⁶) 의리 없고 사정없는 요년아!

당초¹³⁴⁷)에 네가 버릴 태면, 있던 곳에서 마다고 허제,¹³⁴⁸)

수백 리 타향에 와서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될소냐?

귀신이라도 못 되리라, 요년아. 너 그럴 줄 내 몰랐다.

아서라.¹³⁴⁹) 현철¹³⁵⁰)허신 우리 꺾씨도 잊고 살고,

출천대효 내 딸 청이 생이별도 허였난디,

너같은 년을 생각하는 내가 미친 놈이로고나.

에라, 이년! 호랭이가 바짝¹³⁵¹) 깨물어 가부리라.¹³⁵²)

뽕덕이네, 황성 천 리 먼먼 길을 놀과¹³⁵³) 함께 가드란 말이냐?”

[중모래] 날이 차차 밝아오니 주인 불러 하직을 하고, 황성길을 올라
갈 적,

주막 밖을 나서드니 그래도 생각나서,

“아이고, 뽕덕이네! 뽕덕이네. 덕이네! 덕이네! 뽕덕이네! 세상 천지
독헌 년아!

“What did you say? You should have told me earlier. How can you say that now?”

“I thought she was the young blind man’s wife.
How would I know you are her husband?”

[Song Mode] Mr. Sim is struck dumb.

**44. (Mr. Sim Laments.) Mr. Sim laments, realizing that
Bbaengdeok ran away.**

[Jinyangjo] He flops down on the spot. “Oh god. Bbaengdeok has left me.

What an ungrateful and cruel woman she is!

If you had wanted to desert me, you should have done it in the village.

You abandoned me in a strange place. Do you think you will be happy?

You cannot even become a ghost. Wicked woman! I didn’t know you would betray me.

Oh god! Let me stop! I shook off my virtuous wife, Mrs. Gwak, and survived.

I even survived the unfair death of my filial daughter, Cheong.

I am crazy to think about a shallow woman like you.

“Oh! You bad woman! A tiger should bite her hard and take her away!

Bbaengdeok! With whom should I go to the capital city far from here?”

[Jungmori] The sun rises little by little. Mr. Sim says goodbye to the landlord.

Mr. Sim goes out of the inn. He thinks about his wife again.

“Bbaengdeok! Bbaengdeok! Deok! Deok! Bbaengdeok! What a cruel and heartless woman!

눈 뜬 가장 배반키도 사람치고는 못 할 텐디,
 눈 어두운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되겠느냐?
 새 서방 따라서 잘 가거라.”
 그렇저렇 올라갈 제, 이 때는 어느 땐고?
 오뉴월 삼복성염¹³⁵⁴⁾이라. 태양은 불별 같고,
 더운 땀을 휘뿌리며¹³⁵⁵⁾ 한 곳을 점점 당도하니,
 치어다보느냐,¹³⁵⁶⁾ 만학은 천봉이요,¹³⁵⁷⁾ 내려 굽어보면 백사지땅일
 레라.¹³⁵⁸⁾
 허리 구부러진 늙은 장송¹³⁵⁹⁾은 푸른빛을 띠어 있고,
 시내 유수난¹³⁶⁰⁾ 청산으로 돌고,
 이 골 물이 쭈루루루루, 저 골 물이 팔팔,¹³⁶¹⁾
 열의 열두 골¹³⁶²⁾ 물이 한트로¹³⁶³⁾ 합수쳐,¹³⁶⁴⁾
 천방저 지방저 언덕저 구부저,¹³⁶⁵⁾ 방울¹³⁶⁶⁾이 버금저¹³⁶⁷⁾ 떠나갈 제,
 청산유수는 골골이 흘러서 사람의 정신을 도도와¹³⁶⁸⁾ 낸다.

45. (심봉사 목욕) 심봉사가 황성 가는 길에 목욕을 하다가 옷을 도둑맞는다.

[중중모레] 심봉사 좋아라, 심봉사 좋아라 물소리 듣고서 반긴다.
 목욕을 할 양으로, 상하 의복을 훨훨 벗어 시냇가에다 접쳐놓고,¹³⁶⁹⁾
 물에 풍덩 들어서며, “에, 시원하고 장히¹³⁷⁰⁾ 좋다.”
 물 한 주먹 덩벽¹³⁷¹⁾ 쥐어 양치질도 꺾꺾 치고,
 또 한 주먹을 덩벽 쥐어서 거드랑도 문지르며,
 “에, 시원하고 장히 좋다. 삼각산¹³⁷²⁾ 올라간들 이에서¹³⁷³⁾ 시원하며,

It is inhumane even to desert a husband with eyes.
You gave up your blind husband. How can you be happy?
Have a good life with your new husband.”
He goes to the capital city unsteadily. What season is it now?
It is the hottest period of the year. The sun is hot like fire.
While sweating like a rain, he gets close to a certain place where
there is a river.
Numerous valleys and mountains are above. A white sandy plain
is below.
Pine trees drooping down are old, tall, and bluish.
Streams flow around green mountains.
Flowing water generates sounds in valleys.
Water from different valleys is combined in one place.
The water runs down wildly, making foam.
Streams around green mountains stimulate Mr. Sim’s mind as
they flow in the valleys.

**45. (Mr. Sim Takes a Bath.) Mr. Sim gets his clothes
stolen while taking a bath on his way to the capital
city.**

[Jungjungmori] Mr. Sim is delighted. He is delighted to hear the
sound of water.
With the view to taking a bath, he takes off his clothes and
superimposes them by the stream.
He jumps into the stream. “Oh, it is cool. This is great.”
He grabs a handful of water and washes his teeth.
He grabs another handful of water and rubs under his arms.
“It is really cool. It is good. There would be no cooler stream
than this one.

동해 유수¹³⁷⁴)를 다 마신들 이어서¹³⁷⁵) 시원힐거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풍덩풍덩 좋을씨고.”
[아니레] 한참 목욕을 하고 의관행장¹³⁷⁶)을 찾아보니,
 무상한¹³⁷⁷) 도적놈들이 심봉사 의관행장을 모두 가져가부렀제.¹³⁷⁸)
[창조] 심봉사 기가맥혀, 위아래를 훨씬 벗고 강변을 두루 더듬으며,
 “내 옷 가져오너라! 내 옷 가져오너라!
 옷을 가져갈려면은 먹고, 입고, 쓰고 남은 부자집에서 얻어가지,
 하필이면 이렇게 눈 없는 놈 것을 가져간단 말이나, 에이?
 어떤 놈이든지 그저 봉사 옷 가져가는 놈은 열두 대 때봉사 날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백수풍신¹³⁷⁹) 늙은 몸이 활짝 벗었으니,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로 내려갈 수도 없고,
 체면 있는 양반이라, 두 손으로 앞 거기만 딱 가리고,
 “내 앞에 부인네 오시거든 모두 돌아서 가시오.
 나 어찌다 이렇게 되야부렀소.¹³⁸⁰)
[아니레] 자탄허고 앉았을 제, 그 때 마침 무릉 태수가 그 앞을 지내든
 가 보더라.
 “에이 찌루! 에이 찌루! 워라!”¹³⁸¹)
 심봉사 반겨 듣고, ‘웁다. 어디서 관장님¹³⁸²)이 지나가시나부다.
 관은 민지부모¹³⁸³)라니
 한번 억지나 썬볼 수밖에 없다.’하고
[창조] “아뢰어라! 아뢰어라! 사령¹³⁸⁴)아 아뢰어라!
 아뢰어라! 아뢰어라! 급창¹³⁸⁵)아 여쭙어라!
 황성 가는 봉사러니, 배알차로¹³⁸⁶) 여쭙어라!”

No water would be cooler than this one.

Hurrah! Yipee! What a delight! What a pleasure!”

[Aniri] After taking a bath, Mr. Sim looks for his hat and clothes. A bad thief has stolen all the Mr. Sim’s hat and clothes.

[Song Mode] Mr. Sim is struck dumb. Naked, he gropes around the riverside.

“Bring me my clothes! Bring me my clothes!

You should have stolen from the rich who have more than enough food, clothes, and other possessions.

Did you have to steal the things from a blind man? Uh?

If anybody steals from a blind person, his family will be blind for twelve generations.

I can’t believe what happened to me!”

I am old with grey hair and completely naked. So I can’t go on.

I can’t go back home either.

As he is a high class man with decorum, he covers his private part with his hands.

“If there is a lady in front of me, please turn around.

Somehow I became like this.

[Aniri] When Mr. Sim laments over himself in a place, a governor passes by.

“Here comes the governor. Turn around. Step back.”

Mr. Sim is delighted to hear the shouts. ‘Oh, yes! A governor must be passing by.

It is said that a government official is like a parent to the people. I will implore that the governor help me.

[Song Mode] “Servant, report to your master!

“Retainer, report to your master.

Tell your master a blind man going to the capital city wants to see him.”

[아니레] 행차가 머물더니, “그래, 어디 사는 봉사이며,
 어찌 옷을 벗었으며, 무슨 말을 허려고 그러는고?”
 [중모레] “예, 소맹¹³⁸⁷)이 아뢰리다. 예, 소맹이 아뢰리다.
 소맹이 사읍기는 황주 도화동 사읍논디,
 황성 잔치 가는 길에 계집을 잃고,
 하도 날이 더웁기에 목욕허고 나와보니,
 의관행장이 간 곳 없으니, 찾아주고 가시든지,
 별반 처분¹³⁸⁸)을 하옵소서.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라¹³⁸⁹) 허였으니,
 태수장¹³⁹⁰) 덕택으¹³⁹¹) 살려주오.”

46. (무릉태수에게 의복 청함) 심봉사가 무릉태수를 만나 의복을 얻어 입고 황성길을 가다, 방아짚는 부인들을 만난다.

[아니레] 이 행차는 무릉태수라.
 급창 불러 의릉¹³⁹²) 열고 의복 한 벌 내어주며,
 “너는 수건 써도 일 없으니, 저 양반 갓 망건¹³⁹³) 다 벗어드려라.”
 노수¹³⁹⁴)까지 후히 주었구나.
 황송한 말씀으로 그 무지한 놈들이 내 담뱃대까지 마저 가져갔사오
 니, 어찌하면 좋을란지요? 히히히.”
 태수 허허 웃고 담뱃대까지 내어주니,
 “은혜 백골난망¹³⁹⁵)이오.” 백배사례¹³⁹⁶) 하직허고,

[Aniri] The procession stops. “Where do you live, blind man? Why are you naked? What do you want to say?”

[Jungmori] “Okay. Let me report to you, sir. Let me report to you, sir.

I live in Peach Blossom Village.

I lost my wife on my way to the banquet in the capital city. It was so hot that I took a bath over there.

My hat and clothes were stolen. Please find my old clothes for me.

Please consider my plea.

If you are nice to others, your family will prosper without fail. Mr. Governor, please help me.”

46. (The Request for Clothes to a Governor) Mr. Sim comes across a governor from whom he gets clothes. He meets milling women on his way to the capital city.

[Aniri] This procession is that of the governor’s of Paradise Region.

He orders his servant to open a clothe box and holds out a pair of clothes.

“You can put on a towel instead of a hat. Give that blind man your hat and headband.”

The governor even gives him much travel money.

“I am sorry to tell you that the heartless thief even took my tobacco pipe. What should I do? Hee hee hee.”

The governor laughs and gives him a tobacco pipe.

“I will eternally appreciate it.” Mr. Sim bows to the governor many times and says goodbye to him.

낙수교¹³⁹⁷)를 지내어, 녹수정¹³⁹⁸)을 당도하니,
방아집이 있어, 여인네들이 모여 방아를 찧다가 심봉사를 보고 조롱
을 하겠다.

“아, 근래¹³⁹⁹) 봉사들 안 시켜주드고.¹⁴⁰⁰)

저 봉사도 황성잔치 가는 봉사인가부제.¹⁴⁰¹)

거기 앉었지 말고, 이리 와서 방아나 좀 찧어주고 가제.”

“고기 반찬에 점심만 잘 주면, 내 찧어주고 말고.”

“하든,¹⁴⁰²) 점심뿐이오?”

심봉사가 점심을 얻어먹을 양으로 방아를 한 번 찧어보는데,
모두 방아소리를 허여가며 찧었다.

47. (방아타령) 심봉사가 방아를 찧어주고 밥을 얻어 먹는다.

[중중모래]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떨크딩 땡땡 잘 찧는다. 어유아 방아요.”

“태고라 천황씨는 이목덕으로 왕허였으니,¹⁴⁰³)

남기¹⁴⁰⁴) 아니 중할쏜가?”¹⁴⁰⁵) “어유아 방아요.”

“유소씨 구목위소¹⁴⁰⁶) 이 나무로 집 지셨나?”¹⁴⁰⁷) “어유아 방아요.”

“신농씨 만든 따부,¹⁴⁰⁸) 이 나무로 만들었나?” “어유아 방아요.”

“방아 만든 제작을 보니, 사람을 비양튼가¹⁴⁰⁹) 이상허고도 맹랑허구나.” “어허유아 방아요.”

“옥빈홍안¹⁴¹⁰)의 비녀런가?¹⁴¹¹) 가는 허리에 잠¹⁴¹²)이 찢렸구나.” “어유아 방아요.”

“머리 들어 오르는 양은 창해 노룽¹⁴¹³)이 성을 낸 듯.” “어유아 방아요.”

“머리 숙여 내리는 양 주문왕¹⁴¹⁴)의 돈수¹⁴¹⁵)런가?” “어유아 방아요.”

He passes by a bridge and arrives at a pavilion.
 Many women are milling together. A woman ridicules Mr. Sim.
 "These days blind men must be happy.
 That blind man must be going to the banquet in the capital city
 too.
 Don't just sit there alone. Come over here and mill for us."
 "If you give me a lunch with meat, I will gladly mill for you."
 "Sure. Is that all you want?"
 Mr. Sim mills for them to get lunch from them.
 They sing the mill song while milling.

47. (Mill Song) Mr. Sim gets lunch in return for milling.

[Jungjungmori]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The mill works well. Here goes a mill."
 "A king of ancient China became a king thanks to wood.
 So wood is a precious thing." "Here goes a mill."
 "Did another king of ancient China build a house with this kind
 of wood?" "Here goes a mill."
 "Did another king of ancient China make a plow with this kind
 of wood?" "Here goes a mill."
 "This mill looks like a human body. It's very bizarre." "Here goes a mill."
 "Is this a beautiful woman's hairpin? It pierces through the thin
 waist of the mill." "Here goes a mill."
 "Its head moves up. It's like an old dragon losing its temper in
 a wide sea." "Here goes a mill."
 "Its head moves down. Is it the big bow by an ancient king?"
 "Here goes a mill."

“오고대부¹⁴¹⁶) 죽은 후에 방아소리가 끊겼더니,
우리 성상¹⁴¹⁷) 즉위허사¹⁴¹⁸) 국태민안¹⁴¹⁹) 하옵시니,
하물며 맹인잔치 고금¹⁴²⁰)에 없는지라,
우리도 태평성대 방아소리나 허여보자.” “어유아 방아요.”
[아니리] “여보시오, 봉사님. 이렇게 방아를 쪼다가는 몇 날이 될 줄을
모르겠소. 좀 자주자주 쪼어봅시다.”
“거, 방이라는 것이 자주 쪼으면 자주 쪼을수록 재미가 있지.”
[자진모리]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어유아 방아요.”
“만첩청산¹⁴²¹)을 들어가 굶고 끝은 술을 베어 이 방아를 놓았는가?”
“어유아 방아요.”
“호호 맵다 고추방아.” “어유아 방아요.”
“깨습구나¹⁴²²) 깨방아로다.” “어유아 방아요.”
“한 다리 올려 딛고, 한 다리 내려 딛고,
오리락 내리락히는 모양 사람 보기가 이상허다.”¹⁴²³) “어유아 방아
요.”
“보리쌀 뜨물에 호박국 끓여라.
우리 방아꾼들¹⁴²⁴) 배충복¹⁴²⁵)하자.” “어허유아 방아요.”
[중중모리] “떨그덩 땡땡 잘 쪼는다. 점심때가 늦어간다.” “어허유아
방아요.”

48. (안 씨 맹인) 심봉사가 황성 근처에서 안 씨 맹인을 만나 인연을 맺고, 딸을 만날 꿈을 꾸다.

[아니리] 이렇게 방아를 쪼고,
점심을 잘 얻어먹은 후에, 그러저러 길을 걸어 황성을 당도하니,

“Milling sound stopped after an ancient politician died.
 After our king was crowned, this country is happy.
 A banquet for the blind is unprecedented.
 Let’s sing a mill song in this peaceful time.” “Here goes a mill.”
[Aniri] “Hello, Mr. Blind, it may take days to finish the work
 if you mill at this pace. Let’s mill fast.”
 “The faster we mill, the more fun we will have.”
[Jajinmori] “Here goes a mill. Here goes a mill.”
 “Did they make this mill with big and straight trees they cut
 down on deep mountains?”
 “Here goes a mill.”
 “A pepper mill is hot.” “Here goes a mill.”
 “A sesame mill smells good.” “Here goes a mill.”
 “They put one foot on the mill, and the other foot on the
 ground.
 When the mill moves up and down, it looks bizarre.” “Here goes
 a mill.”
 “Make pumpkin soup with barley.
 Let’s feed the milling people.” “Here goes a mill.”
[Jungjungmori] “This mill works well. Our lunch is getting late.”
 “Here goes a mill.”

**48. (Blind Woman, Mrs. An) Mr. Sim marries a blind
 woman, Mrs. An, near the capital city, and has a
 dream that he will meet his daughter.**

[Aniri] Mr. Sim mills for the women as said above.
 Mr. Sim eats lunch well from them and manages to arrive at
 the capital city.

노중¹⁴²⁶)에서 어떠한 여인이 심봉사를 청하는구나.
심봉사 괴이히¹⁴²⁷ 여겨, ‘이곳에 날 알 이 없을 텐디. 이상한 일이다.’
“택에 혹 의단¹⁴²⁸ 있소? 나는 독경¹⁴²⁹)같은 것은 못하는 봉사요.”
“다른 염려 마옵시고 나를 따라가사이다.”
방으로 들어가 들어가 좌¹⁴³⁰)를 주어 앉힌 후에, 어떠한 여인이 말을
허는디,

[창조] “소녀는 안 가요, 저도 역시 맹인으로
부모 일찍 기세¹⁴³¹)허고, 어려서 복술¹⁴³²)을 배워
평생을 아자지¹⁴³³)라.

이십오 세에 길연¹⁴³⁴)이 있는디, 금년이 이십오 세요,
간밤에 꿈을 꾸니, 하늘에서 일월이 떨어져 물에 잠겨 보이거늘
심맹인 만날 줄 짐작허고,”¹⁴³⁵)

[아니레] “오늘 제가 사람을 놓아, 다행히 심생원을 만났으니.
이것이 인연인가 허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치¹⁴³⁶)하나 저버리지 마옵소서.”

심봉사 이 말 듣고, “내게는 천부당만부당¹⁴³⁷)한 소리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날 밤 동방화촉¹⁴³⁸)의 호접몽¹⁴³⁹)을 꾸었든
가 보더라.

심봉사 자고 일어나 수심으로 앓았으니,
안씨 부인 민망하야, “어찌 그리 수심허나이까?”¹⁴⁴⁰)

[창조] “내 평생 수심일러니,
간밤에 꿈을 꾸니, 내가 불에 들어가 보이고,
가죽을 벗겨 북을 때¹⁴⁴¹) 보이고,
나뭇잎이 떨어져 뿌리를 덮어 보이니, 이 아니 흥몽¹⁴⁴²)이요?”

[아니레] 안씨 부인 이 말 듣고, 해몽을 허는디,

[창조] “신입화허니 화락¹⁴⁴³)할 꿈이요,

A woman on the road invites Mr. Sim.
Mr. Sim is puzzled. "There should be no one here who knows about me.

"Is there anything wrong with this home? I can't even chant a prayer."

"Make yourself at home and come with me."

A lady enters a room with Mr. Sim, and asks him to take a seat.
A woman starts to say.

[Song Mode] "My last name is An. I am blind too.

I lost my parents and learned to do fortune-telling as a child.
I know about my fate.

I am to marry at twenty five. I am twenty five this year.
Besides, I had a dream last night. The sun and the moon immersed in water.

So I thought he would meet a blind man."

[Aniri] "I had a man wait for you today. Luckily, I met you.
You were fated to be my husband. Please have mercy on me.
I am shameless. But please don't reject me."

Mr. Sim responds, "That is really absurd to me."

Somehow, they got married and had a sweet dream that night.
Mr. Sim gets up in the morning and sits in anxiety.

Mrs. An is embarrassed. "What worries you?"

[Song Mode] "I lived my entire life in anxiety.

I had a dream last night. In the dream, my body appeared to be in fire.

My skin was taken off and made into a drum.

Leaves fell down and covered the root. Isn't this an unfavorable dream?"

[Aniri] Mrs. An hears the words, and interprets the dream.

[Song Mode] "Your entering fire means you will be joyful.

거피작고¹⁴⁴⁴)허니 소리가 날 것이요,

낙엽이 귀근허니 자녀를 가봉이라.¹⁴⁴⁵⁾

[창조] “그 꿈 대단히 좋아오니, 오늘 궐 안에 들어가면 무슨 증험¹⁴⁴⁶⁾
이 있으리다.”

심봉사 이 말 듣고, “내게는 천부당만부당헌 소리요.”

심봉사 아침밥을 먹고 궐 안을 들어가니, 사방이 소경빛이라.¹⁴⁴⁷⁾

심봉사도 저 말석에 참석이 되었든가 보더라.

49. (심황후 탄식) 심황후가 오지 않는 부친을 기다리며 탄식한다.

[진양조] 그때여 심황후는 산호 주렴을 내려놓고 부친 보기만 기다릴 제,
탄식하여 허는 말이, “이 잔치를 배설¹⁴⁴⁸⁾키는 부친을 위험인디,
어찌하여 못 오신거나?

내가 영영 인당수 죽은 줄 알으시고 애통타가¹⁴⁴⁹⁾ 세상을 떠나셨나?
부처님의 영험¹⁴⁵⁰⁾으로 완연히¹⁴⁵¹⁾ 눈을 떠 맹인 축에¹⁴⁵²⁾ 빠지셨나?
오시다가 노중¹⁴⁵³⁾에서 무슨 낭패¹⁴⁵⁴⁾를 당하셨나?

오늘 잔치 망중¹⁴⁵⁵⁾인디, 어찌 이리 못 오신고?”

[아니레] 이렇듯이 자탄하시다 이부상서 불러 분부하시되,

“오늘도 소경 중에 심맹인이 계시거든 별궁으로 모셔들여라.” 영을
내려 놓으니,

[중중모레] 정언 사령¹⁴⁵⁶⁾이 나온다. 정언 사령이 나온다.

“각도 각읍¹⁴⁵⁷⁾ 소경님네! 오날 잔치 망중¹⁴⁵⁸⁾이니, 잔치 참례¹⁴⁵⁹⁾
어서 하오!”

골목골목을 다니며 이렇듯 외난¹⁴⁶⁰⁾ 소리, 원근산천¹⁴⁶¹⁾이 평그렁
게¹⁴⁶²⁾ 들린다.

Your skin's becoming a drum means there will be sounds.
The leaves' covering the root means you will meet your child.
[Song Mode] The dream is great. There will be a good surprise
for you in the palace today."

Mr. Sim responds, "That is really absurd to me."

After having breakfast, Mr. Sim enters the palace. It is full of
the blind.

He attends the banquet on the lowest seat.

49. (Empress Sim Sighs) Empress Sim laments while waiting for her father.

[Jinyangjo] "Meanwhile, hanging a coral screen down, the
empress waits only to meet her father.

She laments, "I am throwing this party for my father.
Why isn't he coming?

Did he die, while longing for me and thinking I died in Indang
Water?

Is he classified as a sighted person because Buddha opened his
eyes?

Did he get into trouble on his way here?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banquet. Why doesn't he show up?"

[Aniri] The empress laments and gives an order to the Minister
of Interior.

"If you see Mr. Sim among the blind, bring him to my residence."

[Jungjungmori] An officer comes out. He comes out.

"Blind people from this country!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banquet. Please hurry to the banquet!"

He shouts in this and that alley. The shouting sounds tremble
the city.

50. (부녀 상봉) 심봉사가 대궐에 들어가자 심황후가 보고 불러들여 거주와 처자에 관해 묻는다.

[아니리] 수백 명 봉사 성명을 차례로 물어가다 심봉사 앞에 당도하여,
“당신 성명은 무엇이오?”

“수백 리 길을 걸었더니 시장해 죽겠소. 먹을 것이나 있으면 좀 주시오.”
“글쎄, 성명만 알려주시면, 배고픈 사람은 밥도 주고, 술도 주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고,

“또 마누라 없는 사람은 여기서 마누라까지 썸매줄¹⁴⁶³ 것이니, 얼른 얘기하십시오.

“아따,¹⁴⁶⁴ 거 실없이 여러 가지 것 많이 주네. 그렇다면 내가 저 황주도화동 사는 심학규라고 하는 사람이오.”

“심맹인 계신다!”하고 우 달려들어,
심봉사를 별궁으로 입시하려고 하니,

[창조] 그때에 심봉사 (생각하되), ‘내가 딸 팔아먹은 죄가 있는데, 이 잔치를 배설키는 수맹인¹⁴⁶⁵ 만좌중¹⁴⁶⁶에 날 잡아 죽일려고 배설을 허였구나.’

[아니리] “자, 내 지팽이나 좀 잡으시오.

한 번 죽지, 두 번 죽을랍더?”¹⁴⁶⁷

더듬더듬 별궁으로 들어가니,

심황후 용궁에서 어언간 3년이 되었고,

심봉사 딸 생각에 어찌 울었던지 더없이 백수¹⁴⁶⁸ 되어 잘 알 수가 없는지라.

심황후 분부하시되, “그 봉사 거주¹⁴⁶⁹ 성명과, 처자¹⁴⁷⁰가 있나 물어 보아라.”

50. (The Father and the Daughter Meet) Mr. Sim enters the palace. Empress Sim spots and asks him about his name and address.

[Aniri] The official checks the list of blind people. He arrives in front of Mr. Sim.

“What is your name?”

“Having walked hundreds of miles, I am deadly hungry now. Give me something to eat.”

“If you say your name, you would get food, wine, rice cake and meat.

“If a man doesn’t have a wife, he would get a wife at here. So answer quickly.”

“Oh boy! You are giving various things without a reason. I am Sim Hak-gyu from Peach Blossom Village.”

The official shouts, “I found Mr. Sim!”, and runs to him.

He tries to bring Mr. Sim to the empress’s residence.

[Song Mode] Mr. Sim thinks, ‘I am guilty of selling my daughter. They are holding this banquet to kill me in front of all the blind people.

[Aniri] “Okay, please hold my cane.

I am ready to face my death.

Mr. Sim gropes into the empress’s residence.

Empress Sim spent three years in the sea palace.

Mr. Sim cried so much missing her daughter that his hair became grey and it became hard to be recognized.

She asks the official, “Ask the blind man about his address, name, wife, and child.”

[창조] 심봉사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며,
 [중모리] “예, 소맹¹⁴⁷¹)이 아뢰리다. 예, 아뢰리다. 예, 소맹이 아뢰리다.
 소맹이 사육기는 황주 도화동이 고토¹⁴⁷²)읍고, 성명은 심학규요,
 을축년 삼월 달에 산후 탈¹⁴⁷³)로 상처¹⁴⁷⁴)허고,
 어미 잃은 딸자식을 강보¹⁴⁷⁵)에 싸서 안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동냥젖을 얻어먹여 겨우겨우 길러내어,
 효성이 출천하야¹⁴⁷⁶) 그 애가 밥을 빌어 근근도생¹⁴⁷⁷) 살아갈 제,
 우연한 중을 만나, 공양미 삼백 석만 불전으로¹⁴⁷⁸) 시주하면 소맹 눈
 을 뜯다기로,
 효성 있는 내 자식이 남경 장사 선인들께 삼백 석에 몸이 팔려,
 인당수 제수¹⁴⁷⁹)로 죽은 지가 삼년이오.
 눈도 뜨지도 못하옵고 자식만 팔아먹은 놈을
 살려주어 쓸 데 있소? 당장에 목숨을 끊어주오.”

51. (심봉사 개안) 심봉사가 딸을 만난 기쁨에 눈을 뜬다.

[자진모리] 심황후 이 말 듣고, 산호 주렴을 걷어버리고 버선발로 우
 루루루루루루루.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심봉사 깜짝 놀래, “에이? 아버지라니? 아버지라니, 누구요?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소.
 무남독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우금¹⁴⁸⁰) 삼년인디,
 이것이 웬 말이오, 에이?”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Song Mode] Mr. Sim hears the words of wife and children when tears fall down from his blind eyes.

[Jungmori] “Let me report to you, sir. Let me report to you. I lived in my hometown, Peach Blossom Village. My name is Sim Hak-gyu.

My wife died of a disease after childbirth.

I held my daughter, who lost her mom, with a small blanket.

I managed to raise her by begging around for milk.

Her filial piety was great. I managed to live on her begging.

I met a monk by chance. He said that I would open my eyes if I donated 300 bags of rice to Buddha.

My filial daughter sold herself to sailors at 300 bags of rice to open my eyes.

She died as a sacrifice at Indang Water three years ago.

I haven't yet opened my eyes. I only sold my daughter.

What would be the use of forgiving me? Please kill me right away.”

51. (Mr. Sim Opens His Eyes.) Mr. Sim opens his eyes at the joy of meeting his daughter.

[Jajinmori] Hearing him, Empress Sim pulls the blind away and runs to him without putting on shoes.

She hugs her father's neck. “Oh, father!”

Mr. Sim is surprised. “What? Am I your father? Who is calling me father?”

Oh my! I have neither a son nor a daughter.

My daughter, only child, was drown to death three years ago.

What are you saying?”

“Oh, father! Haven't you opened your eyes yet?”

인당수 풍랑 중에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어서어서 눈을 떠서 소녀를 보옵소서.”
 심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에이? 내 딸이라니? 내 딸이라니?
 내가 죽어 수궁 천지를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거 참말이냐?
 죽고 없는 내 딸 심청,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고?
 내 딸이면 어디¹⁴⁸¹)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자!
 아이고, 내가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아이고, 갑갑허여라! 어디, 내 딸이면 좀 보자!”
 심봉사가 두 눈을 끔적끔적¹⁴⁸²) 끔적끔적 끔적끔적 끔적끔적 끔적끔
 적 끔적끔적허더니마는,
 두 눈을 그저 번쩍, 딱 떴든가 보더라.

52. (모든 맹인이 같이 눈뜸) 심봉사가 눈을 뜨자, 천하 맹 인들도 일시에 눈을 뜬다.

[아니리] 심봉사 눈을 떠서 사면을 살펴보니, 세상이 모두 허적허
 적¹⁴⁸³)허제.
 심봉사 눈 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도 모두 개평¹⁴⁸⁴)으로 눈을 뜨는디,
 눈을 뜨는 데도 장단이 있든가 보더라.
 [자진모리] 만좌 맹인¹⁴⁸⁵)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담양 새 갈모¹⁴⁸⁶) 떼는¹⁴⁸⁷) 소리로,
 ‘ 짹 짹’허더니마는 일시에 눈을 떠버리는데,
 석 달 안에 참례하고 내려간 맹인들도 저의 집에서 눈을 뜨고,

Your daughter, Cheong, who had drowned at Indang Water, came back alive.

Please open your eyes quickly and take a look at me.”

Upon hearing her, Mr. Sim is at a loss for what to say.

“What? Are you my daughter? Are you really my daughter?

Am I dead in the sea palace?

Am I dreaming now? Is this real?

My daughter, Sim Cheong, has died. How can you say she came back here alive?

If you are my daughter, let me see you. Let me see my daughter!

Oh god! I need eyes to see my daughter.

Alas, I feel choked! Let me see my daughter!”

Mr. Sim blinks his eyes repeatedly.

He suddenly opens his two eyes.

52. (All the Blind People Open Their Eyes.) Mr. Sim opens his eyes. All the rest of the blind people open their eyes at the same time.

[Aniri] Mr. Sim opens his eyes and looks around. The world appears to be filled with things.

As a result of Mr. Sim’s opening his eyes, all the rest of the blind people in the banquet open their eyes too.

They open their eyes rhythmically.

[Jajinmori] All the blind people on the chairs open their eyes.

They make sounds as if a paper hat were torn off.

They opens their eyes at once, making tearing sounds.

Those who attended the banquet and returned home within three months open their eyes in their homes.

미처 당도 못한 맹인 중로¹⁴⁸⁸)에서도 눈을 뜨고,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앉아 뜨고, 누워 뜨고,
 서서 뜨고, 화내다¹⁴⁸⁹) 뜨고,
 울다, 웃다 뜨고, 자다 깨다 뜨고,
 줄다 번뜩거리다가¹⁴⁹⁰) 뜨고, 눈을 끔적거리다 뜨고,
 눈을 부벼가며 뜨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제 마음대로 뜨고,
 지어비금주수까지¹⁴⁹¹) 일시에 눈을 떠서
 광명천지¹⁴⁹²)가 되었구나.

53. (심봉사 환호) 심봉사가 딸의 얼굴을 보고 기뻐하며 춤을 춘다.

[아니레 심봉사 정신을 딸을 자세히 살펴보니,
 칠보금관¹⁴⁹³) 황홀하여 딸이라니 딸인 줄로만 알지,
 전후불견 초면이었든가 보더라.¹⁴⁹⁴)
 심봉사가 곰곰이 생각허더니마는,
 [중모레 “옹제, 인제 알졌구나. 이제야 내가 알졌구나.
 갑자 사월 초파일 밤¹⁴⁹⁵) 꿈 속에서 모든 얼굴 분명한 내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만났으니, 인도환생¹⁴⁹⁶)하였는가?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거 생신가?
 꿈과 생시 분별을 못 허졌네.
 아까까지 내가 맹인으로 지팽이를 짚고 나서면은
 어디로 갈 줄을 아느냐? 올 줄을 알았느냐?
 지금부터서는 새 세상이 되었으니,
 지팽이 너도 고생 많이 허였구나.” ‘피르르르르르’ 내던지고,

Those who haven't arrived open their eyes in the streets.
Some open while going. Some open while coming. Some open
while sitting. Some open while lying.
Some open while standing. Some open getting angry.
Some open while crying and laughing. Some open while
sleeping and waking up.
Some open while drowsing and gleaming their eyes. Some open
while blinking their eyes.
Some open rubbing their eyes. Some open as they want to.
Even blind animals open their eyes at the same time.
The whole world becomes bright for them.

**53. (Mr. Sim Cheers.) Mr. Sim dances in joy after
taking a look at his daughter.**

[Aniri] Mr. Sim gathers himself and look at her daughter.
He gazes in awe of a woman with a golden crown. He believes
she is his daughter because he was told so.
But this is the first time he sees her.
Mr. Sim reflects upon his past.
[Jungmori] "Oh, I see now. I see now.
This is clearly the face I saw in a dream with my wife.
I see my daughter again who once died. Were you reincarnated?
Am I dreaming now? Is this a dream? Is this real?
I can't tell dream and reality apart.
I was blind up until a minute ago. I traveled the road with a
cane.
I didn't know how I would get around.
From now on, I live in a new world.
'Mr. Cane! Your life must have been hard.'" He throws his cane
away.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지화자자 줌도¹⁴⁹⁷ 좋네.”

[중중모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감았던 눈을 번쩍 뜨니, 황성 궁궐이 웬 일이며,

창해 만 리¹⁴⁹⁸의 먼먼 바다 인당수 죽은 딸이

환세상¹⁴⁹⁹ 황후가 되니 천천만만 뜻밖이라.

얼씨구나 절씨구.

어둑침침¹⁵⁰⁰ 빈 방 안에 불 켜 듯이 반갑고,

산양수 큰 싸움¹⁵⁰¹에 자룡¹⁵⁰² 본 듯이 반갑네.

홍진비래 고진감래¹⁵⁰³ 날로¹⁵⁰⁴ 두고 이름이로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여러 봉사들도 춤을 춘다.

“얼씨구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이 덕이 뉘 덕이나? 심황후 폐하의 덕이라.

일월이 밝어 중화¹⁵⁰⁵허니, 요순 천지¹⁵⁰⁶가 되었네.

태고적¹⁵⁰⁷ 시절 이래로 봉사 눈 뵈단 말 처음이로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송천자¹⁵⁰⁸ 폐하도 만만세. ¹⁵⁰⁹ 심황후 폐하도 만만세.

부원군¹⁵¹⁰도 만만세. 여러 내빈¹⁵¹¹들도 만만세.

천천만만세¹⁵¹²를 태평으로만 누리소서.

얼씨구나, 좋을씨고.

어어 어 으으으 좋네. 얼씨구 얼씨구 절씨구.”

54. (황봉사) 황봉사가 죄상을 고백하자 한쪽 눈만 뜬다.

[아니리] 이렇듯이 춤추고 노닐 적에, 황극전¹⁵¹³ 너른 뜰이 춤바다가 되었구나.

“Hurrah! Hurray! Whoopee! Yippee! What a delight!”

[Jungjungmori] “Hurrah! Hurray! Whoopee!

After opening my eyes, I am surprised to see the palace.

I thought my daughter died at Indang Water away from here.

I never imagined she would be back alive and become an empress.

Hurrah! Hurray!

I feel great as if a light got turned on in a dark room.

I am as glad as if I met a great warrior to help me on a battlefield.

For me, happy and unhappy events occur alternately.

Hurrah! Hurray!”

Other blind people dance too.

“Hurrah! Hurray! Whoopee! Yippee! What a delight!

Whom do we owe this to? We owe this to the empress.

The sun and the moon shine on this country. It became a paradise.

We never heard a blind person opened his eyes since ancient times.

Hurrah! Hurray!

Long live the emperor! Long live the empress!

Long live the empress’s father! Long live the guests too!

May they live happily forever.

What a delight!

Hurrah! Whoopee! Yippee! What a delight!”

54. (Mr. Hwang Repents) Mr. Hwang confesses his wrongdoing and opens only one of his eyes.

[Aniri] Everybody dances, as if the wide yard in the palace became the sea of dance.

모두 이렇게 춤추고 노는디, 그 중에 봉사 하나 눈 못 뜨고 엉거주춤
 서서 울고만 있으니,
 심황후 분부하시되,
 “지어비금주수까지도¹⁵¹⁴) 눈을 떴난디,
 어찌해 저 봉사는 눈을 못 뜨난고?¹⁵¹⁵) 죄상¹⁵¹⁶)을 아뢰어라.”
 그때여 황봉사가 뺨덕이네를 유인해 간 죄로 눈을 못 뜨고,
 그 자리 엎드려지더니마는 죄상을 아뢰는구나.
[중모레] “예, 죄상을 아뢰리라. 예, 죄상을 아뢰리라.
 심부원군 행차시에 뺨덕이라는 여인 앞세우고 오시다가,
 주막에 들어 유숙¹⁵¹⁷)을 허실 적에,
 주인과 약속을 허고 뺨덕이네를 유인하여 밤중에 도망을 허였는디,
 그날 밤 오경시¹⁵¹⁸)에 심부원군 우시는 소리 구천¹⁵¹⁹)에 사무쳐서
 명천¹⁵²⁰)이 아신 바라,
 여태 눈을 못 떴으니,
 이런 천하¹⁵²¹) 몸쓸 놈을 살려주어 쓸 데 있소?
 비수검¹⁵²²) 드는 칼로 당장에 목숨을 끊어주오.”
[아니리] 심황후 이 말을 들으시더니,
 “인수무과리오?¹⁵²³) 개죽위선이라.¹⁵²⁴)
 네 죄를 네가 아는 고로¹⁵²⁵) 시이¹⁵²⁶) 살리노라.
 어서 눈을 뜨라.” 어명하여 놓으니,
 황봉사 그래도 죄가 남아 있어 눈 하나밖에 못 뜬 것이,
 마치 총 놓기¹⁵²⁷) 좋게 떴든가 보드라.
 이런 일을 보더라도 적선지가에 필유여경이요,
 적악지가에 필유여앙이라.¹⁵²⁸)
 어찌 천도¹⁵²⁹)가 없다 이르리오?

While everybody dances in joy, one man, still blind, stands awkwardly and cries.

Empress Sim speaks.

“Even animals opened their eyes.

Why couldn’t that man open his eyes? Report to me about his wrongdoing.”

Mr. Hwang couldn’t open his eyes because he is guilty of seducing Bbaengdeok.

He kneels down on the ground and confesses his bad conduct.

[Jungmori] “Okay. Let me confess my wrongdoing, Your Highness.

Mr. Sim and Bbaengdeok were on their way to the capital city. They dropped by an inn to sleep for the night.

I talked with the landlady, seduced Bbaengdeok, and ran away with her.

That night, Mr. Sim’s cry was so loud that it must have been heard by heaven.

That’s why I haven’t yet opened my eyes.

I am really a bad person. What would be the use of forgiving me?

Please kill me with a sharp sword right away.”

[Aniri] Empress Sim responds,

“Who doesn’t have fault? If you repent, you can become a good person.

Since you repent of your wrongdoing, you are forgiven.

Open your eyes.” She says so.

Mr. Hwang opens only one eye due to his wrongdoing.

His eyes are adequate for shooting a rifle.

The moral is that a good person will be rewarded, and a bad person will be punished.

How can we say that there is no divine law?

55. (후일담) 많은 사람들이 벼슬과 상을 받는다.

[옛중모리] 그 때여 심생원¹⁵³⁰)은 어전에 입시¹⁵³¹)시켜 부원군¹⁵³²)을 봉허시고,
무릉태수 형주자사 좌수사¹⁵³³)로 보내시고,
무릉촌 장승상택 부인은 별급상사¹⁵³⁴) 시키시고,
그 아들은 직품¹⁵³⁵)을 돈오아¹⁵³⁶) 예부상서¹⁵³⁷) 시키시고,
안씨부인 교지¹⁵³⁸)를 내려 정렬부인¹⁵³⁹)을 봉허시고,¹⁵⁴⁰)
화주승¹⁵⁴¹)은 불러올려 당상¹⁵⁴²)을 시키시고,
젓 먹이던 부인들과 귀덕 어머니는 천금상¹⁵⁴³)을 내리시고,
도화동 백성들은 세역¹⁵⁴⁴)을 없앴으니,
천천만만세¹⁵⁴⁵)를 누리더라.
어화, 세상 여러분들! 인간의 백행¹⁵⁴⁶)근본 효도밖에는 없는 것이니,
심청같은 효를 본받아 천추유전¹⁵⁴⁷)을 허옵시다
그 뒤야 뉘 알리오?
이 사람 목도 아프고, 고수 양반 팔도 아플 것이니,
그만 더질 더질 더질.¹⁵⁴⁸)

55. (Subsequent Story) Many people receive government positions and rewards.

[Eotjungmori] The emperor calls Mr. Sim to see him. He officially declares him the father of the empress.

The governor of Paradise Region is transferred to a position of navy.

An award is given to the noble lady in Paradise Village.

Her son was promoted to a higher government position.

A royal order is issued, declaring Mrs. An a virtuous woman.

The Buddhist monk gets a government position.

Properties are granted to Mrs. Gwideok and the women who gave Sim Cheong milk.

Villagers of Peach Blossom Village are exempted from taxes and drafted labor.

The villagers enjoy happy life for a long time.

People, listen to me. Loyalty and filial piety are the most important virtues.

Let's glorify her spirit and pass it onto our descendents forever.

Who could know what happens next?

I feel soar in my throat. The drummer must feel tired in his arms.

So let me finish.

-
- 1) 宋. 중국 역사상 당나라, 오대십국(五代十國)에 이어지는 왕조(960-1279). 처음 개봉(開封)에 도읍하였으나, 1126년 정강(靖康)의 변(수도 개봉이 금나라의 공격으로 함락되고 복송이 망하게 된 사건)으로 강남으로 옮겨 임안(臨安, 杭州)으로 수도를 옮겼다. 개봉시대를 북송, 임안시대를 남송이라고 한다.
 - 2) 元豐. 송나라 신종(神宗)의 연호.
 - 3) 黃州 桃花洞. 중국의 지명.
 - 4) 累代名門巨族. 여러 세대에 걸쳐 이름을 떨친 세력이 있는 집안.
 - 5) 名聲. 좋은 평판.
 - 6) 家運. 집안의 운수.
 - 7) 二十 後. (나이가) 스무 살 이후.
 - 8) 眼盲하니. 눈이 먼니.
 - 9) 洛水靑雲에 발차취 끊어지고, 벼슬길에 나아가지 못하고.
 - 10) 누가.
 - 11) 賢哲하시어. 어질고 총명하시어.
 - 12) 周南. 《시경》 “국풍”의 첫 편 이름.
 - 13) 召南. 《시경》 “국풍”의 편명.
 - 14) 關雎詩. 《시경》 “국풍”편의 첫 시 이름. 주나라 문왕과 그 후비(后妃)의 성덕을 읊은 시인.
 - 15) 百執事可堪.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
 - 16) 일하는 데 드는 힘이나 수고.
 - 17) 冠帶. 본래 벼슬아치가 쓰던 모자와 허리띠를 함께 일컫는 말로, 관리의 복장을 가리 킴.
 - 18) 道服. 도사가 입는 옷.
 - 19) 行衣. 소매가 넓고 검정색 천으로 가를 꾸민, 선비의 옷.
 - 20) 弊衣. 소매가 넓고 뒷술기가 갈라진 옷. 벼슬아치가 평시에 입던 옷.
 - 21) 直衿. 무관이 입던 옷의 하나.
 - 22) 협수(夾袖). ‘동달’이라고도 함. 붉은 소매를 단 검은 두루마기에 붉은 안감 을 넣고 뒷술기를 길게 켜 군복.
 - 23) 快子. 등술기는 길게 찢고, 소매를 달지 않은 무관의 옷.
 - 24) 중치막. 소매가 넓고 길며, 옆이 터져서 네 폭으로 된 남자의 옷.
 - 25) 누비질. 작은 바늘로 가늘게 누비는 바느질.
 - 26) 상침질. 박이웃이나 보료·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겹으로 드러나게 꿰매는 일.
 - 27) 꺾음질. 바느질의 한 종류로 술기를 꺾어서 꿰매는 일.
 - 28) 외울뜨기. 단 하나의 울로 뜯은 망건이나 탕건.
 - 29) 패담. ‘괴불’인 듯. 괴불은 괴불주머니로, 어린 아이들이 주머니끈 끝에 차고 다니는 노리개. 네모진 색 형궤를 귀나게 접어서 속에 통통하게 솜을 넣고, 가에 상침수를 놓으며, 색 끈을 접어서 다는데, 모양은 세모남.

- 30) 고두누비. 곧추누비. 위 아래로 곧게 촘촘히 누비는 바느질.
- 31) 솔오리기. 옷솔기를 오리는 일. ‘솔기’는 옷이나 이부자리를 지을 때 두 폭을 맞대고 꿰맨 줄.
- 32) 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털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총, 곱소리(코끼리의 꼬리털) 또는 머리카락 등으로 그물처럼 만들어 머리에 두르는 물건.
- 33) 簪子. 겨울철에 부녀자가 저고리 위에 덧입는 옷. 조끼와 비슷한데, 주머니와 소매가 없고, 양 옆구리의 귀가 겨드랑이 밑까지 터졌음.
- 34) 토시. 팔뚝에 끼워 추위를 막는데 쓰는 기구. 저고리 소매처럼 생겼는데,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음.
- 35) 行纏. 바지·고의를 입을 때 가든하게 하기 위하여 정강이에 꿰어 무릎 아래에 매는 물건.
- 36) 布帶. 베로 만든 띠.
- 37)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을 뒤에 그 가랑이 끝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줄라매는 좁다란 끈.
- 38) 줌치. 주머니.
- 39) 담배 또는 부시 따위를 싸서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 기름종이·형걸·가죽 따위로 만들.
- 40) 藥囊. 약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
- 41) 筆囊. 붓을 넣어 두는 주머니.
- 42) 揮項. ‘휘양’이라고도 함.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물건으로, 남바위같이 생겼으나 뒤가 훨씬 길고, 목덜미와 뺨까지 싸게 되었음.
- 43) 불끼. 방한구(防寒具)의 하나로, 털가죽이나 형걸 조각에 솜을 놓아 기름하게 접어 만들어서, 두 뺨을 싸서 머리 위에 잡아매.
- 44) 幅巾. 도복(道服)에 갖추어서 머리에 쓰는 쓰개. 검은 형걸로 위는 둥글고 삐죽하게 만들며, 뒤에 넓은 자락이 길게 늘어지고, 양 옆에 끈이 있어 뒤로 돌려 맴.
- 45) 風遮. 머리에 쓰는 방한구(防寒具)의 한 가지. 토끼·여우·수달·곰 같은 것의 모피로 만들며, 앞은 이마까지 오고, 옆은 귀를 덮게 되어 있으며, 뒤로 보면 삼각형임. 남녀의 것이 조금 다름.
- 46) 천의. 치네. 덧덮는 얇고 작은 이불.
- 47) 周衣. 두루마기.
- 48) 갓은. 온갓.
- 49) 衾枕. 이불과 베개.
- 50) 베개의 양쪽 끝에 대는 꾸밈새. 조그마한 널조각에 수를 놓은 형걸을 덮어 끼거나, 화각(畵角)을 대는데, 대개 남자의 것은 네모지게 만들고, 여자의 것은 둥글게 만들. ‘화각’은 목기나 세공품을 곱게 꾸미는 꾸밈새의 한 가지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쇠뿔을 얹게 올려 덧붙임.
- 51) 雙鴛鴦. 두 마리의 원앙새. 한 쌍의 원앙새.
- 52) 毛紗. 털실.
- 53) 角帶. 각띠. 벼슬아치가 예복에 띠던 띠를 통틀어 일컫는 말.
- 54) 胸背. 관복의 가슴과 등에 붙이던, 수를 놓은 형걸. 문관은 학, 무관은 호랑이를 수놓음.

- 55) 학 그리기. 여기서는 ‘학을 수놓기’의 뜻임.
- 56) 宮綃. 비단의 한 가지. 넓고 무늬가 둥근데, 흔히 땀깃감으로 씀.
- 57) 貢緞. 두껍고 무늬가 없으며 윤기 있는 고급 비단.
- 58) 水紬. 수아주. 품질이 좋은 비단의 한 가지.
- 59) 옷감의 한 가지인 듯하나 불명.
- 60) 낙릉. 옷감의 한 가지인 듯하나 불명.
- 61) 甲紗. 품질이 좋은 성글게 짠 비단.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쓰임.
- 62) 雲紋. ‘운문단(雲紋緞)’인 듯. ‘운문단’은 구름 무늬를 수놓은 비단.
- 63) 吐紬. 두껍고 누르스름한 명주.
- 64) 甲紬. 품질 좋은 명주.
- 65) 盆紬. 황해도·평안도에서 나는 명주.
- 66) 縹紬. 오색 빛 명주.
- 67) 明紬. 명주실로 무늬 없이 짠 베.
- 68) 生絹. 생사로 얇게 짠 비단. ‘생사’는 삶아서 익히지 않은 명주실.
- 69) 通絹. 싹 성글고 얇게 짠 비단.
- 70) 造布. 함경북도에서 나는 베의 한 가지. 너비가 좁고 두꺼우며 촘촘하게 짤음.
- 71) 北布. 함경북도에서 나던, 울이 가늘고 고운 삼베.
- 72) 黃紵布. ‘게추리’를 말하는데, ‘게추리’는 경상북도에서 나는 삼베의 한 가지로, 삼 겹질의 겹겹질을 끊어버리고 만든 실로 짠.
- 73) 春布. 강원도에서 나던 베.
- 74) 門布. 삼베의 한 가지로, 중국 책문(柵門) 지방에서 남.
- 75) 게추리. 경상북도에서 나는 삼베의 한 가지로, 삼 겹질의 겹겹질을 끊어버리고 만든 실로 짠.
- 76) 白苧. 잿물에 삶아서 물에 빨아 희고 부드럽게 만든 모시. 눈모시. 흰모시.
- 77) 極上細目. 아주 울이 가늘고 고운 무명.
- 78) 靑·黃·赤·白. 파랑색, 노랑색, 붉은색, 흰색.
- 79) 沈香. 황갈색.
- 80) 各色으로다. 갖가지 색으로. 여러가지 색으로.
- 81) 圓衫. 부녀의 예복으로 갖추는 옷의 한 가지.
- 82) 祭服. 제사를 모실 때 입는 예복.
- 83) 婚葬大事. 혼례나 장례 등 큰 일.
- 84) 熟政. 음식을 만드는 일.
- 85) 갖은. 여러 가지.
- 86) 떡의 한 가지. 뽕쌀가루에 막걸리를 탄 더운 물을 붓고 질척하게 반죽하여, 더운 방에 하루밤쯤 부풀리어 틀에 담아 붓고, 밤·대추·잣 등을 얹어서 찜.
- 87) 中桂. 유밀과의 한 가지.
- 88) 藥果. 과줄. 유밀과의 한 가지. 밀가루를 꿀물 도는 설탕물과 기름에 섞어 반죽을 한 뒤에, 과줄판에 박아서 속까지 검은 빛이 나도록 기름에 지지어 익힌 것.
- 89) 薄橄. 유밀과의 한 종류. 산자의 몸이나 혹은 엿을 얹고 반듯하게 베고, 잣이나 호두

- 따위를 양 쪽에 붙임.
- 90) 茶食. 녹말·콩·송화·황밤·검은깨 등의 가루를 꿀이나 조청에 반죽하여 다식판에 박아낸 음식.
- 91) 正果. 온갖 과일이나 새앙·연뿌리·인삼 따위를 꿀이나 설탕물에 재거나 졸이어 만든 과자.
- 92) 花菜. 꿀이나 설탕을 탄 오미자국에 과실을 썰어 넣거나 꽃잎을 넣고 잣을 띄운 음료.
- 93) 상 위에 놓고 열구자탕을 끓이는 그릇. 구리·놋쇠·은 따위로 만든 대접처럼 생긴 그릇인데, 가운데 숟불을 넣는 통이 있고, 통 주위에 음식을 넣어 끓이며, 밑 부분엔 굽이 있음.
- 94) 饌需. 반찬거리.
- 95) 水波蓮. 잔치 때에 치레로 쓰이는 종이로 만든 연꽃.
- 96) 잔치 때 치레로 쓰는 꽃 따위의 여러 가지 형상을 오려서 만드는 일.
- 97) 排床하기. 상 놓기. 상 차리기.
- 98) 껌질. 떡·과자·과일같은 것을 접시 따위에 높이 담아 올리는 일.
- 99) 手足. 팔다리
- 100) 蠱毒륙. 지치도륙.
- 101) 옛날 엽전의 단위로, 한 돈의 10분의 1.
- 102) 열 푼, 한 냥의 10분의 1.
- 103) 냥. 엽전을 셀 때 열 돈에 해당하는 단위.
- 104) 貫돈. 엽전 열 냥에 해당하는 돈.
- 105) 日收. 본전에 이자를 얹어서 일정한 날짜에 나누어 날마다 얼마씩 갚아나가는 일, 또는 그 빚.
- 106) 遞計. 장체계(場遞計). 장에서, 비싼 이자로 돈을 꾸어주고 장날마다 본전에 이자를 얹어 받아들이는 일.
- 107) 長利邊. 장리로 받는 이자. '장리'는 곡식이나 돈을 꾸어주고, 받을 때에는 한 해에 본전의 절반을 이자로 받는 일.
- 108) 春秋時享. 봄 가을에 가묘(家廟)나 5대조 이상의 산소에 가서 드리는 제사. 묘사.
- 109) 奉祭祀. 제사를 받들어 모심.
- 110) 始終이如一하니. 처음과 끝이 한결같으니.
- 111) 上下隣里. 위 아래의 가까운 마을.
- 112) 하루는.
- 113) 무슨.
- 114) 이승. 지금 살고 있는 세상.
- 115) 恭待. 공손하게 잘 대접함.
- 116) 便타. 편하다.
- 117) 어렵고 고되게 꾸러가는 살림살이.
- 118) 至願. 지극히 바램. 또는 그런 소원이나 염원.
- 119) 年將四十이나. 나이가 곧 40이 되지만.
- 120) 膝下. 아버지나 조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 121) 一點血肉. 단 하나의 자식.
- 122) 先塋. 선산(先山). 조상의 무덤, 또는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
- 123) 香火. 향불. 제사를 올릴 때 피우는 향불.
- 124) 死後. 죽은 후.
- 125) 初終葬事. 초상난 뒤부터 졸곡(卒哭)까지. 곧 사람이 죽은 때부터 장례를 다 마치기까지의 일.
- 126) 小大祥. 소상(小祥)과 대상(大祥)을 아울러 이르는 말. '소상'은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 '대상'은 사람이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 127) 年年이. 해마다.
- 128) 오는.
- 129) 忌日. 해마다 돌아오는 제삿날.
- 130) 名山大刹.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 131) 神供. 신에게 바치는 공양.
- 132) 男女間에.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간에.
- 133) 家君. 남에게 자기의 아버지나 남편을 이룰 때 씀.
- 134) 正大하신. 바르고 옳아서 사사로움이 없으신.
- 135) 發說. 입 밖에 냄.
- 136) 不孝三千에 無後爲大. 삼천 가지나 되는 불효 중에 후손 없는 것이 제일 큼.
- 137) 온갖.
- 138) 靈神堂. 부처와 여러 신을 모신 집.
- 139) 古廟. 오래 된 사당.
- 140) 叢祠. 여러 신을 모신 사당.
- 141) 釋王寺. 석가모니를 모시는 절.
- 142) 石佛. 돌부처.
- 143) 미륵보살. 돌로 만든 부처.
- 144) 허위허위. 허위적거리는 모양.
- 145) 袈裟시주. 중이 입은 옷인 가사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을 대는 일.
- 146) 引燈시주. 부처 앞의 등불을 켜는데 쓰는 기름을 사서 바치는 일.
- 147) 窓糊시주. 절에 있는 방의 문에 문종이를 발라주는 일.
- 148) 十王佛功. 시왕전에 드리는 불공. '시왕(十王)'은 저승에서 죽은 사람을 재판한다고 하는 열 명의 대왕
- 149) 七星佛功. 칠성각에 드리는 불공. '칠성각'은 북두칠성을 모신 전각.
- 150) 羅漢佛功. 나한전에 드리는 불공. '나한'은 생사를 이미 초월하여 배울 만한 법도가 없게 된 자리의 부처.
- 151) 힘을 들인.
- 152) 나무.
- 153) 甲子 四月 初八日夜. 갑자년 4월 8일 밤.
- 154) 蟠空. 공중에 어림.
- 155) 五彩. 파랑·노랑·주홍·검정·흰색 등 다섯 가지 색깔. 갖가지 색깔.

- 156) 하늘의.
- 157) 玉京. 하늘 위의 옥황상제가 산다는 상상 속의 서울.
- 158) 花冠. 칠보로 꾸민 여자의 관.
- 159) 圓衫. 부녀가 예복으로 갖추던 옷옷인데, 흔히 비단이나 명주를 사용하며, 연두 길에 자주깃과 색동 소매를 달고 옆을 터서 지음.
- 160) 桂花가지. 계수나무의 가지.
- 161) 拜禮. 절을 함.
- 162) 正身. 부처나 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에 의탁하여 태생하는 육신.
- 163) 山上에. 산 위에.
- 164) 觀音. 관세음보살.
- 165) 海中에. 바다 가운데.
- 166) 皓齒. 흰 이빨.
- 167) 半開하고. 반만 열고.
- 168) 灑玉聲. 옥을 씻는 소리. 곧 그렇게 고운 목소리.
- 169)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들었던 선녀.
- 170) 蟠桃. 선도 복숭아. 삼천 년에 한 번씩 꽃이 피고 열매가 연다고 함.
- 171) 進上. 윗사람에게 바침.
- 172) 玉眞妃子. 옥진 낭자라고도 하는 선녀.
- 173) 數語. 몇 마디 말.
- 174) 酬酌. 서로 말을 주고받음.
- 175) 늦었기 때문에.
- 176) 上帝前. 옥황상제(玉皇上帝)께. ‘옥황상제’는 도가에서 하느님을 이르는 말.
- 177) 得罪하여. 죄를 얻어.
- 178) 人間. 사람 사는 세상.
- 179) 내쫓으시므로.
- 180) 太上老君. ‘노자’를 도가에서 높여 부르는 말.
- 181) 后土夫人. 당나라 때 중국인들이 받들던 신. 중국 양주에 가면 이 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다고 함.
- 182) 諸佛菩薩. 여러 부처님과 보살.
- 183) 南柯一夢. 한 때의 헛된 꿈.
- 184) 兩主. 바깥주인과 안주인으로 부부를 이르는 말.
- 185) 夢事. 꿈에 나타난 일.
- 186) 胎氣. 아이를 밴 기미.
- 187) 席不正不坐. 좌석이 반듯하지 않으면 앉지 않음. 태교(胎教)의 한 가지.
- 188) 割不正不食. 반듯하게 썬 것이 아니면 먹지 않음. 태교(胎教)의 한 가지.
- 189) 耳不聽淫聲.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190) 目不視惡色. 눈으로는 좋지 않은 색깔을 보지 않음.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이 실천했다는 태교의 한 가지.

- 191) 立不中門. 문지방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올라서지 않음. '문지방'은 출입문 밑의 두 문설주 사이에 마루보다 조금 높게 가로로 댄 나무.
- 192) 坐不中席. 가운데 자리에 앉지 않음. 가운데 자리는 높은 사람의 위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태교와 관련이 없으며, '좌불변(坐不邊)'(한 쪽으로 치우치게 앉지 않음. 곧 바로 앉음)으로 해야 할 듯함.
- 193) 十朔日. 열 달.
- 194) 然後. 그런 뒤.
- 195) 解腹. 해산(解產). 출산.
- 196) 一邊. 어느 한편으로는.
- 197) 자꾸 밀어 넣거나 뽑아내는 모양.
- 198) 섞여 있는 것에서 여럿을 골라내어.
- 199) 井華水. 이른 새벽에 길은 물.
- 200) 小盤. 자그마한 밥상.
- 201) 坐不安席.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 군데에 가만히 오래 앉아있지를 못함.
- 202) 順產. 아무 탈 없이 아이를 낳음.
- 203) 香臭. 향기로운 냄새.
- 204) 彩雲. 채색 구름. 여러 가지 색깔의 구름.
- 205) 昏迷中. 정신이 헛갈리고 가물가물하여 희미한 가운데.
- 206) 仙人玉女. 신선의 딸처럼 아름답고 고운 딸.
- 207) 晚得. 늦게 얻음.
- 208) 辱及先榮. 욕됨이 조상에까지 미침.
- 209) 禮儀凡節. 일상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모든 예의와 절차.
- 210) 針線. 바느질.
- 211) 紡績. 길쌈.
- 212) 窈窕淑女. 말과 행동이 품위가 있으며 얌전하고 정숙한 여자.
- 213) 君子好逑. 훌륭한 남자의 좋은 배필.
- 214) 富貴多男. 부귀하고, 아들을 많이 둬.
- 215) 外孫奉祀. 외손이 제사를 받들어 모심.
- 216) 해산 후 산모가 처음으로 먹는 밥과 국. 주로 미역국과 흰 밥을 먹음.
- 217) 三神床. 삼신에게 바칠 음식을 차려놓은 상. '삼신'은 아이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민속의 세 신.
- 218) 이와 같은 사람. 보통 사람.
- 219) 같다고 한다면.
- 220) 온순하지 못하고 급하며 화를 잘 내는 성질.
- 221) 三神. 아이 낳는 일을 맡고 있다는 민속의 세 신.
- 222) 帝王님네. 여러 신들.
- 223) 三千里. 여기서는 '아주 먼 거리'를 가리킴.
- 224) 三十三. 불교 용어로 도리천(忉利天)이라고도 한다. 사람이 생사 윤회하는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의 세 세계 가운데서 욕계의 둘째 하늘.

- 225) 忉率天. 육계의 여섯 하늘 가운데 넷째 하늘. 내외의 두 원(院)이 있는데, 내원은 미륵 보살이 살며 석가의 교화를 받지 못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며, 외원은 천중(天衆)의 환락(歡樂)장소라고 함.
- 226) 神佛帝釋. 제석신. 제석천. '제석천'은 수미산 꼭대기에 있는 도리천의 임금으로, 사천 왕과 삼십이천을 통솔하면서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아수라의 군대를 정벌한다고 한다.
- 227) 和爲同心. 서로 화합하여 한 마음이 됨.
- 228)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사람의 형체가 생기기 시작함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
- 229) 묶은 것이 되직하여지고.
- 230) 人形. 인간의 형체.
- 231) 생겨.
- 232) 五包. 오장(五臟). 사람 몸의 다섯 가지 내장인 간장, 심장, 신장, 폐장, 비장.
- 233) 여기서는 '생기고'의 뜻.
- 234) 육부(六腑)를 이르는 말임. 육부는 사람 뱃속의 여섯 가지 기관인 쓸개, 위, 대장, 소장, 삼초(위의 상부, 위 부분, 배꼽 아래 부분을 아울러 일컫는 말), 방광.
- 235) 七竅. 사람 얼굴에 있는 귀, 눈, 코, 입의 일곱 개 구멍. 칠성 구멍이라고도 함.
- 236) 九竅. 칠구에다 똥, 오줌 구멍을 합한 아홉 개의 구멍.
- 237) 찬 김 받아. 곧 열 달이 다 찬 기운을 받아.
- 238) 金剛門. 금강석같이 단단한 문. 곧 여자의 음문(陰門).
- 239) 下達門. 아래로 통하는 문. 곧 여자의 음문.
- 240) 白骨難忘. 죽어서 흰 뼈가 되어도 은혜를 잊지 못한.
- 241) 獨女. 외딸. 하나밖에 없는 딸.
- 242) 東方朔. 한(漢)나라 무제 때의 사람.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는데, 속설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하였다고 함.
- 243) 太任. 주(周)나라 왕계(王季)의 아내이자 문왕(文王)의 어머니. 왕계의 어머니인 태강(太姜), 문왕의 아내인 태사(太姒)와 더불어 주나라 왕실의 세 어머니로 꼽히며, 여진 아내의 표상으로 받들린다.
- 244) 大舜. 순임금
- 245) 曾子. 공자의 제자로, 효행에 뛰어났으며, 《대학(大學)》을 편했음.
- 246) '기량식의 처(杞梁殖의 妻)'의 잘못. 기량식은 제나라 사람으로, 제나라의 장공(莊公)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다. 그의 처가 그 시체를 끌어안고 열흘이나 울자 마침내 성이 무너졌다. 기량식의 처는 남편을 장사 지내고, 치수(淄水)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 247) 班姬. 반첩여(班婕妤). 첩여는 '궁녀'의 뜻. 자(字)는 혜희(惠姬). 한나라 사람으로 문장과 재능이 뛰어났다. 성제(成帝) 때 뽑혀서 첩여가 되었으나 조비연(趙飛燕) 자매에게 미움을 받아 장신궁(長信宮)으로 몰려가 태후(太后)에게 시중을 드는 동안 〈원가행(怨歌行)〉을 지었음.
- 248) 才質. 재주와 기질.
- 249) 알 수 없음. 다른 사람들은 '석숭'으로 부른다. '석숭(石崇)'은 중국 진(晉)나라 남안(南安) 사람으로, 자는 계륜(季倫). 벼슬길에 나서 형주자사(荊州州使)를 거쳤으며, 뒤에

무력으로 큰 부자가 되어 금곡원(金谷園)에서 천하일색 녹주(綠珠)와 행복(幸樂)을 누렸다 함. 땀나뭇 대신 촛불을 사용하고, 50리나 되는 비단의 장막을 만들 정도로 낭비벽이 심했다고 한다. 권신 사마소(司馬昭)의 인척인 왕개(王愷)와 부를 다투었으나 왕개가 항상 졌다고 한다. 사마륜(司馬倫)에 의해 살해되었다.

- 250) 오이가 자라듯이.
- 251) 달이 점점 차듯이.
- 252) 자주 앓는 자질구래한 병.
- 253) 日就月將. 나날이 다달이 진보하거나 자라남.
- 254) 산모가 아이를 낳고 먹는 미역국과 밥을 이르는 말.
- 255) 그때에.
- 256) 産後. 출산 후. 아이를 낳은 후.
- 257) 일할 사람.
- 258) 産後別症. 아이를 낳은 후에 조섭을 잘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병 증세.
- 259) 온 몸의 근육과 뼈마디.
- 260) 家君. 남편, 혹은 자기 아버지.
- 261) 家君님. '가군'은 남편, 혹은 자기 아버지.
- 262) 偕老百年. 백년이나 살아 함께 늙음.
- 263) 忘世. 죽음을 가리키는 말.
- 264) 初終葬事. 초상난 뒤부터 졸곡(卒哭)까지. 곧 사람이 죽은 때부터 장례를 다 마치기까지의 일.
- 265) 죽자고 했더니.
- 266) 天命. 타고난 수명.
- 267) 끊어졌는지.
- 268) 어쩔 수 없이.
- 269) 뉘라서. 누가.
- 270) 朝夕恭待. 아침저녁으로 잘 받들어 모심.
- 271) 四顧無親. 사방을 둘러보아도 친한 사람이 없음. 곧 의지할 사람이 없음.
- 272) 孑子單身. 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 273) 依託. 남에게 의지하고 부탁함.
- 274) 전혀 없어.
- 275) 지팡이.
- 276) 아무렇게나 함부로 짓고.
- 277) 구렁. 땅이 움푹 패어 들어간 곳.
- 278) 身世自歎. 일신상의 형편을 스스로 한탄함.
- 279) 모양.
- 280) 飢寒. 굶주림과 추위.
- 281) 家家門前. 집집마다 문 앞에.
- 282) 魂魄. 님.
- 283) 名山大刹. 이름난 산에 있는 큰 절.

- 284) 神供. 신이나 부처님께 드리는 공.
 285) 愍視. 사람을 업신여겨 하찮게 대함.
 286) 걸으면.
 287) 찾아오셔서.
 288) 墳墓. 무덤.
 289) 母女相面. 어머니와 딸이 서로 만남.
 290) 無窮. 끝이 없음.
 291) 숨이 몹시 차서.
 292) 주려고.
 293) 어린 아이의 머리에 씌우는 수놓은 모자의 한 가지.
 294) 金字. 금실로 수놓은 글자.
 295) 짙은 옥색 판.
 296) 紅絲. 붉은 색 비단 실.
 297) 술, 책상보다 커튼 또는 띠·끈 따위의 끝에 장식으로 다는 여러 가닥의 실.
 298) 장막같은 데 꾸밈새로 늘어뜨린 좁은 형짚이나 줄 따위.
 299) 부전. 여자아이들의 노리개의 한 가지. 고운 색 형짚을 둥글거나 혹은 병 모양같이 만들어서 두 쪽을 맞대고 수를 놓기도 하며, 다른 색깔의 형짚으로 알록달록하게 바르기도 하여 끈을 매어 참.
 300) 新行函. 혼인한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함.
 301) 下賜하신. 윗사람이 내려주신.
 302) 壽福康寧. 오래도록 살고 행복하며, 몸이 건강하고 평안함.
 303) 太平安樂. 태평하고 평안하며 즐거움.
 304) 양쪽에.
 305) 紅氈. 홍색의 모직물.
 306) 괴불주머니. 어린애들이 주머니끈 끝에 차고 다니는 노리개. 네모진 색형짚을 귀나게 접어서 속에 통통하게 솜을 넣고 가에 상침수를 놓으며, 색 끈을 접어서 다는데, 모양은 세모남.
 307) 끼던.
 308) 玉指環. 옥가락지.
 309) 진작. '미리'의 뜻으로 '바로 그 때에.'
 310) 생기거나. 태어나거나.
 311) 조금.
 312) 끝이 없는.
 313) 窮天之痛. 하늘까지 닿는 지극한 아픔.
 314) 너로.
 315) 죽는.
 316) 生死間에. 삶과 죽음 사이에.
 317) 무슨.
 318) 亡終. 마지막.

- 319) 북받치는 감정이 대단히 참기 어려워.
- 320) 颯颯悲風. 구슬프게 부는 바람.
- 321) 簫簫細雨. 쓸쓸하게 내리는 가랑비.
- 322) 딸꾹질.
- 323) 크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닿아) 세계 부딪칠 때에 거칠게 나는 소리, 또는 그렇게 내는 소리.
- 324) 醫家. 의원집.
- 325) 水一升煎半服. 물 한 되를 붓고 절반이 될 때까지 달여 먹음.
- 326) 잡수십시오. 드십시오.
- 327) 卽效. 즉시 나타나는 효력.
- 328) 食飲. 먹고 마시는 일.
- 329) 全廢터니. 전폐하더니. 아주 없애버리더니. 전혀 듣지 않더니,
- 330) 氣虛. 원기가 허약함.
- 331) 콧구멍.
- 332) 김,
- 333) 아름. 두 팔을 등글게 모아 만든 둘레 안에 들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 334) 아름차면. 힘에 겨우면.
- 335) 울지도.
- 336) 크고 단단한 물건이 서로 (맞닿아) 세계 부딪칠 때에 거칠게 나는 소리, 또는 그렇게 내는 소리.
- 337) ‘메어치고’를 강조하는 말. ‘메어치다’는 어깨 너머로 둘러메어 힘껏 내리치다.
- 338) 사이에.
- 339) 病不能殺人. 병은 사람을 죽이지 못함.
- 340) 藥能活人. 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 341) 지으려도.
- 342) 西天西域. 옛날에 인도를 이르던 말.
- 343) 蓮花世界. 연꽃이 피어 있는 세계. 불교에서 극락을 뜻함.
- 344) 還生次로. 다시 태어나기로.
- 345) 眞言. 주문(呪文).
- 346) 가슴.
- 347) 두드리며.
- 348) 목접이질. 목이 부러진 것처럼 힘없이 꺾여 숙여지는 동작.
- 349) 아래로 내려가면서 뒹굴.
- 350) 위로 올라가며 뒹굴.
- 351) 雪寒風. 눈 섞인 찬바람.
- 352) 三千碧桃. 삼천 년에 한 번 꽃이 피고 열매가 여는, 신선 세계에 있다는 복숭아.
- 353) 瑤池宴.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요지 연못에서 신선들이 벌이는 잔치.
- 354) 西王母. 옛날 중국에서 받들었던 선녀(仙女). 성(性)은 양(楊), 이름은 회(回). 산해경(山海經)에는 그 모양이 반인(半人) 반수(半獸)로 표범의 꼬리에 범의 이를 가지고,

- 더벅머리에 풀다리(풀로 만든 머리 장식)를 썼다 함. 그 여자의 남쪽에는 세 청조(靑鳥)가 있어서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다 함.
- 355) 黃陵廟.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모신 사당.
- 356) 二妃.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 357) 懷抱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
- 358) 天上의. 하늘에서.
- 359) 정성을 다하러. ‘공을 닦다.’는 말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정성을 기울이다.’
- 360) 엎어져. ‘엎드려지다’는 실수나 고장으로 엎어지다.
- 361) 此所謂. ‘이것이야말로’를 한문투로 일컫는 말.
- 362) 칭찬하는.
- 363) 賢哲. 어질고 슬기로움.
- 364) 어떤 일이 매우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모양.
- 365) 才談. (익살부리며) 재치 있게 하는 재미있는 말.
- 366) 初終祭禮. 초종장례(初終葬禮)를 가리킨 뜻. ‘초종장례’는 초상이 난 때부터 졸곡(卒哭, 사람이 죽은 뒤 석달 후 첫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려 지내는 제사)까지 장례의 모든 과정.
- 367) 小方牀. (본래는 대방상을 쓰는 법인데) 대방상을 쓰기 어려운 좁은 곳에서 쓰던 상여. 높은 벼슬아치의 장사에 썼음. ‘대방상(大方牀)’은 큰 상여로서, 높은 벼슬아치만 쓸 수 있었음.
- 368) 땃돌에서 집채 쪽으로 있는 좁고 긴, 벽 밖의 뜰. ‘땃돌’은 집채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안 쪽으로 마당보다 높게 둘러가며 놓은 돌.
- 369) 행하니 높게.
- 370) 銘旌. 긴 주홍빛 천에다 죽은 사람의 관직·본관·성씨 따위를 적어, 장대에 달아 상여 앞에 들고 갔다가 관위에 함께 묻는 깃발.
- 371) 功布. 삼베를 다섯 자 내지 여섯자로 잘라서, 상여 앞에 명정과 함께 들고 갔다가, 관을 묻을 때 관을 닦는 데 쓰는 수건.
- 372) 襲扇. 운불삽(雲蔽襲). 운삽과 불삽. 모두 상여가 나갈 때 상여 앞 뒤에 세우고 가는 것들인데, ‘운삽’은 구름 무늬를 그린 부채 모양의 널판이며, ‘불삽’은 쏘아 형상을 그린 널조각임.
- 373) 等物. 등등의 물건.
- 374) 運喪. 상여를 메고 운반함.
- 375) 忘勞而歌. 힘드는 일을 잊어가며 노래를 부름.
- 376) 상두소리. 상여소리. 상여를 메고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
- 377) 搖鈴. 손에 들고 흔들여 소리를 내는, 작은 종처럼 생긴 기구. 상여가 나갈 때 앞에서 흔들며 소리를 메김.
- 378) 별다른 의미가 없는 후렴구임.
- 379) 北邙山川. 중국의 낙양성 가까이 공동묘지가 있던 언덕들을 통틀어 일컫던 말로, ‘묘지’ 또는 ‘저승’의 뜻.
- 380) 案山.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뒤편의 앞에 있는 산을 가리킴.

- 381) 才質. 사람의 됨됨이와 쓸모 있는 소질.
 382) 特殊티니마는. 특수하더니만.
 383) 春草. 봄풀.
 384) 年年緣. 해마다 다시 푸르러짐.
 385) 王孫. 왕의 자손.
 386) 歸不歸. 가서는 돌아오지 않음. 곧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오지 못한다는 말.
 387) 遠山. 먼 데 산.
 388) 인정(人定). 통행금지를 알리기 위하여 종을 치던 일. 매일 밤 10시경에 28번을 쳤는데 이에 따라 성문(城門)을 닫았다.
 389) 罷漏. 조선 시대에, 서울에서 통행금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종각의 종을 서른 세 번 치던 일. 오경 삼점(五更三點)에 쳤다.
 390) 여자 종을 대접하여 이르는 말.
 391) 開門. 문을 열.
 392) 종달새.
 393) 불명. 혹 '50 길'일 수도 있음. '길'은 자기 키만큼의 길.
 394) 西天. 서쪽 하늘.
 395) 明月. 밝은 달.
 396) 兒孩. 아이.
 397) 襁褓. 포대기.
 398) 귀덕어미에게.
 399) 屈冠. 상복(喪服)을 입을 때 두건 위에 덧쓰는 건(巾).
 400) 祭服. 상복. 성긴 삼베로 만들되, 그냥 호거나 혹은 재단만 하고, 바느질을 곱게 하지 않음.
 401) 상여.
 402) 가마나 상여 또는 들것 따위의 뒤의 사람이 메거나 들게 된 부분.
 403) 거머쥐어 잡고.
 404) 山疊疊路茫茫. 산은 겹겹이 둘러 있고, 길은 아득히 멀.
 405) 日沈沈雲暝暝. 날은 저물고 구름은 어두움.
 406) 酒店. 주막. 쉬어갈 주막.
 407) 夫唱婦隨. 남편이 부르면 아내는 따라서 한다는 뜻으로, 부부가 서로 뜻이 잘 통하여 화합한다는 뜻.
 408) 정이 넘치는 따뜻한 마음.
 409) 나와.
 410) 가십시다. 갑시다.
 411) 安葬. 편안히 장사지냄.
 412) 平土祭. 관을 묻은 후에 흙을 덮어 원래의 바닥 높이와 같게 한 뒤에 지내는 제사.
 413) 三十 前. 삼십 세 전. 서른 살 전.
 414) 眼盲. 눈이 멀.
 415) 옛 글. 곧 한문.

- 416) 祝文. 제사 때 읽어 신명께 고하는 글.
 417) 讀祝. 축문을 읽음.
 418) 嗟呼 婦人. 아, 슬프다, 부인이여.
 419) 邀此窈窕淑女兮여. 이렇게 어진 여자를 맞아들였으니.
 420) 行不苟兮古人이라. 행동거지가 옛 사람에 견주어 뒤지지 않는다.
 421) 期百年而偕老. 백 년을 기약하고 함께 늙자 함. 곧 ‘늙도록 오래 같이 살자’는 말.
 422) 忽然沒兮焉歸오. 갑자기 죽었으니 어찌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오.
 423) 遺稚子而永逝兮여. 어린 자식을 남겨 놓고 영원히 가버렸구나.
 424) 저것을. 저 아이를.
 425) 淚散散而沾襟兮여. 눈물이 여기저기 흠어져 옷깃을 적시는구나.
 426) 지는. 떨어지는.
 427) 心耿耿而消魂兮.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근심으로 낮이 나갔구나.
 428) 酒果脯醢. 술, 과일, 말린 고기, 식혜. 제삿상을 차리는 기본 음식.
 429) 薄奠이나. 변변치 못한 제사이나.
 430) 萬事. 모든 일.
 431) 모두.
 432) 거머쥐어.
 433) 北邙山川. 묘지가 있는 곳. 사람이 죽어 가는 곳을 이르는 말.
 434) 松竹. 소나무와 대나무.
 435) 울타리.
 436) 杜鵑. 두견새. 소쩍새. 주나라 말기에 촉지방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고 일컬었던 두우(杜宇), 곧 망제(望帝)는 신하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혼이 두견새가 되어 ‘귀촉도’ 또는 ‘불여귀’라고 운다고 함.
 437) 老而無妻鰥夫라니. 늙어서 아내가 없는 사람을 환부(홀아비)라고 하니.
 438) 四窮. 늙은 홀아비, 늙은 홀어미, 부모 없는 아이, 자식 없는 늙은이를 통틀어 일컫는 말.
 439) 말인가?
 440) 어쩔 수 없이.
 441) 洞人들. 동네 사람들.
 442) 失性發狂. 제 정신을 잃고 미침.
 443) 미치는데.
 444) 얼싸절싸. 흥이 나서 뛰노는 모양.
 445) 지팡이.
 446) 아무렇게나 함부로 짚고.
 447) 蹤迹. (없어지거나 떠난) 뒤에 남는 자취나 형상.
 448) 전혀 없네.
 449) 氣盡. 기운이 다하여 힘이 없어져.
 450) 울지.
 451) 洛陽東村. 중국 낙양성의 동쪽 마을.
 452) 梨花亭의 淑娘子. 숙향은 송나라 때의 미인인데, 난리를 만나 부모와 헤어지고, 천태산

- 에서 마고선녀를 만나, 이화정에서 수를 놓으며 살게 되었다고 함.
- 453) 竹上之淚. 대나무 위의 눈물. 순임금이 창오산에서 죽자 두 부인인 아황과 여영이
쫓아와 슬피 울다 죽었는데, 그 피눈물이 소상강 가의 대나무에 묻어 소상 반죽(알록
무늬가 있는 대)이 되었다고 하는 전설이 있음.
- 454) 二妃.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
- 455) 온다고 하는.
- 456) 剛木水生. 바짝 마른 나무에서 물이 남. 곧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457) 兒孩. 아이.
- 458) ‘메어치며’를 강조한 말. 어깨 너머로 둘러메어 힘껏 내려치며.
- 459) 초칠일(初七日).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 460) 잡아먹었느냐? 죽게 했느냐?
- 461) 두레박. 줄을 길게 매어 물을 끄는 도구. 바가지나 판자 또는 양철로 만들.
- 462) 흠어 쥘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쥘고.
- 463) 人事. 사람의 일.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
- 464) 初七. 초칠일(初七日).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 465) 氣虛. 원기가 허약함.
- 466) 鐵石. 쇠와 돌. 그렇게 인정 없는 사람.
- 467) 盜拓. 중국 춘추시대의 큰 도둑. 공자와 같은 시대의 노나라 사람. 현인 유하혜(柳下惠)
의 아우로, 그의 도당 9천 명과 함께 전국을 횡횡했다고 함.
- 468) 兒孩. 아이.
- 469) 어렵게. 어렵다고.
- 470) 壽福康寧. 명이 길고, 복이 많고, 건강함.
- 471) 심하게 내리쬘는 여름의 뜨거운 별.
- 472) 白石清灘. 흰 돌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경치가 아름다운 여울.
- 473) 몇 돈 되는 돈. ‘돈’은 한 냥(兩)의 십분의 일.
- 474) 몇 되 되는 쌀.
- 475) 암쌀. 암죽 끓인 쌀. ‘암죽’은 어린 아이에게 젓 대신 먹이려고 곡식이나 밤 가루로
물게 끓인 죽.
- 476) 언덕.
- 477) 무엇을 보여주거나, 들려주거나, 흔들어주거나 하여 어린 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준다.
- 478) 보통처럼.
- 479) 富貴多男.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지위가 높으며, 아들을 많이 낳음.
- 480) 아버지의 귀여움.
- 481) 쌀 다섯 섬 속의 뉘(쌀 속의 겉질이 벗겨지지 아니한 벼 알갱이) 하나처럼 아주 귀한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482) 소경 열 명에 막대기 하나처럼 소중한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483) 귀한 자식.
- 484) 슬슬.

- 485) 金子童. 금자동이. 어린아이를 금처럼 보배롭고 귀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486) 玉子童. 옥자동이. 어린아이를 옥처럼 보배롭고 귀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487) 周遊天下無雙童.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며 찾아보아도 둘도 없는 귀한 아이.
 488) 달 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토끼. 털빛이 흰 토끼.
 489) 불명. ‘진주(珍珠)씨’라고 하기도 한다. ‘진주씨’는 작은 진주를 가리킨 듯.
 490) 密花佛手. 보석의 일종인 밀화로 부처 손같이 만든 패물.
 491) 어린 아이에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재롱을 시키려고 하는 소리.
 492) 어린 아이를 안고 어르면서 하는 말. ‘자장자장’이라는 의미.
 493) 어린 아이에게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재롱을 시키려고 하는 소리, 또는 그 짓.
 494) 줄을 길게 달아 우물물을 퍼 올리는 데 쓰는 도구. 바가지나 판자 또는 양철 따위로 만든다.
 495) 들랑날랑. 자꾸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모양.
 496) 아이를 어르면서 내는 소리.
 497) 이불.
 498) 동냥을 하려고.
 499) 纏帶. 무명이나 베 헝겊으로 길게 자루를 만들어, 양쪽 끝은 터 놓고, 가운데는 막았는데, 양쪽 터진 곳으로 돈이나 물건을 넣어 허리에 차기도 하고, 어깨에 매기도 함.
 500) 한 덩어리로 만들어.
 501) 둘러메고.
 502) 벼.
 503) 암죽을 끓일려고.
 504) ‘허위허위’의 방언. 손발을 내두르며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양.
 505) 日就月將. 몸, 마음, 학문 등이 날로 달로 진보함.
 506) 忌祭祀. 삼 년 상이 끝난 후, 해마다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507) 供養事. 웃어른을 모시어 음식을 마련해 드리는 일.
 508) 依法이. 법도에 맞게.
 509) 無情歲月. 덧없이 흘러가는 빠른 세월.
 510) 朝夕供養. 웃어른을 모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음식을 잘 대접하는 일.
 511) 하겠나이다. 하겠습니까.
 512) 困窮. 가난하여 살림이 구차함.
 513) 無男獨女. 아들 없이 하나 있는 딸.
 514) 금지의 뜻으로 하는 말.
 515) 들어보십시오.
 516) 子路. ‘자로’는 공자의 제자. 노나라 사람으로, 성은 중(仲), 이름은 유(由)임. ‘자로’는 그의 자(字).
 517) 賢人. 어질고 총명하여 성인의 다음 가는 사람.
 518) 百里를 負米하고. 자로가 부친 봉양을 위해 백 리나 떨어진 곳에서 쌀을 구해 짊어지고 온 일을 가리킴.
 519) 淳于意. 한나라 문제(文帝) 때 태창령(太倉令). 국고금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낙양의

- 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딸 제영이 몸을 관비(官婢)로 팔아 속죄하였다.
- 520) 醜榮. 한나라 문제(文帝) 때 태창령(太倉令) 순우의의 딸. 그의 아버지 순우의가 국고
금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낙양의 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 제영이 몸을 관비(官婢)로
팔아 속죄하였다.
- 521) 洛陽. 고대 중국의 수도.
- 522) ‘아버지’를 낮추어 일컫는 말.
- 523) 贖罪. (물질적으로나 그밖의 방법으로) 저지른 죄나 과오를 씻음.
- 524) 空林. 빈 숲. 낙엽이 진 겨울 숲.
- 525) 反哺恩. 새새끼가 자란 후에 늙은 어미새에게 밥을 물어다 은혜를 갚는 일.
- 526) 微物. 작고 보잘 것 없는 동물.
- 527) 誠意. 정성스러운 뜻.
- 528) 바지.
- 529)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 끝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매
는 좁다란 끈.
- 530) 말기. 치마나 바지 따위의 맨 위, 허리에 둘러댄 부분.
- 531) 치마.
- 532) 옷깃. 저고리나 옷옷의 목에 둘러대어 앞으로 여미는 부분.
- 533) 어떤 사물의 윗부분.
- 534) 길버선. ‘길 갈 때 신는 버선’인 듯.
- 535) 검푸른 물을 들인 무명.
- 536)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모자의 한 가지. 남바위같이 생겼으나, 뒤가 훨씬 길고 목덜미와
뺨까지 싸게 되었음.
- 537) 바가지.
- 538) 遼山. 먼 산. 멀리 떨어져 있는 산.
- 539) 을씨년스럽고 걱정스러운 모양.
- 540) 衰矜히. 불쌍하게.
- 541) 初七. 초칠일(初七日). 태어난 지 7일째 되는 날.
- 542) 十匙一飯. 열 손가락의 밥이면 한 그릇 밥이 된다는 말.
- 543) 추운.
- 544) 하겠나이다. 하겠습니까.
- 545) 그릇에 담은 밥, 혹은 그릇에 담은 만큼의 밥.
- 546) 醬. 간장, 된장, 고추장을 통틀어 일컫는 말.
- 547) 厚히. 마음 씀씀이가 너그럽게. 많이.
- 548) 기다리니.
- 549) 먹사오리카. 먹겠습니까.
- 550) 父親前에서. 부친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 551) 못한지라. 충분한지라.
- 552) 나을 때는.
- 553) 遼山. 멀리 있는 산.

- 554) 半日. 반나절.
- 555) 시장하지는. 배가 고프지.
- 556) 미역을 말려 기름에 튀긴 반찬의 일종.
- 557) ①물고기를 소금에 절인 반찬감, 또는 그것을 굽거나 찌서 만든 반찬감. ②나물이나 해산물 같은 것에, 간장이나 참싹풀을 발라 말린 다음, 굽거나 기름에 튀겨 만든 반찬.
- 558) 찹다.
- 559) 如流하여. 흐르는 물과 같이 빨라서.
- 560) 孝行. 효성스런 행동.
- 561) 出天. 하늘이 났. 아주 뛰어난.
- 562) 一色. 아주 뛰어난 미인.
- 563) 遠近에. 멀고 가까운 곳에. 곧 널리 여기저기에.
- 564) 狼藉. 매우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음.
- 565) 張丞相宅 夫人. 승상 벼슬을 한 장씨 성을 지닌 사람의 부인. '승상'은 옛 중국의 벼슬로 우리나라의 정승과 같음.
- 566) 侍婢. 시중드는 여자 종.
- 567) 父親前. 아버지께.
- 568) 切親. 매우 친함.
- 569) 진작.
- 570) 蛾眉. 미인의 눈썹을 이르는 말.
- 571) 빨리.
- 572) 青松. 푸른 소나무.
- 573) 綠竹. 푸른 대나무.
- 574) 亭下. 정자 아래.
- 575) 盤松. 키가 작고, 가지가 옆으로 퍼진 소나무.
- 576) 狂風. 미친 바람. 거센 바람.
- 577) 한 줄기의 바람이 스쳐 부는 모양.
- 578) 老龍. 늙은 용.
- 579) 굽이치며 일어나는 듯.
- 580) 날개.
- 581) 땅에다.
- 582) 발을 멀쩡멀쩡 띄어놓으며 걷는 모양.
- 583) 戛然聲. 학이 우는 소리.
- 584) 奇異하구나. 신기하고 이상하구나.
- 585) 階上. 섬돌 위.
- 586) 반가와 하여.
- 587) 座. 앉을 자리.
- 588) 武陵에. 무릉촌에. '무릉'은 무릉도원(武陵桃源)을 뜻하기도 하는데, 도연명이 쓴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별천지를 이룸.
- 589) 開花. 꽃이 폼.

- 590) 일찍.
 591) 棄世히시고, 세상을 버리시고, 돌아가시고.
 592) 皇城. 황제가 있는 서울.
 593) 未還하고,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고.
 594) 대하는 것이.
 595) 古書. 오래된 책. 옛날 책.
 596) 收養딸.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제 자식처럼 기른 딸.
 597) 女功. 여성들이 하는 일. 길쌈이나 바느질 등.
 598) 文筆. 글과 글씨.
 599) 末年. 일생의 마지막 무렵.
 600) 하겠나이다. 하겠습니다.
 601) 奇特하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신통하여 귀염성이 있다.
 602) 日暮. 날이 저물. 저물녘.
 603) 가겠나이다. 가겠습니다.
 604) 寂寂한. 조용하고 쓸쓸한.
 605) 기다릴 때.
 606) 추워.
 607) 寒氣. 추운 기운. 병적으로 몸에 생기는 추운 기운.
 608) 수고롭고 고생스런 일.
 609) 寂寞空山. 나뭇잎이 다 떨어진 고요하고 깊은 산.
 610) 人跡. 사람의 자취.
 611) ‘꿈어졌으니’로 해야 옳음.
 612) 身世自歎. 일신상의 형편을 스스로 한탄함.
 613) 아무렇게나 함부로 짓고.
 614) 도랑 出入. 도랑을 드나드는 일. ‘도랑’은 (물이 흐르도록 땅을 좁고 길게 판) 작은 개울.
 615) 한 길이 넘는. ‘길’은 자기 키만한 높이나 깊이.
 616) 뒤로 기울어져.
 617) 나오려고 하면.
 618) 티 없이 맑고 환하게 깨끗하다.
 619) 化主僧. 속세에 나가서 불교를 포교하며, 부처에게 바칠 공양물과 중들의 음식과 옷 따위를 대주는 책임을 맡은 중.
 620) 重棚. (낡은 건물들) 헐기도 하고 고쳐서 새로 지음.
 621) 중이나 절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집.
 622) 행동이 빠르지 못하고 느릿느릿하고.
 623) 層巖絶壁上. 층층으로 쌓인 절벽 위.
 624) 텅굴어도.
 625) 白苧布. 흰 모시.
 626) 長衫. 중의 옷. 검은 베로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든다.

- 627) 粉紅띠. 붉은색 허리띠.
- 628) 벼슬한 중이 쓰던 갓. 대로 만들었는데 모자 위가 둥글게 되었음.
- 629) 長衫. 중의 옷. 검은 베로 길이가 길고, 품과 소매를 넓게 만들.
- 630) 불명. ‘고라’는 고라말이라고도 하는데, ‘고라말’은 등에 검은 털이 난 누런 말이므로, 고라말의 털을 가리킨 듯하다.
- 631) ‘복주감투’의 잘못. ‘복주감투’는 승려나 늙은이들이 추위를 막기 위하여 쓰는 모자의 하나. 담(毳)으로 둥글게 만들되 양옆으로 접어 올렸다가 펴서 내리면 뺨까지 가리게 된 것으로, 중국에서 전래하였다. ‘담’은 짐승의 털을 물에 빨아 씻이겨 평평하고 두툼하게 만든 조각. 담요 따위의 재료로 쓴다.
- 632) 흙. 분량이 차고도 남도록 아주 넉넉하게. 여기서는 ‘깊이’ 정도의 의미로 썼음.
- 633) 百八念珠. 실에 작은 구슬 108개를 꿰어서 그 끝을 맞댄 염주. ‘염주’는 (염불하는 수를 헤아린다는 뜻으로) 염불할 때 손으로 돌려서 그 수효를 세는 기구. 여러 개의 보리자, 금강주, 또는 모감주나무의 열매 따위를 실에 꿰어서 만들.
- 634) 團珠. 밤알만한 나무 구슬 여덟 개를 꿰어 만들어 팔에 거는 염주.
- 635) 龍頭. 용의 머리.
- 636) 六環杖. 도가 높은 중이 짚고 다니던, 고리가 여섯 개 달린 지팡이.
- 637) ‘쇠고리’의 잘못. 쇠로 만든 고리.
- 638) 쇠고리가 부딪치며 내는 소리.
- 639) 지팡이를 짚는 소리를 흉내낸 말.
- 640) 행동이 빠르지 못하고 느릿느릿하고.
- 641) 念佛. 부처의 모습이나 그 공덕을 생각하면서 부처의 이름을 외는 일, 특히 ‘나무아미타불’을 외는 일.
- 642) 俗家. 불교를 믿지 않는 집안을 불가에서 이르는 말.
- 643) 極樂世界. 불교에서 이상적 세계로 이르는 것으로, 더없이 안락하고 아무 걱정이 없는 지경이나 그런 곳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644) 上來所修佛功海 回向三千悉圓滿. 옛부터 닦아온 부처님의 공덕은 바다처럼 넓으니, 이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어, 자타가 공히 부처님의 은덕을 입어, 각 부처가 다스리는 삼천의 세계 곧 온 우주가 다 원만하길 바랍. 다른 데서는 ‘상래소수불공해’를 ‘상래소수공덕해’로 부른다. 뜻은 비슷하다.
- 645) 願往生. 죽어서 극락에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
- 646) 諸佛中天齊謁寧. 중천에 있는 모든 부처가 모두 평안하기를 빌. 다른 데서는 ‘제궁종실 각안녕(諸宮宗室各安寧)’(임금의 친족과 왕실이 두루 평안하기를 빌)으로 부른다.
- 647) 잠깐. 얼핏.
- 648) 馬嵬驛. 중국 섬서성에 있는, 당나라 태종이 안록산의 난을 당해 피난을 가면서 양귀비를 죽인 곳.
- 649) 누대의 이름인 듯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음.
- 650) 楊太眞. 양귀비(楊貴妃. 719-756). 당나라 현종의 비. 이름은 옥환(玉環) 또는 태진. 재주와 미색을 겸비하고 가무음곡에 뛰어나, 현종이 매혹되어 정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함.
- 651) 둔갑하여.

- 652) 호리려는. 남의 정신을 흐리게 하여 넋을 빼앗으려는.
- 653) 음흉(陰凶)한.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거나 속으로는 영악하고 흉악한.
- 654) 竹杖. 대나무 지팡이.
- 655) 개울. 작은 내.
- 656) 남자의 한복에서 바지를 입은 뒤에 그 가랑이 끝 쪽을 접어서 가든하게 발목을 졸라 매는 좁다란 끈.
- 657) 곧추누비. 위 아래로 곧게 촘촘히 누비는 바느질.
- 658) 가랑이.
- 659) 자개미에. ‘자개미’는 거드랑이 또는 오금 양쪽의 오목한 곳.
- 660) 물이 꺾어 있는 논.
- 661)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로.
- 662) 발을 멀쩡멀쩡 띄어 놓으며 걷는 모양.
- 663) ‘고드름상투’인 듯. 고드름처럼 가늘고 길게 생긴 상투.
- 664) 얼싸안아. 여기서는 ‘감아 쥐어’ 정도의 의미.
- 665) 小僧. 중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666) 化主僧. 속세에 나가서 불교를 포교하며, 부처에게 바칠 공양물과 중들의 음식과 옷 따위를 대주는 책임을 맡은 중.
- 667) 施主집. 중이나 절에 재물을 내는 사람의 집.
- 668) 活人之佛. 사람을 살리는 부처님.
- 669) 勸善. 절을 짓거나 불사(佛事)를 하기 위하여 선심(善心) 있는 신자들에게 보시를 청함. 여기서는 ‘권선책(勸善冊)’인. ‘권선책’은 시주(施主)의 이름과 시주한 재물의 액수를 기록한 장부.
- 670) 家勢. 집안 살림살이의 형편.
- 671) 부피의 단위. ‘되’의 10분의 1.
- 672) 佛供. 부처님께 음식이나 재물을 바치며 소원을 비는 일.
- 673) 邪. 요사스러우며 나쁜 기운.
- 674) 누가.
- 675) 예전에, 엽전을 세던 단위. 한 푼은 돈 한 냇을 이른다.
- 676) 틀림없이. 꼭.
- 677) 水中孤魂. 물 속에 빠져 죽은 외로운 영혼.
- 678) 지우고.
- 679) 失性發狂. 제 정신을 잃고 미침.
- 680) 於焉間. 어느새.
- 681) 佛前에. 부처님 앞에. 부처님께.
- 682) 百計無策. 어려운 일을 당하여 있는 피를 다 써봐도, 해결할 만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음.
- 683) 至誠이면 感天.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시킴.
- 684) 보겠나이다. 보겠습니다.
- 685) 沐浴齋戒.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욕을 하고, 육식을 삼가며, 몸가짐을

- 깨끗이 하는 일.
- 686) 淨히. 깨끗이.
- 687) 모으고, 쌓아올리고.
- 688) 子夜半에. 한밤중에.
- 689) 돌우어 켜고.
- 690) 井華水. 이른 새벽에 길은 물.
- 691) 至誠祝手. 정성을 다하여 두 손 모아 빌.
- 692) 戊子生. 육십 갑자의 무자년에 태어난.
- 693) 눈이 멀거나 어두워 못 보는 사람. 장님.
- 694) 眼盲하여. 눈이 멀어.
- 695) 將近토록. 곧 다 되도록.
- 696) 視物. 사물을 봄.
- 697) 點指. 신이나 부처님이 사람에게 자식이나 원하는 물건이 생기게 하여줌.
- 698) 忠孝節行. 충신과 효자와 절개를 지킨 여자의 행동.
- 699) 天神. 하늘에 있는 신. 하느님.
- 700) 施主. 중이나 절에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 701)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늘.
- 702) 외치는.
- 703) 船人. 뱃사람.
- 704) 印塘水. 가공의 깊은 물 이름.
- 705) 人祭需. 제물로 바치는 사람.
- 706) 받기 때문에.
- 707) 사려고 하니.
- 708) 있습니까.
- 709) 天佑神助. 하늘과 신의 도움.
- 710) 隱身. 몸을 숨김. 몸을 감춤.
- 711) 當年. 일이 있는 바로 그 해. 올해.
- 712) 出天之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 713) 來月. 다음 달.
- 714) 行船날. 배가 떠나는 날.
- 715) 彼此. 이쪽과 저쪽의 양쪽.
- 716) 前日. 전 날.
- 717) 다른 사람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삼아 기른 딸.
- 718) 데려간다.
- 719) 行船日. 배가 떠나는 날.
- 720) 隔한지라. 사이를 둔지라. 남은지라. 남았다.
- 721) 生存時에. 살아 있을 때에.
- 722) 생겨났다가. 태어났다가.

- 723) 잊어버려 생각이 아득하고. 황폐하여 쓸쓸하고.
 724) 胸中.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
 725) 끝없는.
 726) 肝腸. 마음. 애.
 727) 四時. 사철.
 728) 籠. 자그마하게 만든 옷을 넣어두는 가구.
 729) 網巾. 상투를 한 사람이 머리털을 걷어 올려 가지런히 하기 위하여 이마에서 뒤통수에 눌러 쓰던, 그물처럼 생긴 물건.
 730) 隔한지라. 사이가 떨어진지라. 남은지라. 남았다.
 731) 墳墓. 무덤.
 732) 酒果脯醢. 술, 과일, 말린 고기, 식혜. 제삿상을 차리는 기본 음식.
 733) 不孝女息. 불효한 딸자식.
 734) 祭需. 제물.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식이나 물건.
 735) 年年이. 해마다.
 736) 忌日. 죽은 날. 제삿날.
 737) 亡終. 마지막.
 738) 歆饗. 신령의 제물을 받아서 먹음.
 739) 四拜. 네 번 절을 함.
 740) 寂寂. 아주 고요함.
 741) 三更.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한밤중.
 742) 흐느끼는데.
 743)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
 744) 三更時.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한밤중.
 745) 咸池에. ‘함지’는 중국 전설에서 해가 진다는 큰 연못.
 746) 扶桑. 중국 전설에서, 동쪽 바다 속의 해가 뜨는 곳에 있다는 상상의 나무 이름, 또는 그곳.
 747) 맵 것 같으면. 매탄면.
 748) 모시련마는.
 749) 半夜. 한밤중.
 750) 秦關. 진나라의 관. ‘관’은 국경이나 국내의 요지의 통로에 두어서, 외적을 경비하며, 출입하는 사람이나 화물을 조사하던 곳. 여기서는 맹상군이 닭울음소리를 잘 내는 식객의 도움으로 무사히 도망쳐 나온 함곡관을 가리킴.
 751) 孟嘗君. 맹상군은 전국시대 제(齊)나라 사람으로, 성은 전(田), 이름은 문(文)임. 일찌기 빈객들을 후히 대접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맹상군이 진(秦)나라 소왕에게 잡혀 죽게 되었을 때, 닭울음소리를 잘내는 식객(食客)의 도움으로 함곡관을 빠져나와 무사히 도망친 일이 있었다.
 752) 河梁落日愁雲起. 하수의 다리 위에 해가 지니, 슬픔이 구름처럼 피어오른다.
 753) 蘇通國. 한나라 무제(武帝)의 신하로 흉노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열아홉 해 동안이나 잡혀 있던 소무가 그 곳에서 낳은 아들. 소무(蘇武)가 돌아올 때 어미는 놓아두고,

- 아들만 데리고 왔음.
- 754) 母子 離別. 어머니와 자식 간의 이별. 소통국과 그의 어머니의 이별을 말함.
- 755) 征客關山路幾重. 출정한 남편으로부터 고향까지의 길은 얼마나 멀까. 당나라 때 시인 왕발(王勃)의 〈채련곡(採蓮曲)〉의 한 구절.
- 756) 吳姬越女. 오나라와 월나라의 여인들. 여기서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옛 오나라와 월나라 땅의 여인들을 가리킴.
- 757) 西出陽關無故人. 서쪽으로 양관을 나서면 친구도 없네. ‘양관’은 중국 감숙성 돈황현에 있는 지명으로, 서역으로 통하는 국경의 요지. 당나라 때의 시인 왕유(王維)의 시 〈송원이사지안서(送元二使之安西)〉의 마지막 구절.
- 758) 渭城朝雨. 위성의 아침 비. 왕유의 시 〈송원이사지안서〉의 첫 구절인 ‘위성조우음경진(渭城朝雨浥輕塵. 위성 아침 비가 가벼운 먼지를 적신다)’의 한 구절. ‘위성’은 중국 협서성 함양의 동쪽에 있는 성.
- 759) 朋友離別. 친구 사이의 이별.
- 760) 東方. 동쪽.
- 761) 亡終. 마지막.
- 762) 小盤. 자그마한 밥상.
- 763) 진지.
- 764) 別로. 특별히.
- 765) 이르구나.
- 766) 貴人. 귀한 사람.
- 767) 解夢. 꿈 속에 나타난 일의 좋고 나쁨을 풀어 판단함.
- 768) 데려가려고.
- 769) 다른 자리로 옮겨 놓고.
- 770) 舉動. 몸을 움직이는 것이나 태도.
- 771) 정가. 지난 허물이나 잘못을 자꾸 들춰내어 흥분.
- 772) 속였나이다. 속였습니다.
- 773) 속였기에.
- 774) 亡終. 마지막.
- 775) 묻지도. 물어보지도.
- 776) 살 것인데.
- 777) 누구를.
- 778) 長成. 자라서 어른이 됨.
- 779) 새로 생긴 근심.
- 780) 너로 인하여. 네 덕분에.
- 781) 아침 저녁 바닷물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시간.
- 782) 엎드리지며. ‘엎드리지다’는 실수나 고장으로 엎어지다.
- 783) 예끼.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 784) 無知한. 미련하고 사나운.
- 785) 七年大旱. 중국 은(殷)나라 탕(湯)임금 때에 7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큰 가뭄.

- 786) 湯임금. 중국 전설상의 은나라 왕조의 건설자. 하(夏)나라의 걸왕(桀王)을 내쫓고 천자의 자리에 올랐음. 이름은 이(履) 또는 천을(天乙).
- 787) 밭 것 같으면. 빌려고 하면.
- 788) 剪爪斷髮 身嬰白茅. 손톱 깎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을 흰 띠풀로 묶음. 탕임금이 기우제를 지낼 때 그렇게 했다고 함.
- 789) 상림(桑林)의 들. 상림은 탕임금이 기우제를 지낸 곳.
- 790) 大雨方數千里. 사방 수천 리에 큰 비가 내림.
- 791)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냥.
- 792) 자꾸 찢는 모양.
- 793) 나는.
- 794) 두드리고.
- 795) 목적이질. 목이 부러진 것처럼 힘없이 꺾여 숙여지는 동작.
- 796) 덜커덕. 크고 단단한 물건이 맞부딪치는 소리.
- 797)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뒹굴.
- 798) 위쪽으로 뒹굴며.
- 799) 侍婢. 몸 가까이서 모시는 여자 종.
- 800)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801) 소리 내어 야단스럽게 부르짖으며 우는 모양.
- 802) 兩親. 부모.
- 803) 俱存. 모두 다 살아 있음.
- 804) 어찌하여. 왜.
- 805) 예기. 때릴 듯한 기세로 나무라거나 화가 났을 때 내는 소리.
- 806) 天下. 세상에 다시는 없을 만큼 심한 형편이라는 뜻으로, 너무 놀라거나 한탄할 때 쓰는 말.
- 807) 장(壯)하거니와. 마음이 흐뭇하고 자랑스럽거니와.
- 808) 누구에게.
- 809) 依託.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여 맡김.
- 810) 解約. 약속을 소멸시킴.
- 811) 數朔. 몇 달.
- 812) 狼狽.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어그러짐.
- 813) 無故한. 까닭 없는. 이유 없는.
- 814) 氣色. 마음의 작용으로 얼굴에 드러나는 빛.
- 815) 畫像. 얼굴을 그린 그림.
- 816) 畫工. 화가.
- 817) 愁心겨워. 근심스런 생각이 북받쳐 참기 어려워하면서.
- 818) 모양. 모습.
- 819) 重賞. 큰 상.
- 820) 令. 명령.
- 821) 五色丹青. 여러 가지 색깔의 물감.

- 822) 花容月態. 꽃같이 고운 얼굴과 달처럼 고운 자태.
 823) 細雨중. 가랑비 속. 이슬비 오는 가운데.
 824) 젊고 싱싱한.
 825) 땅아진. 셋 이상의 가닥으로 넓고 길게 엮어진.
 826) 綠衣紅裳. 연두색 저고리에 다홍 치마라는 뜻으로 젊은 여인의 복장.
 827) 曆歷히. 자취나 기미, 기억 따위가 환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하게.
 828) 簇子. 그림이나 글씨를 표구하여 만든 것으로, 기둥이나 벽에 걸기도 하고, 말아두기도 함.
 829) 畫題. 그림 위에 쓰는 시문(詩文).
 830) 生之死之一夢間에 年長何必淚森森고? 世間催淚斷腸處는 草綠江南人未還이라. 나고 죽는 것이 한 바탕의 꿈인데, 나이 들어 하필 눈물을 흘리는가? 세상에 살며 눈물을 재촉하는 가슴 아픈 일은, 푸른 강남에 한번 가서 오지 않는 사람이라네.
 831) 오마는. 온다고 하는.
 832) 어찌할 수 없이.
 833) 치마.
 834) 여러 번 걷는 모양.
 835) ‘사뭇 젖네.’로 해야 뜻이 통함.
 836) 엮드리지며. ‘엮드리지다’는 실수나 고장으로 엮어지다.
 837) 天方地軸.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분주한 모양.
 838) 놀던.
 839) 생각하느냐?
 840) 七月七夕夜에. 칠월칠석날 밤에.
 841) 乞巧. 음력 칠월 칠석날 저녁에, 부녀자들이 견우와 직녀 두 별에게 바느질과 길쌈을 잘하게 하여 달라고 비는 일.
 842) 하자고 했더니.
 843) 上針질. 박이웃이나 보료·방석 따위의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실밥이 겹으로 드러나게 꿰매는 일.
 844) 누구와.
 845) 俱存. 부모가 모두 살아계심.
 846) 洞里. 마을. 동네.
 847) 모두.
 848) 白日. 밝은 해.
 849) 陰雲. 하늘을 덮은 시커먼 구름.
 850) 찡그리는 듯.
 851) 눈물지는 듯. 눈물을 흘리는 듯.
 852) 시들고자. 시들려고 하여.
 853) 나지막하게. 낮게.
 854) 제비울음소리를 흉내낸 말.
 855) 春鳥. 봄철의 새.
 856) 百般啼送. 온갖 것이 모두 울면서 보냄.

- 857) 喚友聲. 짝을 그리워하며 우는 소리.
- 858) 歸蜀道.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두견새의 다른 이름. '족나라로 돌아가다'는 뜻을 지니고 있음.
- 859) 不如歸.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이면서, 두견새의 다른 이름.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음.
- 860) 위에.
- 861) 狂風. 세차게 부는 바람.
- 862) 若道春風不解意 何因吹送落花來라? 만약 봄바람이 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지는 꽃을 날려 보내겠는가? 당나라 때의 시인 왕유(王維)의 시 〈희제반석(戲題盤石)〉의 끝 구절임.
- 863) 송(宋)무제(武帝) 수양공주 매화장(梅花粧)은 있지만, 송나라 무제의 딸 수양공주가 매화로 단장한 일은 있지만, '매화장'은 처마 밑에 누운 공주의 얼굴에 매화꽃이 떨어져 마지 매화 꽃잎으로 화장한 것과 같이 그윽한 향기를 풍겼음을 나타낸 말.
- 864) 誰怨誰咎.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리오?
- 865) 길.
- 866) 江邊. 강가.
- 867) 船頭. 뱃머리. 배의 맨 앞부분.
- 868) '족판(足板)'의 잘못. '족판'은 배에 오르기 쉽도록 배와 물을 이어대는 판자.
- 869) 行船. 배가 감.
- 870) 泛彼中流. 저 물 가운데 떠서.
- 871) 어떤 물건이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모양.
- 872) 茫茫한. 아득하게 넓은.
- 873) 滄海. 넓고 큰 바다.
- 874) 蕩蕩한. 넓고 큰. 물살이 힘찬.
- 875) 白蘋洲. 흰 꽃이 피는 부평초가 가득한 물가 섬.
- 876) 紅蓼岸. 단풍이 들어 붉은 대만 남은 여뀌가 가득한 언덕.
- 877) 三江. 오나라의 송강·전당강·포양강의 세 강.
- 878) 漢水. 양자강의 한 지류.
- 879) 嘹唳한. 소리가 맑아 멀리까지 들리는.
- 880) 漁笛. 어부들이 부는 피리, 혹은 그 소리.
- 881) '그언마는'의 잘못. 그것이건만.
- 882) 당나라 때 시인 전기(錢起)의 〈상영고슬(湘靈鼓瑟)〉의 한 구절임. 원문은 〈(曲終人不見 江上數峯青 (노래 소리가 끝나자 사람은 보이지 않고, 강물 위에 두어 개 산봉우리만 푸르다))〉임.
- 883) 欸乃聲中萬古愁. 배의 노질하는 소리에 만고의 근심이 들어 있음.
- 884) 나로. 나를.
- 885) 長沙. 중국 화남성의 중심지. 가의(賈誼)가 태부의 벼슬자리에 있던 곳.
- 886) 賈太傅. 이름은 의(誼), 태부는 벼슬 이름. 중국 전한(前漢) 사람으로, 굴원의 넋을 위로하는 부(賦)를 남겼음.

- 887)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으로 들어감.
- 888) 屈三閭. 중국 전국시대의 초(楚)나라 사람으로, 이름은 평(平), 자(字)는 원(原)이다. 삼려대부의 벼슬자리에 있다가 주위의 참소로 쫓겨나, 〈어부사〉, 〈이소〉를 짓고, 먹라수에 빠져 죽었다.
- 889) 漁腹忠魂. 강물에 빠져 죽어 고기 뱃속에 장사 지낸 굴원의 충성스런 영혼.
- 890) 무양(無恙). 몸에 병이나 탈이 없음.
- 891) 黃鶴樓. 중국의 호북성 무창현의 서쪽 황학산에 있는 누각.
- 892) 日暮鄉關何處是 오 煙波江上使人愁. 날은 저무는데 고향은 어디쯤인가. 강물 위에 피어 오르는 물안개는 시름만 더해준다. 당나라 때 시인 최효의 〈황학루〉의 끝 구절.
- 893) 崔灝. 당나라 현종 때의 시인. 하남성 개봉 사람으로, 벼슬은 보잘 것이 없었으나, 노후의 시가 좋았다.
- 894) 遺蹟. 옛 자취.
- 895) 鳳凰臺. 중국 강소성 남경에 있는 이름난 누대.
- 896) 三山半落青天外요, 二水中分白鷺洲. 이태백의 〈등금릉봉황대(登金陵鳳凰臺)〉에 있는 구절. 삼산은 반이나 구름 속에 가려 마치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진 듯이 우뚝 솟아있고, 두 줄기 강물은 백로주를 끼고 흘러간다. 삼산은 세 봉우리로 된, 남경 서남쪽에 있는 산. 백로주는 양자강 가운데 있는 섬. 이수(伊水)는 진수(秦水)와 회수(淮水)를 가리킴.
- 897) 太白이. 당나라 때 시인 이백(李白). 태백(太白)은 자(字)이고 호(號)는 청련(青蓮). 성당(盛唐) 때의 대시인으로 두보와 함께 시종(詩宗)으로 존앙 받았다. 신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귀양 와서 사람이 되었다는 뜻으로 ‘적선(謫仙)’이라고도 일컬어진다.
- 898) 놀던.
- 899) 尋陽江. 강서성 구강현 북쪽에 있는 양자강의 한 줄기로, 당나라 때의 시인인 백낙천이 밤에 늙은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를 듣고 〈비파행(琵琶行)〉이라는 시를 지으며 놀던 곳.
- 900) 白樂天.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 이름은 거이(居易). 낙천(樂天)은 그의 자(字). 호는 향산거사(香山居士).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한가(長恨歌)〉, 〈비파행(琵琶行)〉 등이 있음.
- 901) 一去後에. 한 번 간 후에. 한 번 죽은 후에.
- 902) 琵琶聲. (기생이 타는) 비파 소리.
- 903) 赤壁江. 호북성 황강현에 있는 강. 소동파가 〈적벽부〉를 짓고 놀던 곳이며, 삼국시대 조조가 오와 촉의 연합군과 싸운 적벽대전으로 유명한 곳임.
- 904) 蘇東坡. 이름은 식(軾)이고, 호가 동파인 북송의 문인. 〈적벽부(赤壁賦)〉를 지어 널리 알려짐.
- 905) 놀던.
- 906) 風月. 청풍명월. 자연 경치, 또는 그것을 노래한 시.
- 907) 依舊하여. 옛과 같이.
- 908) 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그의 호임.
- 909) 一世之雄. 한 때의 영웅.
- 910) 而今에 安在哉오.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 911) 月落烏啼. 달은 지고 까마귀가 울.

- 912) 姑蘇城外. 고소성의 밖. '고소성'은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 913) 寒山寺. 중국 강소성 소주부 풍교진(楓橋鎮)에 있는 절. 당나라 때 시인인 장계(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함.
- 914) 종소리.
- 915) 客船에. 나그네가 탄 배에.
- 916) 당나라 때 시인 장계(張繼)의 시 〈풍교야박(楓橋夜泊)〉에서 탄 구절로,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月落烏啼霜滿天 江楓魚火對愁眼 姑蘇城外寒山寺 夜半鍾聲到客船(달은 지고 가마귀 우는데 서리는 하늘에 가득하다. 강가의 단풍나무, 고기잡이 불 시름에 졸며 바라본다. 고소성 밖 한산사의 종소리가 나그네 탄 배까지 들린다.) '고소성'은 중국 강소성 오현에 있는 소주(蘇州).
- 917) 秦淮水.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 918) 隔江의. 강 건너편의.
- 919) 商女. 술파는 여인.
- 920) 亡國恨. 나라가 망한 한.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놀기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 921) 煙籠寒水月籠沙한데. 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데.
- 922) 後庭花. 중국 남북조시대 진(秦)나라의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 923) 당나라 때 시인인 두목(杜牧)의 〈박진회(泊秦淮)〉라는 시를 그대로 탄 것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煙籠寒水月籠沙 夜泊秦淮近酒家 商女不知亡國恨 隔江猶唱後庭花(안개는 차가운 강물 위에 자욱하고, 달빛은 모래밭에 빛나는구나. 밤 되어 진회에서 묵으려는데 술집이 가까와, 술 파는 여자들은 나라가 망한 슬픔도 모르고, 강 건너 술집에서는 후정화만 부르느니라). '진회수'는 중국 강소성 표수현에서 서북쪽으로 강령성을 지나 양자강으로 흘러드는 운하인데, 경치가 좋아 술집이 많다고 함. '망국한'은 여기서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진(秦)나라의 후주가 〈후정화〉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며 놀기만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일을 가리킴. '후정화'는 후주가 만든 노래의 이름.
- 924) 岳陽樓. 중국 동정호에 있는 이름난 누대.
- 925) 湖上에. 호수 위에.
- 926) 巫山. 중국 사천성 무산현의 동쪽에 있는 열두 봉우리로 된 명산.
- 927) 洞庭湖. 중국 호남성 북부에 있는 중국 최대의 민물 호수. 양자강의 중류에 있음.
- 928) 上下天光. 위와 아래(곧 호수에 비친 하늘과 하늘에 있는)의 하늘 빛.
- 929) 여기서는 맑은 동정호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 930) 蒼梧山. 중국 호남성 영원현에 있는 산 이름으로, 구의(九疑)라고도 함. 순임금이 이곳에서 죽었음.
- 931) 黃陵廟.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을 모신 사당.
- 932) 三峽. 중국 사천, 호북 두 성의 경계에 있는 양자강 중류의 좁은 골짜기. 무산(巫山) 산지(山地)의 침식으로 세 협곡이 이어져, 예로부터 유명한 경승지임.
- 933) 원승이.
- 934) 遷客.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귀양 간 사람.
- 935) 騷人. 시인 또는 문사(文士).

- 936) 香風. 향기로운 바람.
- 937) 竹林. 대나무 숲.
- 938) 玉佩. (여자들이 지나는) 옥으로 만든 패물.
- 939) 仙冠. 신선이 쓰는 모자.
- 940) 신음(呻吟)하면서.
- 941) 沈小姐. 심씨 성을 지닌 아가씨.
- 942) 蒼梧山崩湘水絶이라야 竹上之淚乃可絶이라. 이태백이 쓴 시 <원별리(遠別離)>의 한 구절. 창오산이 무너지고 상수 강물이 끊어져야, 대나무 위에 흘린 눈물이 사라질 것이다. '창오산'은 순임금이 죽은 곳. 순임금이 죽자, 그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이 달려가 피눈물을 흘리다가 따라 죽었는데, 그 눈물이 소상강 가의 대나무에 묻어 소상반죽(소상강 가에서 나는 알록달록한 무늬가 있는 대)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 943) 千秋. 아주 오랜 세월.
- 944) 出天大孝. 하늘이 낸 큰 효자.
- 945) 말이나 행동이 곱고 젊잖으나.
- 946) 堯舜 後 幾千年. 요순 임금 후 수천 년이 흐름.
- 947) 누구이며.
- 948) 五絃琴. 순임금이 타던 다섯 줄로 된 악기.
- 949) 南風詩. 순임금이 지었다는 시로, 순임금은 오현금을 타며 이 시를 노래불렀다고 한다.
- 950) 水路. 물길. 바닷길.
- 951) 이는 누구이고하니.
- 952) 堯女舜妻 萬古烈女 二妃로구나. 요임금의 딸이자 순임금의 아내인 만고의 열녀인 두 왕비(곧 아황과 여영)로구나.
- 953) 烏江. 중국 안휘성에 있는 지명. 화현(和縣)의 북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양자강 연안에 있음. 항우가 자결한 곳임.
- 954) 狂風. 사나운 바람. 세차게 부는 바람.
- 955) 大作하고. 크게 일어나고.
- 956) 蕭颯하더니. 쓸쓸하더니.
- 957) 面如巨輪. 얼굴이 큰 수레바퀴와 같이 큼.
- 958) 眉間이 廣闊하고, 두 눈썹 사이가 넓고.
- 959) 오나라 왕 부차가 간신 백비의 말을 듣고 오자서를 자결케한 뒤, 가족 부대에 시신을 담아 강물에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음.
- 960) '백비(伯嚭)'여야 할 듯 함. 초나라의 대신이었던 백주리의 손자로, 백주리가 초나라에서 죽임을 당하자 오나라에 와서 재상이 되었으나, 오자서를 모함하여 죽게 했다.
- 961) 屬鏤劍. 오나라 왕 부차가 오자서에게 자결하라고 내린 칼.
- 962) 越兵이 滅吳함을 보려고. 월나라 병사가 오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보려고.
- 963) 참소로 죽게 된 오자서가 죽을 때, 월나라에 의해 오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죽은 뒤에 두 눈을 빼어 동문(東門)에다 걸어놓으라고 한 고사를 이룸.
- 964) 汨羅水. 중국 호남성 상음현의 북쪽에 있는 강. 서쪽으로 흘러 상강(湘江)으로 들어감.
- 965) 神. 귀신.

- 966) 초(楚)나라 회왕(懷王)이 진(秦)나라 소왕(昭王)의 무관(武關)에서 만나자는 말에 속아 무관에 갔다가 잡혀 죽은 일을 가리킴.
- 967) 未歸魂. 돌아오지 못한 혼령.
- 968) 博浪槌聲. 하남성의 박랑사(博浪沙)에서의 철퇴 소리. 한(漢)나라의 모사가 된 장량(張良)이 장사를 얻어, 진시황을 살해하려고 진시황이 타고 가는 수레를 박랑사에서 철퇴로 내려친 일을 가리킴. 진시황의 살해 계획은 실패했음.
- 969) 洞庭 月. 동정호에 비치는 달빛. ‘동정호’는 중국 호남성 북동쪽, 양자강 중류에 있는 민물 호수.
- 970) 진시황은 진나라 소왕(昭王)의 후예이기 때문에, 진시황을 죽여 소왕에게 당한 복수를 하려고 했으나 되지 않았음을 표현한 듯함.
- 971) 王者. 왕.
- 972) 憔悴. 고생이나 병으로 인하여 안색이 파리하고 해쓱함.
- 973) 形容. 생긴 모양.
- 974) 枯槁. 야위어서 파리함.
- 975) 屈原. 중국 전후시대 초나라의 선비로 이름은 평(平), 자는 원(原). 회왕을 도와서 공이 컸으나, 참소로 물러나 먹다수에 빠져 죽었음. 《초사(楚辭)》와 《어부사(漁夫辭)》를 지었음.
- 976) 精魄. 죽은 사람의 넋.
- 977) 四五朔. 4~5개월.
- 978) 金風颯而夕起하고, 玉宇廓而崢嶸이라. 가을 바람이 저녁에 쌀쌀하게 일어나고 넓은 하늘이 말쑥하게 빛난다. 조선 시대 김인후(金仁厚)가 지은 〈칠석부(七夕賦)〉의 한 구절.
- 979) 落霞는 與孤鶩齊飛하고, 秋水共長天一色이라. 떨어지는 저녁놀을 따라 외로운 따오기가 날고, 가을의 맑은 물은 높은 하늘과 같은 빛깔이라. 당나라 때 시인 왕발(王勃)의 시 〈등왕각(滕王閣)〉의 머릿글인 〈등왕각서〉의 한 구절.
- 980) 江岸에 橘濃 黃金이 千片. 강 언덕에 귤빛이 질어지니 마치 수많은 황금 조각 같음.
- 981) 蘆花에 風起하니 白雪이 萬點이라. 갈꽃에 바람이 부니, (갈꽃이 바람에 날려) 흰눈이 가득하게 흩날리는 것과 같다.
- 982) 深蒲細柳. 냇머들과 가는 버들.
- 983) 滿江秋風에. 강에 가득한 가을 바람에.
- 984) 훑날리고.
- 985) 玉露清風. 맑은 이슬과 서늘한 바람.
- 986) 돌아와 켜고.
- 987) 漁歌. 어부들의 뱃노래.
- 988) 一髮青山. 한 가닥의 머리카락처럼 가물가물 보이는 산. 송나라 문인 소식의 시 〈정맥역 동조각(澄邁驛通潮閣)〉의 한 구절인 ‘청산일발시중원(青山一髮是中原)’에서 따온 말.
- 989) 肝腸이라. ‘간장’은 마음을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근심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
- 990) 日落長沙秋色遠하니 不知何處吊湘君고. 장사에 해는 지고 가을은 깊어가는데, 어디 가서 상군을 조문할지 모르겠구나. 당나라 때 시인 이태백의 시 〈유동정호(遊洞庭湖)〉

- 의 마지막 두 구절. '장사'는 동정호 곁에 있는 지명이며, '상군'은 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가리킴.
- 991) 宋玉. 전국시대 초(楚)나라 사람으로 굴원(屈原)의 제자. 사(辭)와 부(賦)에 능하여 <구변(九辯)>, <초혼(招魂)>, <풍부(風賦)>, <고당부(高唐賦)> 등의 작품을 남겼다.
- 992) 悲秋賦. 《초사(楚辭)》의 <구변(九辯)>을 가리킴.
- 993) 이보다.
- 994) 童女. 여자 아이.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하려고 동남동녀(童男童女)를 배에 태워 보냈다고 함.
- 995) 採藥 댕가. 약을 캐러 가는 배인가.
- 996) 方士. 신선의 술법을 닮는 사람.
- 997) 전한(前漢)의 7대 왕.
- 998) 求仙. 신선을 구함.
- 999) 무슨 일이 채 되기 전이나, 기회나 시기가 이르기 전에.
- 1000) 守直. (건물이나 물건 따위를) 맡아서 지킴.
- 1001) 蒼茫. 넓고 멀어 아득함.
- 1002) 魚龍. 물고기와 용. 모든 물고기.
- 1003) 大川바다. 넓은 바다.
- 1004) 배를 한곳에 멈추어 있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 물 밑바닥으로 가라앉히는, 갈고리가 달린 기구. 갈고리가 흠바닥에 박히어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 1005) 櫓. 물을 헤쳐 배를 나아가게 하는 기구. 물속에 들어가는 부분은 납작하고 손잡이 부분은 가늘다.
- 1006) 돛대에 매놓고 닻을 올리고 내리는 줄.
- 1007) 저물어진.
- 1008) 저물어져.
- 1009) '까치놀'인 듯. '까치놀'은 석양에 멀리 바라다 보이는 바다의 수평선에서 희번쩍거리는 물결.
- 1010) 배의 맨 앞 부분.
- 1011) 都沙工. 뱃사공 중의 우두머리.
- 1012) 領座.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
- 1013) 遑遑急急. 마음이 몹시 급하여 허둥댐.
- 1014) 告祠器械. 고사를 지내는 데 쓰는 물품.
- 1015) 한 섬이나 되는 쌀.
- 1016) 온전한 소. 한 마리 통째의 소.
- 1017) 동이에 담은 술.
- 1018) 五色湯需. 제사에 쓰는 다섯 가지 색깔이 서로 다른 탕국.
- 1019) 三色實果. 세 가지 색깔이 다른 과일.
- 1020) 살아 있는 돼지.
- 1021) 衣冠. 옷과 관을 갖추어 차림.
- 1022) 正히. 바르게.

- 1023) 軒轅氏. 고대 중국의 전설 상의 임금으로, 창과 방패를 쓰는 법을 가르치고, 배와 수레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함.
- 1024) 만들어.
- 1025) 以齊不通. 통하지 못하던 곳을 건너다니게 함.
- 1026) 然後에. 후에.
- 1027) 後生. 뒤에 태어난 사람.
- 1028) 爲業. 직업으로 삼음.
- 1029) 夏后氏. 중국의 첫 번째 왕조인 하(夏)나라를 세운 우(禹)임금. ‘후’는 우임금이 순(舜) 임금의 양위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아름답게 이르는 칭호.
- 1030) 九年治水.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 때에 일어났던 9년 동안의 큰 홍수를 다스린 일. 우는 이 때의 공로로 왕위를 물려받아 하나라를 세웠음.
- 1031) 다스릴.
- 1032) 五服으로 定한 貢收. 오복에 (따라) 정한 공수. 오복에 따라 정한 세금의 징수. ‘오복’은 서울을 가운데 두고 주위를 순차적으로 나눈 다섯 구역. 상고시대에는 진복(甸服)·후복(侯服)·수복(綏服)·요복(要服)·황복(荒服)으로 나누었는데, 한 복은 각각 500리임. ‘공’은 하나라 때의 세법(稅法)을 가리키므로, 공수는 세법에 따라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물품을 뜻함.
- 1033) 九州. 고대 중국에서 온 나라를 통치하려고 나누었던 아홉 지방. 곧 온 천하.
- 1034) 伍子胥. 중국 춘추시대 초(楚)나라 장수. 이름은 원(員). 아버지와 형이 초나라 평왕에게 피살되었기 때문에 오(吳)나라로 도망가서, 오나라를 도와 초를 쳐서 원수를 갚았음.
- 1035) 奔吳할 제. 오나라로 도망갈 때.
- 1036) 檣歌로 건너주고. 뱃노래를 부르면서 건너주고.
- 1037) 海下城(垓下城)에서 패한 장수. 곧 항우를 가리킴. 해하는 중국 안휘성 영벽현에 있는 옛 싸움터로, 기원전 202년 한 고조 유방(劉邦)의 군사가 초나라 항우(項羽)의 군사를 무찌른 곳임.
- 1038) 烏江. 중국 안휘성에 있는 지명. 화현(和縣)의 북동에 자리잡고 있으며, 양자강 연안에 있음. 항우가 자결한 곳임.
- 1039) 于先待期. 우선 (다시 반격할) 시기를 기다리기로 하며.
- 1040) 孔明. 삼국시대 촉(蜀)의 모사인 제갈공명(諸葛孔明. 181-234.) 성은 제갈(諸葛), 자는 공명(孔明), 이름은 량(亮). 삼국시대 유비 헌덕을 도와 많은 공을 세웠으나, 통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병사하였음. 뛰어난 지략과 충의의 사람으로 중국에서 만인으로 부터 추앙을 받는 인물임.
- 1041) 脫造化. 남이 모르게 이리저리 꾸며 만들어 놓은 일, 또는 그런 일을 꾸미는 뛰어난 재간.
- 1042) 삼국시대 오(吳)나라의 명장.
- 1043) 火攻. 불로 하는 공격. 조조의 백만군과 오·촉 연합군이 적벽강에서 접전할 때, 공명이 겨울철에 동남풍을 빌어 화공을 통해 조조의 군사를 대파한 일을 가리킴.
- 1044) 舟搖搖以輕易. 배는 흔들리며 가볍게 나아간다.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의 한 구절.
- 1045) 陶淵明. 중국 진(晉)나라의 시인으로 심양 출신. 이름은 잠(潛). 405년에 팽택(彭澤)의

- 숨이 되었으나 80여일 후에 <귀거래사>를 남겨두고 귀향했음. 문 앞에 버드나무를 심고, 스스로 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 일컬었음.
- 1046) <귀거래사(歸去來辭)>. 도연명이 지은 시.
- 1047) 해환(海闊)하니 고범지(孤帆遲). 바다는 넓은데, 외로운 돛단배는 느릿느릿 떠간다. 이태백의 시 <송장사인지강동(送張舍人之江東)>에 나오는 시구.
- 1048) 장한강동거(張翰江東去). 장한이 강동으로 떠남. 이태백의 시 <송장사인지강동(送張舍人之江東)>의 첫 구절.
- 1049) 壬戌之秋七月. 임술년 가을 7월. 소동파의 <적벽부(赤壁賦)>의 첫 구절.
- 1050) 蘇東坡. 중국 북송의 문인으로, 이름은 식(軾), 자(字)는 자瞻(子瞻). 동파는 그의 호. 아버지 순(洵), 동생 철(轍)과 함께 삼소(三蘇)로 일컬어지며,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임.
- 1051) 배가 떠날 때 배에서 나는 소리의 의성어. 노를 젓고 닻을 감는 소리.
- 1052) ‘어기영차’와 같은 의성어.
- 1053) 叩枻乘流無定去. 노를 놓아두고 물결을 타고서 한없이 감.
- 1054) 즐거움.
- 1055) 桂棹蘭枻華亭彪는 吳姬越女採蓮舟요. 화정의 강물에 뜬 계수나무 노와 난목 샹대를 한 배는, 오나라와 월나라 여인들이 연을 캐는 배요. ‘화정’은 중국 강소성 송강현에 있는 지명.
- 1056) 發船. 배가 떠남. 배를 타고서 떠남.
- 1057) 商賈船. 장사하는 배.
- 1058) 商賈. 장사.
- 1059) 爲業. 직업으로 삼음.
- 1060) 經世又經年. 해가 지나고 또 지남. 곧 여러 해가 지남.
- 1061) 漂泊西南.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님.
- 1062) 人祭需. 제물로 바치는 사람.
- 1063) 무속의 신의 이름인 듯.
- 1064) 무속의 신의 이름인 듯.
- 1065) 江漢之將. 큰 강물을 지키는 장수. 여기서는 강물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
- 1066) 川澤之君. 냇물과 연못을 다스리는 임금. 여기서는 냇물과 연못에 사는 큰 물고기를 의인화한 표현임.
- 1067) 下瞰. 위에서 내려다봄.
- 1068) 飛廉. 중국에서 바람의 신으로 받드는 신.
- 1069) 和樂. 화평하고 즐거움.
- 1070) 患難. 근심 걱정과 재난.
- 1071) 百千萬金. 수많은 돈.
- 1072) 堆. 이익.
- 1073) 鳳旗. 봉이 그려진 깃발.
- 1074) 蓮花. 연꽃.
- 1075) 가리키는데.

- 1076) 雲霓. 구름이나 안개가 끼어 흐릿한 기운.
 1077) 나무로 만든 배의 안쪽 바닥.
 1078) 얹드리지며.
 1079) 조금도.
 1080) 大明天地. 환하게 밝은 세상.
 1081) 後嗣. 대를 이을 자식.
 1082) 치마.
 1083) 셋별. 금성(金星)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1084) 어금니.
 1085) 萬頃蒼波. 한없이 넓은 바다.
 1086) 갈매기처럼.
 1087) 香火. 향불이나 그 연기.
 1088) 흘날리고,
 1089) 海門. 두 육지 사이의 바다나 그 사이에 보이는 수평선.
 1090) 領座. 마을이나 단체의 우두머리.
 1091) 格軍. 조선시대 선원으로 사공의 일을 돕던 사람.
 1092) 火匠. 밥을 짓는 일을 맡은 선원.
 1093) 年年이. 해마다.
 1094) 雨後清江. 비 온 후의 맑은 강.
 1095) 白鷗. 갈매기.
 1096) 紅蓼月色. 가을이 되어 잎이 다 떨어져 붉은 대만 남은 여뀌에 비치는 달빛.
 1097) 곳인고?
 1098) 逸江細雨勞平生. 가랑비 내리는 한가한 강에서 보내는 힘든 한 평생.
 1099) 泛彼滄波. 저 넓은 푸른 물결 위에 등등 떠서.
 1100) 滔滔滔滔. 넘실넘실.
 1101) 玉皇上帝. 도가(道家)에서 하느님을 이르는 말.
 1102) 下教. 임금의 내리는 명령.
 1103) 卯時. 아침 5~7시 사이.
 1104) 琉璃國. 가상의 나라 이름.
 1105) 沈小姐. 심씨 성을 가진 아가씨.
 1106) 人間. 인간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
 1107) 受命. 명을 받음.
 1108) 白玉轎. 흰 옥으로 장식한 위를 꾸미지 않은, 임금이 타는 가마.
 1109) 卯時初. 묘시(5~7시)의 처음. 곧 다섯 시 무렵.
 1110) 明朗. 흐린 데 없이 밝고 환함.
 1111) 照臨. 해나 달 따위가 위에서 내리비침.
 1112) 禮하며. 존경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이나 인사를 하며.
 1113) 여쭙되. 말씀드리되. 말씀드리기를.

- 1114) 모시고자.
- 1115) 微賤. 보잘 것 없고 천한.
- 1116) 大罪. 큰 죄.
- 1117) 威儀. 위엄 있는 거동.
- 1118) 壯할시고. 대단하고 훌륭하구나.
- 1119) 仙官. 신선.
- 1120) 太乙眞. 태을진군(太乙眞君). 하늘의 신 가운데 가장 높은 신.
- 1121) 安期生. 중국 진(秦)나라 사람으로, 바닷가에서 약을 팔다가 신선인 하상장인(河上丈人)에게 도를 배워 신선이 되었다는 사람.
- 1122) 鸞. 봉황의 한 가지인 신령스러운 새.
- 1123) 赤宋子. 중국 신농씨(神農氏) 때의 신선. 비와 바람을 타고 곤륜산에 와서 놀았다고 함.
- 1124) 青衣童子. 푸른 옷을 입은,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아이.
- 1125) 紅衣童子. 붉은 옷을 입은, 신선의 시중을 든다는 아이.
- 1126) 月宮姮娥. '항아'는 달에 산다고 전해 오는 선녀. '월궁'은 항아가 살고 있다는 궁전.
- 1127) 麻姑仙女. 중국의 전설상의 선녀. 한나라 환제 때에 모주의 동남쪽에 있는 고여산에서 수도를 하여 선녀가 되었는데, 바다가 세 번이나 뿔나무밭으로 변하도록 오래 살았으나 늘 젊어 보였다고 한다.
- 1128) 南岳夫人. 중국의 5대 명산의 하나인 남악에 있다는 선녀인 위부인(魏夫人).
- 1129) 八仙女들. 여덟 선녀들.
- 1130) 王子 晉. 중국 주(周)나라 영왕(靈王)의 태자로 피리를 잘 불었다고 함.
- 1131) 鳳피리. 왕자 진은 피리를 잘 불었는데, 특히 봉황의 소리를 잘 내었기 때문에 그 피리에 붙인 이름인 듯하다.
- 1132) 郭處士. 당나라 무종(武宗) 때의 괘도원(郭道原)을 가리키는데, 격구라는 악기를 치는 솜씨가 뛰어났다고 함.
- 1133) 질장구. 당나라 때의 악기인 격구의 소리가 우리 나라 질장구와 비슷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죽장구라고 한 듯하다. '죽장구'는 '질장구'가 변하여 된 말. 질장구는 흙을 구워서 큰 못그릇 비슷하게 만든 악기. 질화로 모양의 그릇을 대 위에 올려놓고 채로 쳐서 소리를 낸다.
- 1134) 張子房. 이름은 양(良)이며, 자방은 그의 자(字).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건국하는 데 큰 공을 세웠음. 특히 해하의 싸움에서 옥통소를 구슬뜨게 불어 항우의 군사로 하여금 전의를 잃고 흩어지게 하여 크게 이긴 것으로 유명함.
- 1135) 成連子. 중국 춘추시대 사람으로 거문고를 잘 탔다고 함.
- 1136) 嵇康. 진나라 때 사람으로, 자는 숙야(叔夜). 노자나 장자의 허무 사상에 빠져 유교의 형식주의를 마다 하고 청담을 주고 받으며 세월을 보내던 무리인 죽림 칠현 중의 한 사람. 거문고와 시를 즐김. 글에 <양생론(養生論)>이 있음.
- 1137) 狼藉. 어지럽게 여겨지기 흩어져 있음.
- 1138) 掛龍骨以爲樑하니 靈光이 照日이요, 緝魚鱗以作瓦하니 瑞氣 蟠空이라. 용의 뼈를 걸어 들보를 삼으니 신령한 빛이 햇살에 더욱 빛나고, 고기들의 비늘로 기와를 만들어 덮으니 상서로운 기운이 하늘을 가렸도다.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에 나오는 말.

- 1139) 珠宮貝闕은 應天上之三光이요, 袞衣繡裳은 備人間之五福이라. 진주와 보배로운 조개로 만든 궁궐은 하늘의 세 가지 빛 (해·달·별)에 조응하고 곤의(고대 천자가 입던 옷)와 수상(고대 천자가 입던 수놓은 하의)은 인간의 다섯 가지 복을 갖추었도다. 《전등신화》의 〈수궁경회록〉에 나오는 말.
- 1140) 珠簾. 구슬로 만든 발.
- 1141) 案床. 책상.
- 1142) 酒饌. 술과 반찬.
- 1143) 琉璃盞. 유리로 만든 술잔.
- 1144) 琥珀瓶. 호박 구슬로 만든 술병.
- 1145) 千日酒. 담근 지 천 일이나 된 좋은 술.
- 1146) 三千碧桃. 삼천 년에 한 개씩 연다는 신선 세계의 푸른 복숭아.
- 1147) 높이 우뚝 솟아서 당당하게.
- 1148) '괴다'는 '과일이나 음식을 높이 쌓아올리다'라는 뜻.
- 1149) 小宴. 작은 잔치
- 1150) 大宴하며. 큰 잔치를 벌이며.
- 1151) 奉供. 받들어 공양함.
- 1152) 玉眞夫人. 달 속에 산다는 선녀.
- 1153) 누구인고.
- 1154) 廣寒殿. 달 속의 선녀인 항아(姮娥)가 산다는 전각.
- 1155) 相逢次. 서로 만나려고.
- 1156) 五色綵緞.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
- 1157) 碧桃花. 신선세계에 있다는 푸른 복숭아의 꽃.
- 1158) 丹桂花. 달 속에 있다는 붉은 계수나무의 꽃.
- 1159) 前陪. 벼슬아치의 행차 때나, 상관을 뵈러 갈 때 앞을 인도하던, 관가에서 부리던 하인.
- 1160) 惶怯. 마음이 몹시 급하여 겁먹은 듯이 허둥댐.
- 1161) 拜禮. 절을 함.
- 1162) 貴히. 귀하게.
- 1163) 蹈襲. 옛 정책, 수법, 방식 따위를 그대로 본받아 좇음. 여기서는 '꼭 닮았다'라는 의미.
- 1164) 가슴.
- 1165) 만류(挽留)하는데. 권하여 못하게 하는데.
- 1166) 日後에. 며칠 후에.
- 1167) 職分. 맡은 바 일의 본분.
- 1168) 許多. 몹시 많음.
- 1169) 玉佩. 여자들이 차던, 옥으로 만든 패물.
- 1170) 琤琤. 옥이 맞부딪쳐 맑게 울리는 소리.
- 1171) 五色彩雲. 여러 가지 고운 빛깔의 구름.
- 1172) 우두커니.

- 1173) 受命. 명령을 받음.
- 1174) 還送. 되돌려 보냄.
- 1175) 봉오리.
- 1176) 陽臺 仙女. 양대의 선녀. 무산(巫山)의 선녀가 초나라 회왕에게 ‘아침에는 구름이 되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산에 내려, 아침이나 저녁이나 양대에 나타난다’고 한 말이 나온다. 양대선녀는 따라서 무산의 선녀이다.
- 1177) 朝夕之供. 아침저녁으로 음식을 바침.
- 1178) 饌需凡節. 반찬거리를 법도에 맞게 하는 질서나 절차.
- 1179)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
- 1180) 堆. 이익.
- 1181) 忽然. 뜻하지 아니하게 갑자기.
- 1182) 淨히. 깨끗하게.
- 1183) 심소저(沈小姐)의. ‘소저’는 나이 어린 아가씨를 이르는 말.
- 1184) 반은 판소리의 곡조요.
- 1185) 반은 시나위 곡조이겠다. ‘시나위’는 한강 이남과 태백산맥 서쪽지방의 무속음악에서 유래한 기악곡으로서 특히 호남지방에서 많이 부른다.
- 1186) 오장원(五丈原). 중국 섬서성에 있는 옛 전쟁터. 제갈공명이 병사한 곳임.
- 1187) 落傷. 떨어지거나 넘어져 다침.
- 1188) 三年 武關의 楚懷王. 옛 중국의 전국시대 초나라의 회왕이 진(秦)나라의 소왕(昭王)에게 속아, 무관에서 만나자는 말을 믿고 무관에 갔다가 잡혀서, 3년이나 갇혀 있다가 죽은 일을 말함.
- 1189) 飮饗. 귀신이 제물을 받아서 먹음.
- 1190) 祭物. 제사에 쓰는 음식물.
- 1191) 海上. 바다 위.
- 1192) 當치. 마땅하지.
- 1193) 陣平. 중국 전한(前漢)의 정치가. 한 고조(高祖)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세우는 데 공이 컸음.
- 1194) 范亞父. 이름은 증(增). 거소(居巢) 출신으로, 나이 칠십에 항우의 모사가 되어, 홍문에서 잔치를 벌이고 유방을 죽이려다 실패하였음.
- 1195) 楚軍中에. 초나라 군대에.
- 1196) 玉出崑岡. 옥은 곤륜산에서 남. ‘곤륜산’은 중국의 산 이름.
- 1197) 明沙十里. 하얀 모래가 10리나 깔려 있는 바닷가.
- 1198) 노를 저을 때 내는 소리. ‘영차’와 비슷함.
- 1199) 香臭. 향내. 향기로운 냄새.
- 1200) 許多히. 매우 많이.
- 1201) 무엇을 나눌 때, 각자에게 돌아오는 한몫.
- 1202) 財物. 돈이나 그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
- 1203) 宋天子. 송나라 천자, 곧 임금.
- 1204) 崩. 임금이나 왕후의 죽음.

- 1205) 納妃. 왕비를 맞아들임.
 1206) 各地.
 1207) 琪花瑤草. 신선 세계에 있다는 아름다운 꽃과 풀.
 1208) 皇極殿. 황제가 정사를 보기 위하여 나가 앉던 전각.
 1209) 八月芙蓉君子容. 팔월에 피는 연꽃의 군자와 같은 모습.
 1210) 萬塘秋水의 紅蓮花. 가을 연못에 가득히 핀 붉은 연꽃.
 1211) 暗香浮動月黃昏. 그윽한 매화 향기가 희미한 달빛 속에 떠돈다. 송나라 때 시인 임포의 시 〈산원소매(山園小梅)〉의 한 구절.
 1212) 寒梅花. 추운 가운데 피는 매화.
 1213) 盡是劉郎去後栽. 이 모두가 유랑이 간 뒤에 심어놓은 것들이다. 당나라 때 시인 유우석(劉禹錫)이 모함을 받아 10년을 지낸 뒤에 돌아와, 복숭아꽃이 붉은 것을 보고 지은 시. 〈자랑주지경희중간화제군자(自郎州至京戲贈看花諸君子)〉의 한 구절. 유랑은 유우석을 가리킴.
 1214) 복숭아꽃.
 1215) 九月九日龍山吟 笑逐臣 국화꽃. 음력 구월 구일에 용산에 올라기 시를 읊으니, 쫓겨난 신하를 비웃던 국화꽃. 이백의 시 〈구월용산음(九月龍山吟)〉의 ‘구월용산음 황화소축신(九月龍山吟 黃花笑逐臣)’에서 딴 구절.
 1216) 三千弟子. 삼천 명이나 되는 제자.
 1217) 講論. 학술이나 도의의 뜻을 해설하며 토론함.
 1218) 杏壇春風의. 행단의 봄바람에. 행단은 산동성 곡부현 공자묘 앞에 있는, 옛날 공자가 학문을 강의하던 터인데, 복송 때에는 여기에 단을 쌓고 주위에 살구나무를 심었으며, 금나라 때에는 행단비(杏壇碑)를 세웠다.
 1219) 梨花滿地不開門허니 長信宮中 배꽃이요. 지는 배꽃 뜰에 가득 쌓여도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하던 장신궁 속의 배꽃이요. ‘이화만지불개문(梨花滿地不開門)’은 당나라 때 시인 유방평(劉方平)의 시 〈춘원(春怨)〉의 마지막 구절. ‘장신궁’은 한나라 성제(成帝)의 궁녀인 반녀(班姬)가 조비연(趙飛燕) 자매에게 미움을 받아 쫓겨 가 있던 태후의 궁. 반녀는 쫓겨 가 있던 동안에 〈원가행(怨歌行)〉을 썼음.
 1220) 天台山. 중국 절강성 천태현에 있는 산.
 1221) 兩邊開芍藥. 길 양쪽에 작약이 피어 있음. 한나라 사람인 유신과 완조가 약을 캐러 천태산에 들어갔을 때에 길 양쪽에 작약꽃(합박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는 뜻.
 1222) 怨征夫之離別허니 玉窓五見의 櫻桃花. 전쟁터에 나간 낭군과의 이별을 원망하면서, 아름다운 창가에 앵도화를 다섯 번 본다. 곧 이별한 지가 5년이 되었다.
 1223) 蜀國恨. 촉나라 망제(望帝)의 한. 망제는 주나라 말기 촉의 제후로, 스스로 황제라 일컬은 두우(杜宇)를 가리키는데,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원통하게 죽어, 그 님이 두견새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1224) 啼血. 피를 토함.
 1225) 진달래꽃.
 1226) 李花. 오얏꽃. 자두꽃.
 1227) 桃花. 복숭아꽃
 1228) 鷄冠花. 맨드라미.

- 1229) 黃菊. 노란색 국화.
- 1230) 白菊. 흰색 국화.
- 1231) 四季花. 월계화(月季花). 월계꽃.
- 1232) 東園桃李片時春. 봄동산의 복사꽃 오얏꽃이 잠시 동안의 봄을 누림. 당나라 때 시인 왕발(王勃)의 시 〈임고대(臨高臺)〉의 한 구절.
- 1233) 牧童遙指가杏花村. 목동이 손을 들어 살구꽃을 가리킴. 당나라 때 시인 두목(杜牧)의 시 〈청명(清明)〉의 ‘차문주가하처재(借問酒家何處在)오 목동요지행화촌(牧童遙指杏花村)’ ‘주막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니, 목동이 손을 들어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키네’에서 따온 구절.
- 1234) 月中丹桂無三更. (달은 언제나 밝아서) 달에 있는 계수나무에는 삼경(밤11시에서 1시 사이의 시간. 곧 한밤중)이 없다.
- 1235) 진달래꽃.
- 1236) 芭蕉. 중국 원산의 잎이 크고 넓은 화초로 여러 품종이 있는데, 따뜻한 지방에서 관상용으로 가꿈.
- 1237) 梔子. 꼭두서니과에 딸린 늘푸른 떨기나무. 높이는 2~3m정도이며, 7월에 크고 흰 꽃이 핀.
- 1238) 柑果. 장과(漿果)의 하나. 속 열매껍질의 일부가 주머니처럼 생기고 속에 액즙이 들어 있는 과일을 이른다. 귤, 감자, 유자 따위가 있다.
- 1239) 枇杷. 비파나무. 장미과에 딸린 늘푸른 큰키나무. 높이 10m 가량. 늦가을에 향기롭고 누르스름한 꽃이 가지 끝에 피고, 열매는 이듬해 여름에 서양 배, 또는 악기 비파 모양으로 노랗게 익음.
- 1240) 으름. 가을에 열리는 열매인데, 먹을 수 있으며, 잘 익으면 하얀 열매가 딱 벌어진다.
- 1241) 대추.
- 1242) 香果. 향기로운 과일.
- 1243) 香風. 향기로운 바람.
- 1244) 슬쩍.
- 1245) 나비.
- 1246) 지저귀어 울며.
- 1247) 御殿. 임금의 있는 곳.
- 1248) 進上.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이나 웃사람에게 바침.
- 1249)大喜하여. 크게 기뻐하여.
- 1250) 瑤池 碧桃花. 중국 곤륜산에 있다는 선녀인 서왕모(西王母)가 사는 연못가에 있다는 푸른 복숭아의 꽃. 삼천 년에 한 번씩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다고 함.
- 1251) 東方朔. 한나라 무제(武帝) 때의 사람. 자(字)는 만청(曼淸). 벼슬이 금마문시중에 이르고, 해학과 변설로 이름이 났음. 속설(俗說)에, 서왕모의 복숭아를 훔쳐 먹고 장수하였다고 함.
- 1252) 降仙花. ‘신선이 타고 내려온 꽃’이라는 의미.
- 1253) 一夜는. 하룻밤에는.
- 1254) 怪異히. 괴이하게.

- 1255) 禮하며. 인사를 하며.
- 1256) 不意에. 뜻하지 않게.
- 1257) 天眼. 임금을 높이어 그 눈을 가리키는 말.
- 1258) 惶恐無地. (몸가짐이나 몸 둘 바를 모르게) 매우 무섭고 두려움.
- 1259) 떨어지자마자.
- 1260) 因忽不見. 언뜻 보이다가 바로 없어져 보이지 않음.
- 1261) 別宮. 임금이나 왕세자의 혼인 때 왕비나 세자빈을 맞아들이던 궁전.
- 1262) 朝會. 벼슬아치들이 아침 일찍이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를 아뢰던 일.
- 1263) 滿朝大臣. 조정에 가득한 높은 신하들.
- 1264) 國母. 왕후.
- 1265) 入宮. 궁에 들어감.
- 1266) 家家戶戶. 집집마다.
- 1267) 堯舜天地. 요임금과 순임금의 세상. 곧 태평성대.
- 1268) 仙降則居. 신선이 내려와 삶.
- 1269) 無雙이나. 다시없음.
- 1270) 玉欄杆. 옥으로 만든 난간.
- 1271) 秋月은 滿庭하여. 가을 달빛은 정원에 가득하여.
- 1272) 珠簾. 구슬 따위를 꿰어 만든 발.
- 1273) 晴天. 맑은 하늘.
- 1274) 月下에. 달 아래.
- 1275) 蘇中郎 北海上의 便紙 傳던 기러기나. 소중량은 한무제(漢武帝) 때의 충신으로, 이름은 무(武), 자(字)는 자경(子卿). 벼슬이 중랑장에 이르렀으므로 소중량이라고 함. 소무는 흉노에게 사신으로 갔다가 붙잡혀 있었는데, 기러기 발에다 편지를 묶어 날려보내,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 19년 만에 돌아왔음.
- 1276) 水墨. 빛이 엷은 먹물. 여기서는 글씨에 물이 번져 뭉개진 것을 이룸.
- 1277) 誤錯. 잘못되어 뒤섞임.
- 1278) 滄茫. 너르고 멀어 아득함.
- 1279) 분명하고 뚜렷하게.
- 1280) 內宮. '왕비가 거처하는 궁'이란 의미로 쓴 듯함.
- 1281) 愁色. 근심스러운 기색.
- 1282) 滿面. 얼굴에 가득함.
- 1283) 天下莫非王土. 천하가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음. 온 세상이 다 왕의 땅임.
- 1284) 率土之民이 莫非王民. 온 나라 안의 일반 백성이 왕의 백성 아닌 사람이 없음.
- 1285) 行關. 동등한 관청 사이에 공문을 보냄.
- 1286) 大小 人民間에.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든 백성들은.
- 1287) 封庫罷職. 어사나 감사가 부정이 많은 관원을 파면시키고 관가의 창고를 잠그던 일.
- 1288) 傳令. 명령을 전함.
- 1289) 僅僅圖生. 겨우 겨우 살기를 꾀함.
- 1290) 江頭. 강가의 나루 근처.

- 1291) 望思臺. 한나라 무제(武帝)가 간신의 모략으로 달아나 목매어 죽은 태자의 무죄함을 뒤에 알게 되자, 사자궁을 짓고, 그 안에다 태자의 넋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누각. 애매하게 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거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짓는 누각에 곧잘 붙이는 이름.
- 1292) 年年이. 해마다.
- 1293) 祭享할 제. 제사를 지낼 때.
- 1294) 墮淚碑. 눈물을 흘린 비. 사마염(司馬炎)이 서진(西晉)을 세우고 무제(武帝)가 되었을 때, 명장인 양호(羊祜)가 죽은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여 양양현 현산에 비를 세웠는데, 그 비문을 보는 사람마다 울어서 붙은 이름.
- 1295) 至憂老親平生恨하여 殺身成孝行船去라. 煙波萬里常深碧허니 芳草年年還不歸라. 늙으신 아버지의 평생의 한을 지극히 걱정하여, 자신을 죽여 효를 이루고자 배를 타고 떠났네. 멀고먼 안개 낀 물 늘 깊고 푸른데, 꽃다운 풀은 해마다 다시 피어나지만, (심청은)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 1296) 지팡이.
- 1297) 아무렇게나 함부로 짓고.
- 1298) 水中孤魂. 물 속의 외로운 혼령.
- 1299) 데려가거라.
- 1300) 三神. 민속에서 아기를 점지하고 산모와 산아(産兒)를 돌본다고 하는 세 신.
- 1301) 자신에게 이로운 일이면 기를 쓰고 덤벼드는 사람.
- 1302) 아래로 내려가면서 덩굴.
- 1303) 위로 올라가며 덩굴.
- 1304) 南之西之. '남쪽과 서쪽'인 듯.
- 1305) 四顧無親.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 1306) 手足. 형제나 자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1307) 本村. 주가 되는 마을을 갈라져 나간 마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여기서는 '그 마을'이라는 의미로 썼음.
- 1308) 號. 별호(別號). 달리 부르는 이름.
- 1309) 錢穀. 돈과 곡식.
- 1310) 어느 정도 이상의 뜻을 나타내는 말.
- 1311) 自願出家. 자기가 원하여 시집을 감.
- 1312)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기 위하여 놀리는 입.
- 1313) 通人. 통행하는 사람.
- 1314) 패악한 짓을 하고. '패악(悖惡)'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지고 흉악함.
- 1315) '빼죽보다 강한 말.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미는 모양.
- 1316) '빼죽보다 센 말. 비웃거나 언짢거나 울려고 할 때 소리 없이 입을 내미는 모양.
- 1317) 가볍게 한 번 흘려보는 모양.
- 1318) 가볍게 한 번 눈동자를 옆으로 굴려 조금 못마땅하게 노려보는 모양.
- 1319) 毀談. 헐뜯는 말.

- 1320) 託情. 정을 붙임. 정이 들.
- 1321) 宦家. 지방의 한 고을의 행정 사무를 보던 관아. 시골 사람이 그 고을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를 일컫는 말.
- 1322) 路需. 노자(路資). 먼 길을 오가는 데 드는 비용.
- 1323) 女必從夫.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함.
- 1324) 몇 냥 되는 돈.
- 1325) 쥐 먹는 것을 못 먹게 할 수 없듯이, 부인에게 드는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는 말.
- 1326) 떠나려고 하니까.
- 31327) 이제.
- 1328) 어떻게 갈까?
- 1329) 趙子龍. 유비의 부하 장수. 상산(常山) 사람으로 이름은 운(雲). 자(字)가 자룡(子龍). 본디 원소의 막하에 있다가, 그의 인품에 실망하여 공손찬을 위기에서 건져주고 그의 막하에 들었다. 거기서 유비를 만나 알게 되고, 흠모하여, 이후 고락을 같이 하였다.
- 1330) 越江. 강을 건너 뗏.
- 1331) 靑驄馬. 갈기와 꼬리가 파르스름한 흰 말.
- 1332) 이 시각으로. 곧 즉시.
- 1333) 길을 가면서 부르는 노래.
- 1334) (메기고 받는 노래에서) 먼저 소리를 하여 주소.
- 1335) 발을 매면서 부르는 민요.
- 1336) 경상도 민요의 가락.
- 1337) 日暮. 날이 저물.
- 1338) 서로 마음이 통하여.
- 1339) 物色. 어떤 일의 까닭이나 형편.
- 1340) 가야.
- 1341) 萬無. 절대로 없음.
- 1342) 밤길 간다고.
- 1343) 이제야.
- 1344) 內外間. 부부 사이.
- 1345) 털썩.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거나 쓰러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1346) 天下. 매우 드물거나 뛰어나서 세상에서 비길 데가 없음을 이르는 말.
- 1347) 當初. 일이 생기기 시작한 처음.
- 1348) 하지.
- 1349) 그리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하는 말.
- 1350) 賢哲. 어질고 사리에 밝음.
- 1351)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물건이 부스러지면서 내는 소리.
- 1352) 깨물어 가버려라.
- 1353) 누구와.
- 1354) 三伏盛炎. 삼복의 심한 더위. ‘삼복’은 한 해의 가장 더운 기간으로, 초복, 중복, 말복을 이룸.

- 1355) 세차게 뿌리며.
 1356) 쳐다보느냐.
 1357) 만학천봉(萬壑千峰)이요, 수많은 골짜기와 산봉우리요.
 1358) 白沙之땅일레라. 흰 모래 땅이로구나.
 1359) 長松, 키가 큰 소나무.
 1360) 流水는, 흐르는 물은.
 1361) 물줄기 따위가 끊이지 않고 강하게 흐르는 소리.
 1362) 모든 골짜기.
 1363) 한 곳으로.
 1364) 합수(合水)저, 물이 합쳐져.
 1365) 천방지축으로 턱을 넘고 굽이쳐.
 1366) 물방울.
 1367) 거품이 일어.
 1368) 돌우어, 돌구어.
 1369) 겹쳐놓고.
 1370) 壯히, 매우.
 1371) 덩썩, 무엇을 닮음 움켜잡거나 무는 모양.
 1372) 三角山, 서울 남산의 옛 이름.
 1373) 이보다.
 1374) 東海流水, 동해의 흐르는 물.
 1375) 이에서, 이보다.
 1376) 衣冠行裝, 옷과 갓, 여행할 때 쓰는 물건과 차림.
 1377) 아무렇게나 함부로 행동하여 버릇이 없는.
 1378) 가져가버렸지.
 1379) 白首風神, 머리가 하얀 노인의 풍채
 1380) 되어버렸소.
 1381) 존귀한 사람이 길을 갈 때 ‘물렀거라’라는 뜻으로 외치던 소리.
 1382) 官長님, 시골 백성이 고을 수령을 일컫던 말.
 1383) 官은 民之父母, 관리는 백성의 부모임.
 1384) 使令, 조선 시대에, 각 관아에서 심부름하던 사람.
 1385) 及唱, 옛날 지방 관청에 딸려있던 하인.
 1386) 拜謁次로, 뵈겠다고.
 1387) 小盲, 맹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1388) 別般處分, 보통과 달리 잘 처리해 줌.
 1389) 積善之家에 必有餘慶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스런 일이 있다.
 1390) 太守長, 태수 어른.
 1391) 덕택으로.
 1392) 衣籠, 옷을 넣어두는 농.

- 1393) 網巾. 상투 있는 사람이 머리털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말총, 곱소리(코끼리의 꼬리털), 또는 머리카락 등으로 그물처럼 만들어 머리에 두르는 물건.
- 1394) 路需. 먼 길을 오고가는 데 필요한 비용. 노자.
- 1395) 白骨難忘. 죽어 흰 뼈가 되어도 잊지 못함.
- 1396) 百倍謝禮. 여러 번 절을 하며 감사함.
- 1397) 가상의 다리 이름.
- 1398) 緣水亭. 푸른 물가에 있는 정자란 뜻으로, 지어 붙인 가상의 정자 이름.
- 1399) 近來. 요즘.
- 1400) 안 시켜주더구만. 봉사들에게 좋은 일이 많아, 아무나 시켜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쓴 말.
- 1401) 봉사인가보지.
- 1402) 암. 아무렴. 말할 나위 없이 그렇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말에 강한 긍정을 보일 때 하는 말.
- 1403) 太古라 天皇氏는 以木德으로 王하였으니. 옛적 천황씨는 목덕으로서 왕노릇을 하였으니. 천황씨는 중국 전설상의 최초의 왕. '목덕'은 총명예지와 인·의·예·지의 다섯 가지 덕을 오행으로 형상화한, 우주 만물에 그 힘이 미친다는 임금의 덕.
- 1404) 나무.
- 1405)重複손가? 중하지 않겠는가?
- 1406) 有巢씨 構木爲巢. 유소씨가 나무를 엮어 집을 지었음. 유소씨는 중국 전설상의 임금으로, 새가 둥지를 틀고 사는 것을 보고, 나무를 엮어 집을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함.
- 1407) 지으셨나?
- 1408) 따비. 풀뿌리를 뽑거나 밭을 가는 데 쓰는 농기구. 쟁기보다 조금 작고 보습이 좁게 생겼다.
- 1409) 比樣했던가. 모양을 본뵈었던가. 모방했던 것인지.
- 1410) 玉鬢紅顏. 아름다운 귀밑머리와 붉은 얼굴. 젊은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을 표현한 말.
- 1411) 비녀이던가? 비녀인가?
- 1412) 簪. 비녀.
- 1413) 滄海老龍. 넓고 푸른 바다의 늙은 용.
- 1414) 周文王의. 주나라 문왕의. 주나라 문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천자에 오른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임. 그러나 '돈수'와 관련이 없음.
- 1415) 頓首. 머리가 땅에 닿도록 조아림.
- 1416) 五穀大夫. 춘추시대 사람 백리해(百里奚)를 말함. 백리해가 초나라 사람에게 잡혀 있을 때,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오고양피(값비싼 암양의 가죽 다섯 장)를 주고 다시 찾아서 정치를 맡겼으므로 오고대부라 불렀음. 백리해가 정치를 잘하여 진나라는 패자가 되었고 태평했음.
- 1417) 聖上. 자기 임금을 높여 이르는 말.
- 1418) 卽位하시어.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어.
- 1419) 國泰民安.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함.
- 1420) 古今. 옛과 지금.
- 1421) 萬疊靑山. 아주 깊은 산.

- 1422) 고소하구나.
- 1423) 孟浪하다. 가볍게 만만히 볼 수 없을 만큼 뽄뽄하고 깜찍하다.
- 1424) 방아를 찧는 사람들.
- 1425) 배充腹. 음식의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배를 채움. ‘배’는 불필요한 말임.
- 1426) 路中. 길 가운데.
- 1427) 怪異히. 이상야릇하게.
- 1428) 疑端. 의심스러운 일의 실마리. 여기서는 ‘뭔가 안 좋은 일’ 정도의 의미인 듯함.
- 1429) 讀經. 경문을 소리 내어 외거나 읽음.
- 1430) 座. 앉을 자리.
- 1431) 棄世. 세상을 버림. 죽음.
- 1432) 卜術. 점치는 법.
- 1433) 平生을 我自知라. 평생을 내 스스로 알다.
- 1434) 吉緣. 운수가 좋은 인연.
- 1435) 일월(日月)은 눈을 상징하므로, 일월이 물에 잠긴다는 것은 맹인이라는 뜻이고, 잠길 침(沈)은 성으로는 심(沈)으로도 읽히므로 심 씨인 줄 짐작하였다는 뜻.
- 1436) 無恥. 염치가 없음.
- 1437) 千不當萬不當. 천만부당. 절대 마땅하지 않음.
- 1438) 洞房華燭. 혼례를 치른 뒤에 신랑이 신부 방에 머물러 자는 의식.
- 1439) 胡蝶夢. 중국의 장자(莊子)가 꿈에 나비가 되어 즐겁게 놀았다는 고사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즐기며 지내다’라는 뜻으로 쓰였음.
- 1440) 愁心하나이까? 근심하십니까?
- 1441) 만들어.
- 1442) 凶夢. 불길한 꿈.
- 1443) 身入火히니 和樂. 자신이 불에 들어가니 화평하고 즐거움. ‘火落(불에 떨어짐)과 화락(和樂)이 음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한 것임.
- 1444) 去皮作鼓. 가죽을 벗겨 북을 만들.
- 1445) 落葉이 歸根히니 子女를 可逢이라. 낙엽이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니 자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 1446) 證驗. 증거로 될 만한 경험.
- 1447) 소경들이 가득한 광경을 이렇게 표현한 듯함.
- 1448) 排設. 연회나 어떤 의식에 쓰는 여러 가지 기구를 벌여 베풀어 놓음.
- 1449) 哀痛해 하시다가. 몹시 슬퍼하시다가.
- 1450) 靈驗. 사람의 기원에 대하여 신이나 부처가 베풀어주는 신령스런 보람.
- 1451) 宛然히. 분명하고 뚜렷하게.
- 1452) 맹인 축에서. 맹인 중에서.
- 1453) 路中. 길 가는 도중.
- 1454) 狼狽.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어그러짐.
- 1455) 亡終. 마지막.
- 1456) 正言 使令. ‘정언’은 조선 시대에, 사간원에 속한 정육품 벼슬.이며, ‘사령’은 관아에서

- 심부름하는 사람. 따라서 여기는 ‘어진 사령’의 잘못된 듯.
- 1457) 各邑. 각 고을. 각각의 고을.
- 1458) 亡終. 마지막
- 1459) 參禮. 예식, 제사, 전쟁 따위에 참여함.
- 1460) 외치는.
- 1461) 遠近山川. 멀고 가까운 산천. 온 산천.
- 1462) 크고 우렁차게.
- 1463) 처매줄. 칭칭 감아서 매줄. 여기서는 ‘인연을 맺게 해줄’이라는 의미.
- 1464) 어따. 무엇이 몹시 심하거나 하여 못마땅해서 빈정거릴 때 내는 소리.
- 1465) 수많은 맹인.
- 1466) 滿座中에. 자리에 가득한 가운데서.
- 1467) 죽을랍디까? 죽겠습니까?
- 1468) 白首. 흰 머리.
- 1469) 居住. 사는 곳.
- 1470) 妻子. 아내와 자식.
- 1471) 小盲. 맹인이 자신을 낮추어 일컫는 말.
- 1472) 故土. 고향의 땅. 고향.
- 1473) 產後止頁. 출산 후에 일어난 병.
- 1474) 喪妻. 아내를 잃음.
- 1475) 襁褓. 포대기.
- 1476) 出天하여. 하늘이 내서. 아주 뛰어나서.
- 1477) 僅僅圖生. 겨우겨우 살아나감.
- 1478) 佛前으로. 부처님 앞으로. 부처님께.
- 1479) 祭需. 제사에 쓰이는 사람이나 물건.
- 1480) 于今. 지금까지.
- 1481) 버르거나 다집할 때 쓰는 말.
- 1482) ‘깜짝깜짝’의 약한 말. 자꾸 깜짝거리는 모양.
- 1483) 쌓인 물건을 계속 함부로 들추어 헤치는 모양. 여기서 ‘허적허적하다’는 ‘꽤 찬 것 같다.’는 뜻.
- 1484) 노름이나 내기 따위에서 남이 가지게 된 뒤편에서 조금 얻어 가지는 공것.
- 1485) 滿座盲人. 좌석에 가득한 맹인.
- 1486) ‘갈모’는 ‘갓모’가 변하여 된 말. 비가 올 때에 갓에나 맨머리에 덮어 쓰던 우장의 하나인데, 기름을 먹인 종이로 만든 것으로, 퍼면 고깔처럼 되고, 접으면 철부채처럼 훌쩍해진다. 이를 펼 때에는 “찍찍” 하는 소리가 몹시 난다.
- 1487) 찢어내는.
- 1488) 中路. 길 가는 중간.
- 1489) 화내다가.
- 1490) 물체 따위에 반사된 큰 빛이 잠깐씩 나타나다.
- 1491) 至於飛禽走獸까지. 날짐승과 길짐승에 이르기까지.

- 1492) 光明天地. 밝은 세상.
- 1493) 七寶金冠. 칠보로 장식한 금관.
- 1494) 前後不見 初面이었던가 보더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본 적이 없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던가 보더라.
- 1495) 甲子 四月 初八日 밤. 갑자년 4월 8일 밤. 광씨부인과 심봉사가 태몽을 꾸던 밤.
- 1496) 引導還生. 중생들을 이끌어 다시 태어나게 함.
- 1497) 좋음도. 좋기도.
- 1498) 滄海萬里. 만 리나 되는 멀고 먼 푸른 바다.
- 1499) 還世上. 세상으로 돌아옴.
- 1500) 어둡침침. 어둡고 컴컴함.
- 1501) 山陽水 큰 싸움. <삼국지>를 기초로 하여 창작한 고전 소설 《산양대전》의 싸움터. 여기서 관우와 마초가 조조의 군사에게 포위되어 5일 동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자룡이 사천으로부터 달려와 이들을 구해냈음.
- 1502) 子龍. 중국 삼국시대 촉(蜀)의 명장. 성은 조(趙), 이름은 운(雲). 자룡은 그의 자(字)임.
- 1503) 興盡悲來 苦盡甘來. 즐거운 일이 다하면 슬픈 일이 돌아오고, 고통이 다하면 기쁜 일이 돌아온다.
- 1504) 나를.
- 1505) 中華. ‘中’은 중앙이나 중심, ‘華’는 문화라는 뜻. 중국의 한족(漢族)이 주위의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민족에 대하여, 자기 민족을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문명국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일컫는 말.
- 1506) 堯舜天地.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것과 같은 세상, 곧 태평성대.
- 1507) 太古적. 아주 오래된 옛날.
- 1508) 宋天子. 송나라의 천자. 송나라 황제.
- 1509) 萬萬歲. ‘만세’를 강조한 말.
- 1510) 府院君. 조선조 때 왕비의 아버지나 정1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
- 1511) 來賓. 오신 손님.
- 1512) 千千萬萬歲. 경축과 환호의 뜻으로 외치는 말. ‘천세’와 ‘만세’를 강조한 말.
- 1513) 황제가 정사를 보기 위하여 나가 앉던 전각.
- 1514) 至於飛禽走獸까지도. 날짐승과 길짐승에 이르기까지도.
- 1515) 뜨는고? 뜨느냐?
- 1516) 罪狀.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
- 1517) 留宿. 머물러 잠.
- 1518) 五更시. 새벽 세 시에서 다섯 시까지.
- 1519) 九泉. ‘땅 밑, 대지의 밑’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죽어서 돌아가는 곳. 저승.
- 1520) 明天. 모든 것을 다 아는 하늘.
- 1521) 天下. 세상에 다시는 없을 만큼 심한 형편이라는 뜻으로, 너무 놀라거나 한탄할 때 쓰는 말.
- 1522) 匕首劍. 비수. 작고 날카로운 칼.
- 1523) 人誰無過리오? 사람으로 누가 허물이 없으리오?

- 1524) 改則爲善이라. 마음을 고치면 선하게 된다.
- 1525) 알기 때문에.
- 1526) 是以. 이로써. 이 때문에.
- 1527) 쏘기.
- 1528) 積善之家에 必有餘慶이요, 積惡之家에 必有餘殃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경사가 있고, 나쁜 일을 많이 한 집안에 반드시 재앙이 있다.
- 1529) 天道. 하늘이 낸 도리나 법.
- 1530) 沈生員. 심 씨 성을 가진 선비. ‘생원’은 예전에, 나이 많은 선비를 대접하여 이르던 말.
- 1531) 入侍. 대궐 안에 들어가 임금에게 뵈.
- 1532) 府院君. 조선조 때 왕비의 아버지나 정1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
- 1533) 左水使. 좌수군절도사. 조선 시대에 둔 좌수영(左水營)의 우두머리.
- 1534) 別給賞賜. 따로 상을 내려줌.
- 1535) 職品. 벼슬의 품계.
- 1536) 올려.
- 1537) 禮部尙書. 중국에서 예부의 장관을 이르던 말. ‘예부’는 국가의 행사와 외교, 학교, 과거의 일 맡아보던 관청.
- 1538) 教旨. 임금의 명령.
- 1539) 貞烈夫人. 정렬(貞烈)이 있는 부인에게 내리던 가자(加資).
- 1540) 封하시고. 임금이 작위(爵位)나 작품(爵品)을 내려 주시고.
- 1541) 化主僧. 속세에 나가서 불교를 포교하며, 부처에게 바칠 공양물과 중들의 음식과 옷 따위를 대주는 책임을 맡은 중.
- 1542) 堂上. 당상관. 정3품 통정대부 이상을 일컫는 말.
- 1543) 千金賞. 상으로 내린 많은 재물.
- 1544) 稅役. 세금과 부역.
- 1545) 千千萬萬歲. 경축과 환호의 뜻으로 외치는 말. ‘천세’와 ‘만세’를 강조한 말.
- 1546) 百行. 모든 행동
- 1547) 千秋遺傳. 오래오래 후세에 물려줌.
- 1548) 북소리의 의성어로, 판소리의 맨 끝에 부르는 관용구.